

광명의 뿌리

정리: 김민준

광명여부리

광명문화원

‘광명의 뿌리’를 발간하며

광명시는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유구한 역사의 토대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삼국시대에는 ‘임별노현’이라는 지명으로 통일신라 시대에는 ‘곡양현’으로 고려시대에는 ‘금주’로 조선시대에는 ‘금천현’으로 근대에는 시흥군 서면으로 불리우다가 1981년에 광명시로 승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광명의 뿌리’는 이러한 역사의 흐름속에서 광명시를 지켜온 선조들의 뿌리를 찾아내어 광명지역을 지켜온 선현들의 발자취를 광명시민들에게 알리고 애乡심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본서는 광명에 정착하여 10代 이상을 거주해온 姓氏를 중심으로 발굴 수록 하였습니다.

수개월의 조사과정에서 약 20여개 성씨가 조사발굴되었는데 본서에 수록된 것은 19개 성씨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나 반드시 수록되어야 할 선조들이 빠진 이유는 사료의 미비때문이며 조사,연구가 부족한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족한 점은 향토의 어른들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보완하고 문화원 자체내에 향토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서의 발간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다하여주신 시당국에 감사드리며 원고 감수를 하여주신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여러위원님들과 조사요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충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1997. 4.

광명문화원 원장 정원조

발간을 축하드리며...



우리 시는 서울과 인접한 도시이면서도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역사와 충절이 살아숨쉬는 미래가 있는 도시입니다.

선사시대의 유물인 지식묘가 발견되었으며 소현세자와 민회빈 강씨의 전설이 있는 영희원, 충현서원지, 도덕산성지 등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조선시대의 명신이신 이원익, 정원용, 이순신, 강석기 등 역사적 인물들이 우리들의 정신에 살아숨쉬고 있습니다.

<광명의 뿌리>는 10대 이상 장기 거주한 주민을 중심으로 성씨의 유래, 중요 인물, 설화 및 전설, 광명 정착 유래 등을 수록함으로써 35만 광명 시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신 정원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감수하여 주신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 조사에 협조해 주신 각 성씨의 대표자분, 그리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에 발간된 <광명의 뿌리>는 날로 서구화되는 현대 문화 속에서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7. 4.

광명시장 전제회



시의 깃발

● 전체모양

심볼마크는 광명시의 이념과 목표가 함축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기존의 광명시 마크에서 현대적 느낌을 주도록 형태를 타원형으로 단순화 시켜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광명시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상단부의 은행잎은 지방 자치 시대에 떠오르는 광명시를 상징하고 있으며, 하단부의 빛살은 확산되는 이미지로서 발전해 나가는 광명시임을 상징하고 있다



시의 나무(은행나무)

- 깨끗하고 변함없다.
- 수명이 길고 노란 열매를 맺으며 잎이 곱다.
- 웅자한 자태는 무궁한 번영을 상징한다.
-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상징한다.



시의 꽃(장미)

- 공해에 강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 꽃의 다양한 종류는 무궁한 지혜를 상징한다..
- 그윽한 향기는 우아하고 고귀한 기풍이 있다.
- 줄기의 가시는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의 용기를 상징한다.



시의 새(까치)

- 야생조이면서 인가 가까이 서식한다.
-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전설이 있다.

광명항토문화연구

광명의 뿌리

감수위원

심정구 위원	구정희 위원
심현구 위원	이양호 위원
윤완보 위원	이승규 위원
김선일 위원	

기획위원

한재열 (문화공보담당관)	신태송(문화계장)
윤 철 (문화원사무국장)	

집필자

강대원(세종대학원)	강윤정(경희대)
김정한(경희대)	김홍겸(연세대학원)
정영미(이화여대)	

기 록	문광호
편집책임	윤 철
편집.교정	이소영, 양철원

발행일	1997년 4월 제 2관 1쇄 펴냄
발행처	광명문화원

광명의 뿌리는 광명시
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광명의 뿌리

차 례

한국인의 성씨란 무엇인가	9
광명에서 10代 이상 거주한 성씨를 중심으로 (가나다순)	
금천 강씨	17
능성 구씨	33
광산 김씨	43
김녕 김씨	55
김해 김씨	67
여흥 민씨	77
순창 설씨	88
창녕 성씨	96
고령 신씨	105
청송 심씨	117
파주 엄씨	127
무송 윤씨	137
광주 이씨	145
전주 이씨	155
덕수 장씨	169
영일 정씨	179
초계 정씨	193
경주 최씨	203
전주 최씨	215

일러두기—이번조사는 광명시지와 각 동의 기초조사, 지역어른
의 의견을 모아 실시 하였습니다. —광명문화원—

한국인의
성씨란 무엇인가

성씨의 유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한자(漢字)문화가 들어온 이후인 삼국시대부터라 하겠다. 삼국이 성립되기 이전인 원시시대, 고대의 씨족사회 내지 고대 성읍(城邑)국가 시대에는 아직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성이라든지 본관(本貫)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원시시대의 경우 조상이 같은 사람들이 자기 집단을 이루고 살아왔던 혈연공동체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씨족에 대한 관념이 매우 강하였다. 그리하여 자기의 조상을 숭배하고 동족끼리 그들의 명예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의 각 씨족들은 다른 씨족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명칭만 있었을 뿐이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韓國中世社會史研究』, 일조각, 1984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의 사서(史書)에 의하면 고구려의 경우 시조 주몽(朱夢)이 건국하여 국호(國號)를 고구려(高句麗)라 하였기 때문에 고(高)씨라 하고, 백제는 온조(溫祖)가 부여에서 나왔다하여 부여(夫餘)씨, 그리고 신라는 박(朴)·석(昔)·김(金)의 3성 전설이 있다하여 마치 삼국이 성읍국가 시대부터 성을 사용한 듯이 기술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중국문화를 수용한 이후 즉, 한자를 사용한 뒤에 지어낸 것이다. 7세기 이전에 건립된 금석문의 내용 가운데 인명의 경우 성을 가진 자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를 뒷받침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을까.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고구려는 대략 장수왕(長壽王) 때인 413~491년부터 중국으로 보낸 국서(國書)에 고(高)씨, 백제는 근초고왕(斤肖古王) 때인 346~374년부터 여(餘)씨라 하였다가 무왕(武王) 때인 600~640년에 부여씨라 하였다. 한편 신라는 진흥왕(振興王) 때부터 김씨 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왕성(王姓) 이외에도 고구려의 경우 해(解)·을(乙)·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신문화연구원

성의사용은 고구려 장수왕 때
413~491년경으로 추정

예(禮)·송(松)·목(穆)·우(于)·주(舟)·마(馬)·손(孫)·창(倉)
·동(董)·예(芮)·연(淵)·명림(明臨)·을지(乙支) 등의 10여 성
이, 백제는 사(沙)·연(燕)·협(荔)·해(解)·진(眞)·목(木)·백
(百) 등 8대 성과 왕(王)·장(張)·수미(首彌)·고이(古爾)·흑치
(黑齒) 등 10여 성, 그리고 신라는 박·석·김의 3성과 이(李)·
최(崔)·정(鄭)·손(孫)·배(裴)·설(薛)·요(姚) 등의 10여 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삼국시대에 있어서 성씨는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즉 다른
여러 집단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특권
을 향유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종전보다 더욱 자기 씨족 내의
혈연공동체의 일체감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성을 최초로 가지
는 집단은 왕실이나 귀족과 같이 최상층의 지배 집단에서 비롯
되었으며 이후 관료, 양인, 천민의 순서로 점차 보급되어 갔던
것이다.

성씨의 보급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고구려와 백제의
성씨는 점차 도태되어 계승되지 못하였고, 단지 신라계의 성씨
를 중심으로 후삼국 시대부터 한자성이 보급되어 갔다. 신라의
경우 7세기 초에 신라의 종성(宗姓)인 김씨·박씨가 나오게 되
며 설씨는 삼국 말기, 이씨는 경덕왕(景德王) 때에, 그리고 정씨
·손씨·배씨는 통일신라시대에, 마지막으로 최씨는 신라 하대
에 나타난다. 특히, 7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당과 신라 간의 문
물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계기로 성골(聖骨)이 아닌 진
골(眞骨)과 6두품(頭品) 계층이 점차 성을 취득하였다. 또한 신
라가 통일후 9주와 5소경에 왕족이나 귀족을 정책적으로 이주시
킨 결과, 성을 취득한 중앙의 귀족과 관료들이 수도인 경주뿐만
이 아닌 지방에까지 거주하게 되면서 성의 사용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후삼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지방의 호족(豪族)·촌주(村
主) 등의 세력이 중앙 권력이 약화된 틈을 타 자칭성(自稱姓)·
모성(冒姓)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점차 성씨를 취득하게 된다. 그
들이 이처럼 성씨를 취득하게 된 데에는 그들의 지방사회 자체
내에서의 성장과 신라의 중앙통치력의 약화라는 정치적인 배경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들 호족과 촌주들은 당시 사회·정치적 변동을 이끄는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여 그 시기의 지방 군·현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계층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독자적으로 중앙 정부와 버금가는 스스로의 관반(官班)을 형성하고 지역주민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후삼국 시대 호족출신의 하나였던 왕건(王建)은 이러한 맥락 위에서 후삼국을 통일한 뒤 고려를 건국하였다. 그는 건국 후 곧 전국의 군·현 개편작업을 실시함과 아울러 군현에 각기 출신지와 거주지의 토성이 분정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성씨체계가 확립되었다. 우리나라 성씨의 보급시기를 고려 초기로 잡는 또 하나의 근거로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를 들 수 있다. 그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자 비로소 성씨제도를 전국에 반포함으로써 사람들은 모두 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모두 성씨를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부 특수층을 제외하고는 10세 말기 이후인 성종 대(982~997)에 가서야 지방 군·현의 양인층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성씨가 수용되고 있었을 뿐이다.

이처럼 확립되기 시작한 성씨의 체계는 계속하여 분관(分貫), 분파(分派) 등 성의 분화와 함께 발전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왕조의 성립과 아울러 이 체제도 다시 정비되었는데 이것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관찬(官撰)지리지인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성씨조이다. 위의 양 지리지의 각 읍(邑) 성씨조는 인민(人民)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제된 성씨체계의 구체적인 자료로, 이를 통해 당시까지의 성씨를 파악할 수 있다.

성씨가 보급된 이후로도 공·사노비와 향(鄉)·소(所)·부곡(部曲)민, 역민(驛民)·진민(津民) 등의 무성층(無姓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비록 점진적으로 성씨를 취득하긴 하였으나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성씨가 보급되는 데에는 시일이 걸렸다. 그리하여 신분해방과 신분상승이 이루어진 조선후기에 이르러서야 성씨를 취득할 수 있었다. 조선전기만 하여도 노비를 위

시한 천민층이 전체 국민 가운데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서 무성층도 그만큼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무성층은 16세기 말기에 이르러 신분의 향상 내지는 신분해방을 통하여 성을 취득하게 된 계층으로 격상되었으니, 조선후기 300년의 기간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1894년의 갑오경장(甲午更張)을 계기로 종래의 신분과 계급이 타파되었으므로 성의 대중화가 더욱 촉진되었다. 이어 1909년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됨으로써 어느 누구라도 성과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성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갑오경장을 계기로
신분과 계급타파

성씨의 특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성씨제도는 비록 중국 한자성(漢字姓)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나 그것을 수용하고, 정착·분화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관습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복잡하고 고유한 면이 많이 보이는데, 이를 테면 성과 본관은 가문을, 그리고 이름은 자기 가문의 세대를 알려주는 항렬(行列)과 개인을 구별하는 자(字)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성과 이름을 알면 개인은 물론 그 가문의 세대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인의 성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부계(父系)를 본위로 한 칭호이므로 소속된 가정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성은 변하지 않는다. 예컨대 호주가 '장'을 성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내는 '박'을 성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며느리도 '홍'이라는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식이다. 이러한 사실은 출가한 후라도 반드시 자기의 혈통을 나타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성불변(姓不變)의 원칙은 우리의 성씨가 가지

한국인의 성은
부계를 본위로 한다

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즉 외국의 경우 가령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원칙적으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남편의 호적에 입적되어도 본래 가지고 있던 자기 성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기재한다. 게다가 혈연의식이 강하고 성씨에 대한 관념이 지극히 남달라 호적에 반드시 본관을 기재하여 부계의 혈통을 밝히고 동성동본(同姓同本) 사이에는 혼인도 하지 않으며 이를 법제화까지 시키고 있다.

인구의 50% 이상이
김·이·박이다.

이밖에도 우리나라는 성의 수에 있어서 270여 성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 역시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극히 적다. 또한 인구의 50%이상이 김·이·박·최씨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 계통임을 알려 준다.

성씨는 그 분화 과정에서 성만으로는 동족을 구분할 수 없었으므로 본관이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성이 같아도 본관이 다르면 이족(異族)으로 여기고 성과 본이 같아야만 동족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예외도 많다. 성과 본관이 같아도 조상의 연원을 달리하는가 하면, 성과 본관이 다를지라 하더라도 조상이 같을 수도 있다. 이처럼 성과 본관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우리나라 성씨체계의 또 다른 특징을 이룬다. 본관도 역시 성과 마찬가지로 분관·분적(分籍)이 늘어남에 따라 처음에는 시조의 출신지나 거주지를 발상지로하여 본관을 정하였으나, 점차 자손이 늘어나고 현달(顯達)하자 봉군지(封君地)·사관지(賜貫地)·벼슬 이름·후손의 일부가 새로 이주하여 정착한 곳의 이름을 따라 새로운 본관지로 변화했던 것이다.

본관제의 기원

본관은 신분의 표시이기도 하였기에 성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주로 지배층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후대에 내려오면서 점차 성이 보편화되고, 이에 따라 본관도 널리 보급되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 이르면 본관제가 정착하게 된다. 본관제의 기원은 고려 초 호족들이 점차 중앙의 귀족으로 신분상승을 하여 새로운 관료군으로 편입되자 현 거주지가 아닌 조상의 원래의 거주지를 본관으로 칭한 데서 비롯되었다. 곧 새로운 관료군(官僚群)으로 편입된 호족층이 상경입사(上京入仕)하여 개경에 모여 살

게 되자 다른 호족이 가문과 자신의 가문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본관이 하나일 경우 점차 그 가문의 수가 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종전의 본관과는 다른 또 하나의 본관이 생겼으며,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본관의 수가 수십이 넘는 현상을 야기시켰다. 특히, 조선시대의 경우 후손들 가운데 현달한 자가 배출되면 그를 중시조로하여 새로운 본관을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또한, 본관은 개변(改變)이 심하였는데 성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신분질서를 중시한 우리의 사회에서는 이를 통해 집안의 격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족보(族譜) 역시 성씨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의 하나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누구 하나도 이에 실려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다. 성씨 관계의 제일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족보는 처음 조선시대 초기 왕실과 관부(官府)에 의해 처음으로 작성 간행되었다. 그러던 중 명문 가문에 의해서 사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는 바 성종 12년(1451)의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가 최초의 것이다. 이후 16세기 중반인 명종 20년(1565)에는 『문화유씨가정보(文化柳氏茄靖譜)』가 간행되면서부터 이를 모범으로하여 명문세족(名門勢族)들이 앞을 다투어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 17세기 이후 족보가 여러 가문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최초의 족보는 『안동권씨성화보』

광명지역의 관적성씨(貴籍姓氏)

광명시는 삼국시대 이래 독자적인 구현으로 내려왔던 금천(衿川)·과천(果川)·안산(安山) 지역을 포괄하였던 시흥군의 일부 지역이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광명의 옛지명인 시흥, 즉 금천(衿川)을 본관으로 하는 관적성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금천은 조선시대 이래 서울의 근접지역으로 재경권귀(在京權貴)들의 농장과 별서(別墅)가 많았다. 그리고 왕실·외척·관료

금천을 본관으로 하는
관적성씨

들의 분묘가 도처에 산재하여 관리들의 출입이 잦았고, 기성관인들의 낙향생활과 타 지역 출신 사족(士族)의 이주도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은 주민들의 신분 구조가 복잡했을 뿐만 아니라 성씨의구성도 매우 다양했다. 금천현은 본래 고구려의 임벌노현(仍伐奴縣)으로 신라 때 곡양(穀壤)으로, 고려시대 금주(衿州)로 고쳤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라 금천현의 성씨를 살펴보면 토성(土姓)이 6개(李·趙·姜·莊·皮·桂), 망성(亡姓)이 2개(尹·秋)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토성 가운데 고려전기에 문벌귀족으로 성장한 것은 강감찬계(姜邯贊系)의 금천 강씨(衿川姜氏)였다. 성씨들 가운데에서 15세기까지 현조나 명조를 확보한 성씨들은 본관을 유지했지만 그렇지 못한 성씨들은 후대까지 계보가 이어지지 못했다.

1930년대 전국 성씨조사에서 나타난 자료에 따라 금천을 본관으로 한 성씨를 보면, 강(姜)·최(崔)·윤(尹)·류(柳)·조(趙)·서(徐)·성(成)·황(黃)·임(林)·노(盧)·어(魚)·유(劉)·육(陸)·장(莊)·피(皮)·계(桂)·추(秋) 등 17개 성씨가 보인다. 이들 금천의 관적성씨 가운데에서 족보를 남긴 것은 금천 강씨뿐이다.

금천 강씨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적성씨로서 금천에서 출자(出自)하여 일찍이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문벌귀족으로 성장하였다. 금천 강씨 문중에서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선조의 세계(世系)와 내·외자손의 계보를 초고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족보를 간행한 것은 순조 3년(1803)의 <계해보>(癸亥譜)가 최초였다. 이때 만든 족보는 77판이었는데 이때부터 백여 년이 지난 1911년 강교석 등이 184판의 <신해보>(辛亥譜)를 2차로 간행하였다.

금천을 본관으로 한 17개 성씨

금천의 관적성씨 중
강씨만이 족보를 남김

금천강씨

금천 강씨의 유래



강감찬
고려 집종 2년(948)~현종 22년(1031)

금천(衿川) 강씨(姜氏)는 시흥으로부터 나왔고 시조(始祖)인 강여청(姜餘淸)은 신라 말엽에 태어나 문하시랑(門下侍郎)을 역임하였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금천 강씨의 내력은 실로 천여 년을 이어온 장구한 역사라 할 것이다. 시조 이후 강궁진(姜弓珍)이 고려 초에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이 되었으며 그의 아들이 강감찬(姜邯贊)이다. 문무(文武)를 겸한 장상(將相)으로서 강감찬의 공적은 당시에 으뜸이었고 명성은 후세에 빛났으니 나라의 자랑이요 가문의 영광이었다.

금천 강씨는 강감찬 이하 십대에 이어 두루 관직을 역임하였고, 판윤공(判尹公) 강양(姜揚), 정랑공(正郎公) 강희(姜曦)는 일찍 문과(文科)에 올라 그의 이름이 널리 전해졌다. 삼대를 지나 사간공(司諫公) 숙돌(叔突)은 문과에 급제했으나 당시 연산군(燕山君)대의 혼란스런 상황을 비판하는 강직한 직언(直言)으로 조정과 불화를 빚어 귀양을 가기도 했다. 그러나 중종조에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 청백리로 추증(追贈)되었다.

이후 참의공(參議公) 강찬(姜燦)과 문정공(文貞公) 강석기(姜碩期)가 연이어 관직에 올라 왜적을 물리치고 국정을 보살핀 공로가 널리 알려져 또한번 문호가 빛났다. 그러나 인조대 병술(丙戌), 정해(丁亥)에 가화(家禍)를 겪게 되어 가문은 큰 어려움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전래 되던 서적이나 족보마저도 소실되었으나 선조의 사적과 성관(姓貫)을 복원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여 번성했던 가문의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금천 강씨의 대표적인 인물들

강감찬(姜邯儉)

강감찬은 고려 정종(定宗) 2년(948)에 금천(衿川, 지금의 관악구 봉천동)에서 삼한벽상(三韓壁上) 공신 강궁진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초휘(初諱, 아명)는 은천(殷川)이었다. 성종(成宗) 2년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그해 9월 진사(進士)의 복시(覆試)에 급제하였다. 강감찬은 어려서 학문을 좋아하고 재략(才略)이 뛰어났으며 성품(性品) 또한 청렴하고 검소하였다. 체모(體貌)가 작는데다가 의상이 단출하여 중인(中人)에 지나지 않았으나 언제나 바른 몸가짐으로 조정(朝廷)에 출사하여 대사(大事)에 임하고 대책을 결단함에 우뚝히 국가의 주석(柱石)이 되었다.

고려 현종 원년(1010) 경술(庚戌)년 12월에 거란의 성종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서경을 침공하였다. 서경을 에워싸고 있던 거란군은 얼마후 포위를 풀어 동북면(東北面)으로 진격하였다. 거란이 침입해오자 현종은 남쪽으로 피란하여 마침내 창화현(昌化縣, 楊州의 한 縣)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지채문(智蔡文)이 경사(京師, 開城)로부터 급히 돌아와 서경에서의 패전소식을 전했다. 이에 여러 신하들이 항복할 것을 의논하였지만 당시 예부시랑(禮部侍郎)이던 강감찬은 홀로 항전을 주장했다. 강감찬은 당시의 전세(戰勢)가 중과부적(衆寡不敵)이니 우선 적의 예봉(銳鋒)을 피한 후 천천히 후일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임금의 남행(南行)을 권유하였다. 현종은 강감찬의 말을 좇아 남행을 단행했다가 하공진의 설득에 힘입어 거란이 물러감에 따라 다시 환도하여 위난을 면했다.

현종 2년(1011) 6월에 강감찬은 한림학사를 제수받았고 3년 후인 현종 5년 7월에는 사직단(社稷壇)을 수축하였다. 중추사(中樞使) 강감찬은 사직단을 수축함에 있어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의식(儀式)의 주(註)를 논의하여 정하도록 했는데 임금도 이를 좇아 행하였다. 현종 9년 윤달에 현종은 강감찬을 서경유수(西京留守) 내사시랑 평장사(內史侍郎 平章事)로 임명하면서 친히 시를



고려 강감찬 장군 사적비



낙성대 휘호

강감찬의 '귀주대첩'

지어 강감찬이 남방으로 파천(播遷)할 것을 건의했던 공로를 칭찬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에 거란의 성종은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다시 10만 대군으로 고려를 침공케 했다. 거란군이 대거 침략해 오자 현종은 강감찬을 상원수(上元帥)로 삼고 강민첨(姜民瞻)을 부원수(副元帥)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나가 이를 방어하도록 했다. 흥화진(興化鎭, 지금의 평북 의주)에서 적을 맞은 강감찬은 치열한 전투 끝에 그들을 크게 쳐부셨다. 이에 격노한 소손녕(蕭遜寧)이 또 침략해오자 강감찬은 20만 8천 명을 거느리고 영주(寧州)로 진출하여 적을 막아내도록 하였다. 귀주(龜州, 지금의 평북 구성)에 이르러 강감찬이 기병(騎兵) 만여 명을 선발하여 산골짜기에 매복시키고 또 굵은 밧줄로 쇠가죽을 꿰어 동쪽으로 흐르는 강물을 막아놓은 채 적병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적군이 다다르자 막아놓은 물꼬를 터놓았고 적군은 급류에 휩쓸려 순식간에 큰 혼란에 빠졌다. 강감찬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복병을 풀어 적군을 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것이 '귀주대첩'(龜州大捷)이며 강감찬은 대 전과를 거두니 살아 돌아간 자는 수천 명에 불과하였다.

현종 10년(1019) 정월에 거란군이 철수하여 북쪽으로 달아나면서 개경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계를 삼엄히 하고자 하여 강감찬은 병마판관(兵馬判官) 김종현(金宗鉉)으로 하여금 군사 일만 명을 거느리고 개경에 입성하여 왕궁을 호위하도록 조치했다. 마침내 거란군이 패하여 달아나기 시작하자 강감찬도 공격을 개시했는데 적군의 시체는 들판을 뒤덮고 아군이 획득한 포로와 군마, 낙타, 무기 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거란의 군주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신을 보내 소손녕을 질책하며 말하기를 "네가 적을 가벼이 여기고 적지 깊숙히 들어갔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면목으로 나를 대하려는가. 내 기어 이 너의 낮가죽을 벗겨 죽이고야 말리라"고 하였다.

강감찬이 삼군(三軍)을 거느리고 개선하여 개경에 돌아오니 현종이 영파역(迎波驛, 황해도 금천군 평산 토산의 접경)까지 친히 나가 영접하였다. 현종은 강감찬과 휘하의 군사들의 공로를 위

로하며 큰 잔치를 베풀었고 강감찬에게는 손수 금화(金花) 여덟 가닥을 꽂아주고 오른손으로 황금술잔을 들어 권하고 왼손으로는 그의 손을 잡고 더없는 위로와 찬탄을 표했다. 그리고 친히 시를 읊어 말하기를 “경술년간에 오랑캐가 난리를 일으켜 적병이 한강까지 깊이 들어왔는데 당시 강공이 계책을 쓰지 않았다면 온 나라가 모두 오랑캐가 되었으리”라 하였다.

이때 전공으로 강감찬은 태위(太尉) 문하시랑(門下侍郎) 동내사(同內史) 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 천수현개국남(天水縣開國男)의 관작(官爵)과 식읍(食邑) 삼백호(三百戶), 그리고 추충협모안국공신(推忠協謀安國功臣)이라는 호(號)를 받았다.

관직에서 물러나 성남(城南) 별서(別墅)에 머무르면서 <낙도교거집>(樂道郊居集), <구선집>(求善集) 등을 저술하기도 했던 강감찬은 현종 22년(1031) 향년 84세로 임종을 맞았으며 그에게 인헌공(仁憲公)의 시호가 내리고 현종 묘정에 배향되었다.

강희(姜曦)

강희

강희의 자(字)는 회지(晦之)요 호(號)는 독산(禿山) 또는 칠괴당(七槐堂)이다. 강희는 세종 22년(1439)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조정랑에 이르렀다. 시흥군 동면에 독산이 있는데 선생이 그 아래 터를 잡아 살면서 괴화나무 일곱 그루를 손수 심어 가꾸었다. 이때문에 지명을 따서 호를 지었다고 전한다.

강찬(姜燦)

강찬(1557~1603)

명종 12년(1557)에 출생한 강찬의 자(字)는 덕휘(德輝)이며 호는 동곽공(東郭公)이다. 어려서부터 행동이 범상치 않아 보는 이들이 기이하게 여겼으며 성장함에 따라 학문에 힘써 게을리하지 않고 재주가 매우 민첩하여 문사를 지움에 반드시 시간을 정하여 작성하였는데 매우 뛰어났다. 일찌기 선배를 좇아 병려문(駢儷文)을 배웠는데 그 시구가 사람들을 놀라게 함으로써 칭찬을 더하였다.

선조 16년(1583) 생원, 진사 양시험인 사마시에 급제하였는데 이때 율곡선생이 과거를 관장하여 그를 장원으로 예정하였지만 고시관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같은 해 임금이 성균관 문묘(文廟)의 공자 신위에 참배한 후 실시한 알성문과에서 그는 또다시 급제하여 임금앞에서 경서를 강론하는 경연(經筵)에 입시하게 되었다. 춘추관에 들어가 검열(檢閱)이 된 후 승정원 주서(注書)를 거쳐 선조 21년 사헌부감찰에 제수되더니 모친상 이후 다시 호조좌랑에 제수되었다. 그후 홍문관에 서용되었으나 여러 차례 재상 이산해(李山海)의 시기로 부임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조정에 나들던 유언비에에 연루되어 단천군수로 좌천되기도 했으나 지방관으로서의 직분을 다하고 고을 사람들에게 무예를 단련시킨 결과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맞아 백성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국난을 이겨냈다. 임진왜란 이후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자 직접 밭을 갈고 경작을 하며 백성들과 함께 생활했다. 이러한 선생의 공적이 인정되어 모범적인 목민관으로서 임금께 표리(表裏)한 관복 한 벌을 하사받기도 했다.

이후 황해도 관찰사, 경상좌도 관찰사, 강계부사, 홍주목사, 해주목사등 지방관을 두루 거쳐 첨지중추(僉知中樞), 좌승지, 이조참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자헌(奇自獻)과의 반목으로 배척을 당하여 여주목사로 나갔다가 관직을 버리고 황해도 연안 남루한 민가에 낙향하여 선조 37년(1603) 임종을 맞았다.

강찬은 천성이 맑고 정직하여 중요한 지위를 두루 역임하였으나 몸가짐과 지론이 한결같아 시류에 구차히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리를 좇는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을 자주 받았다. 그러나 언제나 마음을 깨끗이 하는 한편 재주있는 인재들을 사랑하고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였으니 세속을 벗어나 온순하고 부드러운 군자라 일컬어졌다. 그리하여 선조 39년(1605)에 조정에서 선무원종공신의 호를 내리고 아울러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 겸 동지, 경연(經筵),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사 홍문관제학, 세자좌부빈객에 추증하였다.

강석기(姜碩期)

휘(諱)는 석기(碩期)요 자(字)는 부이(復而)이고 호는 월당(月塘),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 금천 강씨는 고려때 벽상공신 강궁진으로부터 시작하여 강궁진의 아들 강감찬은 현종을 섬겨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공로가 있어 관직이 도장상(都將相)에 이르렀으며 고려 태조 이하 여러 왕과 공신들의 위패를 모신 숭의전(崇義殿)에 배향되었다. 그 후로 가문이 크게 번창하고 큰 인물들을 배출하였는데 그 중통을 이어 사간원 강숙돌(姜叔突)과 소격서참봉(昭格署參奉) 강퇴(姜賈)와 삼등현령(三登縣令) 강유경(姜惟慶)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강석기의 고조, 증조, 조부 삼세(三世)이다. 강석기의 부친은 강찬(姜燦)으로 이조참의이며 선조대의 명신이었다.

선조 12년(1580) 3월 9일 태어난 그는 백부 강순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어려서부터 단정하고 중후하며 정신과 식견이 뛰어나서 성인(聖人)의 재능과 도량이 있었다. 약관의 나이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선생을 좇아 성리학과 예학(禮學)의 여러 책을 배우고 열심히 수학하였다.

광해군 4년(1612)에 사마시에 급제하고 곧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에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를 역임하던 중 인목대비의 폐위론(廢位論)이 일자 관직을 버리고 초야로 내려왔다. 인조반정 후 강찬은 박사(博士)를 거쳐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에 오르고 병조좌랑에 제수되는 등 훌륭한 관직을 두루 거쳤다.

인조 5년(1627) 후금(後金)과 강화가 성립되자 강찬은 직언을 서슴치않다가 조정의 미움을 사 양근군수로 보직되기도 했으나 대신들의 노력으로 승정원 동부승지에 발탁되고 같은 해 9월에 소현세자빈 간택의 어명에 따라 그의 딸이 선발되어 12월에 가례(嘉禮)가 이루어졌다. 이 세자빈이 강찬의 둘째딸인 민희빈(愍懷嬪)이었다. 이후 선생은 이조참판을 거쳐 병조참판에 이르고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및 부총관(副摠管)을 겸임하였다. 그리고 얼마후 예조판서로 좌부빈객(左副賓客)에 제수되었으나 인조 12년(1633) 대사헌으로서 인조의 부친인 원종대왕을 종묘에 모셔 제사지낼 것을 논의하다가 인조의 엄한 전지(傳旨)가 내려



강석기 묘



월당집

관직을 삭탈당하고 문외로 쫓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인조 14년(1635)에 방면되었고 이듬해 왕세자가 태어나자 복직되어 예조판서, 이조판서를 역임했다.

후금의 제침을 당한 후에 우의정에까지 승진하였으나 여러 차례 사직을 간절히 청하여 비로소 왕의 윤허를 얻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유임되었다. 관직의 짐을 벗은 후에도 국사(國事)를 깊이 생각하는 우국충정을 보였다. 임종이 가까워짐을 깨달은 그는 유소(遺疏)를 쓰려고 지필(紙筆)을 준비케 했으나 정신이 아득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자 집안 사람들에게 일러 “내일은 내가 마땅히 죽으리라”라고 하더니 이튿날 과연 임종하니 이때가 인종 21년(1643) 6월 13일이었다.

그러나 강찬이 임종한 후 4년 뒤 인조 25년(1646) 민회빈은 모함과 참소에 빠져 폐위되어 본가(本家)로 물러나와 사약을 받았다. 이로 인해 민회빈의 모친 정경부인 신씨(申氏)와 민회빈의 형제 네 명이 함께 죽어 일족이 거의 멸족이 되었다. 그후 숙종 44년(1718)에 빈궁(嬪宮)의 위호(位號)가 회복됨과 아울러 묘소를 봉축하게 되었지만 가문의 크나큰 화가 아닐 수 없었다.

광명시에서의 금천 강씨

광명시의 금천 강씨는 주로 '을파'이다.

금천 강씨가 광명에 정착한 것은 약 600여 년 전이다. 정착경위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것이 별로 없지만 이곳에서 현재 20대를 살아왔다. 광명시 이외에 홍성, 청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 소규모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지만 이곳이 가장 큰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금천 강씨의 분파는 '갑, 을, 병, 정'의 4개로 나뉘는데 '갑파'는 주로 황해도 지역에 살고 있으며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로 '을파'이다. 그 가계(家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2世 강양(姜揚) 판윤공(判尹公)
- |
- 13世 강비웅(姜匪熊) 산음현감(山陰縣監)
- |
- 14世 강희(姜曦) 이조정랑(吏曹正郎)
- |
- 15世 강숙돌(姜叔突) 대사간(大司諫)
- |
- 16世 강뢰(姜賚) 참봉(參奉)
- |
- 17世 강유경(姜惟慶) 삼등현령(三登縣令)
- |
- 18世 강돈(姜焯) 조지서별제부군(造紙署別提府君)
- |
- 19世 강석기(姜碩期) 문정공(文貞公),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
右議政 겸 領經筵事監, 春秋館事, 世子傳
- |
- 20世 강문성(姜文星) 횡성현감(橫城縣監)
- |
- 21世 강후망(姜後望) 승릉참봉(崇陵參奉)
- |
- 22世 강봉서(姜鳳瑞) 선릉참봉(宣陵參奉)
- |
- 23世 강태흥(姜泰興)
- |
- 24世 강명달(姜命達) 오위장(五衛長)
- |
- 25世 강유일(姜有一) 영희전(永禧殿) 참봉(參奉)
- |
- 26世 강인호(姜仁浩) 감역공(監役公)
- |
- 27世 강윤형(姜潤亨)

28世	강치용(姜致龍)
29世	강교석(姜教錫) 단성군수(丹城郡守)
30世	강해덕(姜海億) 영회원(永懷園) 참봉(參奉)
31世	강좌근(姜佐根) 영회원(永懷園) 참봉(參奉)
32世	강언범(姜然範)
33世	강창균(姜昌均)

현재 금천 강씨의 사당은 없으나 11대조 할머니 소현세자빈의 묘소인 영회원이 있다. 강감찬 19대 손녀이자 우의정 강석기와 고령 신씨 사이에서 5남 3녀 중 둘째딸로 태어난 민회빈은 인조의 맏아들인 소현세자의 빈이다. 소현세자는 인조 3년(1625) 세자로 책봉됨과 아울러 민회빈과 가례(家禮)를 올렸으며 인조 5년(1627) 정묘호란에 이은 병자호란을 당하여 두 명의 아우와 남이웅(南以雄)을 비롯한 300여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청나라 심양에 볼모로 잡혀갔다. 인조 14년(1636) 민회빈은 원손(元孫)인 석철(石鐵)을 낳았고, 이어서 둘째 석린(石麟)과 3명의 딸을 낳았다.

그후 8년 뒤 귀국했으나 소현세자는 두달여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민회빈은 소현세자의 사후에도 지성으로 인조를 받들었다. 하지만 소현세자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북벌과 김자점의 모함때문에 역적으로 몰려서 인조 24년(1646) 사약을 받았고 이로인해 세자빈은 물론 일족이 큰 화를 당했으나 숙종 44년(1718) 무술년에 무고함이 밝혀져 다시 복위되었다.

그런데 소현세자의 죽음에 관련된 한 일화가 전한다. 청나라가 증원 지방을 장악하여 명나라가 멸망함에 따라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와 두 왕세자는 드디어 한국의 허락을 받았다. 이때 청나라 황제는 이들을 불러놓고 각자 한가지씩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고 말했다. 이에 소현세자는 중국에서 유명한 버루를

달라고 하여 그것을 얻었으나 두왕자는 자신들과 함께 잡혀온 조선 사람들을 석방해 달라고 청했다. 두왕자의 소원에 청나라 황제는 난색을 표시했으나 자신이 스스로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했던 터라 두왕자의 청을 들어주고 말았다.

이런 내용을 전해들은 인조는 두왕자를 크게 칭찬했지만 만아 들인 소현세자에게는 노기띤 목소리로 “세자는 짐과 나라의 위신을 상하게 하는 큰 죄를 지었다”라며 청나라에서 받아들인 벼루를 세자에게 집어 던졌다. 인조가 던진 벼루를 머리에 맞은 소현세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앓다고 죽었다고 한다.

한편 34세의 젊은 나이로 급사한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해 <인조실록>(仁祖實錄)은 “세자의 시신(屍身)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으며 칠혈(七穴)에서 피가 흘러 독약에 중독된 사람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세자의 죽음에는 소현세자와 대북파의 갈등, 그리고 민회빈과 인조의 총비(寵妃) 조소용(趙昭容)의 반목이 크게 작용하였다. 소현세자는 중국에 볼모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서구 사람인 아담 샬(Adam Schall, 湯若望)과 교류하며 새로운 서학(西學)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서구 과학문명에 대한 여러 지식을 배웠으며, 귀국할 때도 <천문역산서>(天文歷算書)와 과학, 천주교에 관한 번역서적, 여지구(輿地球), 천주상(天主像) 등을 들여오기도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조선 중흥의 방법을 모색했다. 더구나 임진, 병자 양란을 거치면서도 사그러들지 않는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를 과감히 혁파하고자 했다.

이러한 점은 왕권을 견제하려는 권신들과 마찰을 빚었고 결국 대북파와의 갈등을 수반할 수 밖에 없었다. 일화에서 전하는 것처럼 소현세자가 받아들인 벼루는 한계점을 드러내는 기존의 세계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학문적 사상의 유입으로 중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조는 소현세자의 귀국과 함께 세자에게 임금의 자리를 양도하라는 압력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더구나 세자가 돌아오면서 비단, 황금 등 많은 선물을 받아오면서 친청(親淸)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에서 반감과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결국 인조의 두려움을 부추킨 권신들의 반대로 소현세자의 뜻은 실현되지 못

<인조실록>

했고 비운의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전부터 인조의 총애를 받던 조소용과 민회빈은 반목하게 되었고 소현세자가 죽음을 당한 이후에도 세자빈 민회빈은 정성을 다해 인조를 받들어 인조 또한 민회빈을 몹시 아꼈다. 그러나 조소용은 대신들을 부추켜 후환을 두려워한 북벌파와 함께 민회빈이 그를 저주·시해하려 했다고 무고하여 후원에 감금시켰다가 끝내는 사약을 받게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회빈의 죽음과 동시에 서인(庶人)으로 격하시켰고 소현세자의 세 아들을 제주도로 귀양보냈으며 민회빈의 가문은 역적으로 몰려 삼족(三族)이 죽음을 당하는 큰 화를 입게 되었다.

이런 가화(家禍)는 강석기가 죽은지 4년 후에 벌어졌고 이듬해 모든 관작을 삭탈당했지만 숙종 43년(1717)에 김창집(金昌集)의 진달(陳達)과 강석기의 증손인 강봉서가 임금의 행차시에 복을 쳐서 원통한 일을 호소하여 하문을 기다리는 격고명원(擊鼓鳴冤)으로 인하여 그 이듬해 4월 12일 관작이 회복되었으며 숙종임금도 예관(禮官)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

그후 영조는 경기감영에 명하여 영회원 주변에 사는 자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묘소를 잘 관리하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묘소의 관리에 태만하고 소홀함이 없이하라고 지시했다.

처음 영회원에는 제실과 여러 석물들이 있었으나 소현세자빈을 이장한다고 하여 여러 석물들도 함께 옮겨가고 제실도 헐어버려서 지금은 묘소와 약간의 석물만 남아있을 뿐이다. 또한 영회원 옆에는 세자빈의 부친인 강석기의 묘소도 안치되어 있다.

인조대의 사건으로 가문이 거의 멸족을 당했으나 혈족의 마지막 한 사람, 강석기의 증손(曾孫)인 강봉서(姜鳳瑞)만이 노비의 등에 얹혀 피난을 갔다가 다시 이곳에 이르렀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금천 강씨는 강봉서의 소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조대의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금천 강씨 사람들이 다른 성씨로 숨어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다른 강씨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계속 금천 강씨임을 주장하고 본관을 바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그들의 자료를 확인하여 금천 강씨로 받아주고 있다.



강봉서의 묘

강석기의 유작집인 <월당집>(月塘集)이 전 5권으로 현재에 8까
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가화를 맞은 후 뿔뿔이 흩어졌던 그의
유고(遺稿)를 증손 강봉서와 외손 박사수(朴師洙)가 수집(蒐集)하
여 책을 만들고 비문(碑文), 행장(行狀), 만사와 제문 등을 붙여 5
권을 만들었으나 시편(詩篇)이 아주 적었다. 이에 시장(詩章) 40
여 수를 월당선생의 사위 정태제(鄭泰齊) 후손 정혁룡(鄭赫龍)의
집에서 찾아내어 첨가하였다. 그리하여 강석기의 5대손인 강명
달(姜命達)이 음성고를 수령으로 있을 때 간행하였다.

이외에도 영회원에 관한 내력을 적은 <영회원집>(永懷園集)
과 1924년에 간행된 강효석(姜黻錫)의 <전고대방>(典故大方)이
전하고 있다. 특히 <전고대방>은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는 각종의 참고자료를 모아 편찬한 것으로 4권 1책으로 되
어있는데 권두에는 윤희구(尹喜求)의 서(序)가 있고 권말(卷末)
에는 편자 강효석과 고응한(高應漢)의 발(跋)이 있다. 권1은 역
대편(歷代篇), 전궁원묘(殿宮園墓), 만성시조편(萬姓始祖篇)으로
구성되어 있고 권2는 상신(相臣), 문형(文衡), 호당(湖堂), 청백리
(淸白吏), 공신(功臣), 명장(名將), 등단(登壇), 문무제권록(文武制
門/困 錄)으로, 권3은 경연관초선록(經筵官抄選錄), 유현연원도
(儒賢淵源圖), 문인도(門人圖), 문장가(文章家), 서화가(書畫家)
등으로, 권4는 종묘배향록(宗廟配享錄), 문묘배향록(文廟配享錄),
서원향사록(書院享祀錄), 두문동칠십이인(杜門洞七十二人), 사색
당파원인약설(四色黨派原因略說), 북관칠의사(北關七義士), 십이
사화록(十二士禍錄), 임진란순절제인(壬辰亂殉節諸人), 기의승병
장(起義僧兵將), 의기(義妓), 의병장(義兵將), 순절신(殉節臣), 척
화신(斥和臣), 강도순절부녀(江都殉節婦女), 배종팔장사(陪從八壯
士), 임오우해인(壬午遇害人), 갑신피화육대신(甲申被禍六大臣),
동원록(東援錄), 통신사(通信使), 외국인내공(外國人來貢), 외국인
내사(外國人來仕), 명인귀화(明人歸化)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고대방>은 신라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건별로 그
사건에 대한 인물을 들고 소전(小傳)을 붙였으며 요점을 들어
알기쉽게 편찬한 것이 그 특징이다.

또한 강해승(姜海昇)은 노은사리에서 태어났다. 1950년부터 2

<전고대방>



전고대방

매년 음력 10월에
시제를 지냄

년동안 수원시장을 지낸 뒤 은퇴하였다. 그의 묘는 광명시 학운동에 있다.

금천 강씨의 종친회는 매년 음력 10월(첫째주 일요일)에 광명에서 거행되는데 주로 율파 소생들이 모여 시제를 지낸다.

금천 강씨의 설화 및 전설

강감찬의 '귀주대첩'

귀주대첩의 명장인 강감찬의 탄생과 관련되어 기이한 이야기가 <동국통감>(東國通鑑)에 전한다. 임금의 명을 받은 신하가 하루는 시흥군에 당도하였는데 그때 큰 별 하나가 민가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신하는 사람을 보내어 그 집에 가보도록 했고 그 집을 살피고 온 사람은 마침 그 집의 며느리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전했다. 신하는 마음속으로 이를 이상히 여겨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웠는데 그 아이가 강감찬이었다. 후에 송나라 사신이 강감찬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절을 하며 이르기를 "문곡성(文曲星, 아홉개의 신이한 별 중에서 네째 별로 문명(文明)을 관장하는 별)을 보지 못한 지가 오래더니 이제 이곳에 있도다"라고 하였다.

또한 <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강감찬이 한양부판관(漢陽副判官)을 역임하던 중의 한 일화가 전한다. 당시 한양에 호랑이로 인한 피해가 많았는데 가끔 대낮에도 길가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쳤다. 이로 인해 유수(留守)가 걱정하고 있을 때 강감찬이 말하기를 "이는 매우 쉬운 일이니 제가 빨리 쫓아버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유수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묻자 강감찬은 손수 편지 한 장을 써서 군졸에게 주며 말하기를 "북문 밖으로 나가 몇번째 산골에 당도하면 마침 스님 두 사람이 있을 것이니 이 편지를 주어라"라고 했다. 군졸이 강감찬의 말을 좇아 가

보니 과연 스님 두 사람이 있기에 편지를 전하자 그 스님이 편지를 받아 보고 군졸을 따라 관아까지 왔다. 그때 강감찬이 스님에게 엄하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찌 그 살 곳을 버리고 와서 사람을 해침이 이같이 심한가? 속히 무리를 거느리고 멀리 떠나가거라. 조금이라도 더디면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자 두 스님이 머리를 조아리며 “명령과 같이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를 보고 유수가 웃으며 말하기를 “판관은 망령이 들었소. 중을 일러 호랑이라 하오?”라고 말했다. 이에 강감찬은 스님을 가르키면서 “잠시 너희들의 본모습을 보여라!”라고 말하자 스님이 가사(袈裟)를 벗고 큰 호랑이로 변하여 뛰면서 섬돌 위로 올라와 난간을 잡고 우뢰와 같이 크게 울부짖었다. 이에 군졸들이 겁을 먹고 달아나고 유수는 너무 놀라서 기절해 버렸다. 강감찬이 호랑이에게 “빨리 가거라!”라고 말하니 두 호랑이가 뛰어나가 곧 사라져 버렸고 이후부터 호환(虎患)이 없어졌다고 한다.

독산공 강희는 그의 호인 독산(秃山)에 관한 일화가 전한다. 어느날 한 사람이 선생의 호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다. 선생은 “내가 터를 잡아 사는 곳이 한 산봉우리만 헐벗어 나무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름을 독산이라 하였대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답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 산이 헐벗음은 사람들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내고 소와 양을 방목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선생은 이를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사람의 성품이 또한 이 산의 나무와 같으니 사람의 그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기르지 않는다면 욕심이 생겨나서 토끼와 소, 양과 같이 된다. 즉 사물과 자신의 마음을 달리 세운다면 사사로운 욕심이 가득할 것이고 사람의 천성이 혼미해져 헐벗은 산과 같아질 것이다. 사람이 이러한 경우에 처한다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

산은 본래 나무가 있는 것인데 헐벗음에 이르고 사람에게 본래 맑고 깨끗한 천성이 있는데 예의와 도리를 모르는 경우에 이르면 어찌 동물과 다르다 할 것인가! 사람으로서 이 본성이 있으면 공경을 마음에 두고있지 않더라도 사물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그가 독산이라는 호를 정

독산공 강희

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경계하고자 함이었다고 하자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로소 그 뜻을 알았다며 감탄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일화는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전하고 있다.

또 강희가 문과에 급제했을 때 한 설화가 전한다. 세종 22년(1439) 문과에 급제했을 때 합격자의 이름을 적은 방목(榜目) 가운데 선생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아래 다음과 같은 주(註)가 적혀 있다.

『선생이 과거 시험장(科場)에 들어가 글을 지어 바치고자 하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선생의 시험종이가 걸쳐 날아가 버렸다. 그후 중국 사신이 선생의 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 사람이 이미 과거에 급제하였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답하여 “그렇다”고 하자 사신은 “이같은 문장(文章)은 중국에서 찾을지라도 쉽게 찾지 못할 것이다. 동국(東國, 우리나라)은 가히 인재(人才)를 잃지 않았구나!』

제보자 김덕근(60)씨

이것은 그의 문장력이 뛰어났음을 전하는 일화라 할 것이다.

능성구씨

능성 구씨의 유래



능성 구씨 시조의 묘

능성(綾城) 구씨(具氏)의 시조 구존유(具存裕)는 고려조 문과에 장원 급제하여 벽상삼한(壁上三韓) 삼중대광(三重大匡) 검교상장군(檢校上將軍)에 이르렀고 시조비(始祖妃)는 송나라 한림학사(翰林學士) 신안(新安) 주씨(朱氏) 주잠(朱潛)의 딸이요 회암부자(晦庵夫子) 주희(朱熹)의 고손(高孫)이다.

그러나 능성 구씨의 시조와 득성(得姓) 연대는 명확한 문헌으로 고증하기 어렵고 시조의 묘소마저 불행히도 실전(失傳)되었다. 하지만 <동사보유>(東史補遺)와 <주청계공실기>(朱淸溪公實記)에 의하면 우리나라 구씨는 고려 고종 11년(1224)에 송나라 한림학사였던 신안 주씨의 시조 청계(淸溪) 주잠이 몽고의 추격을 피해 엽산제(葉山濟), 주세안(周世顔), 진조순(陳祖舜), 유응규(劉應奎), 계행수(桂行壽), 조창(趙昶), 도성하(陶成河) 등 7학사들과 함께 고려의 금성현(錦城縣)에 머물다가 원나라의 추격이 계속되자 주잠은 적덕(積德)이라 개명하고 능성에서 거주했다.

이때 주잠은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는데 그 딸이, 함께 고려에 귀화하여 고려조에서 벼슬이 벽상공신 삼중대광 검교상장군에 이르렀던 구존유(具存裕)에게 출가(出嫁)하였다. 이것으로 능성 구씨의 시조 연대(始祖年代)는 고려 고종 11년(1224)이라 추정할 수 있으며 능성에서 주씨부인과 함께 살았던 연고지의 이름에 따라서 능성 구씨라는 관성(貫姓)을 받았다고 한다.

고려 후반기에 문호(門戶)를 연 능성 구씨는 조선 영조 대에 이르기까지 무관으로서 등극하면서 권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시조 구존유의 7세손때부터 가세가 크게 번창하였다. 가문이 번창함과 아울러 능성 구씨는 새로운 분파가 형성되었다. 그 분파는 사재감 판사(司宰監判事) 구현좌(具賢佐), 공조 전서(工曹典書) 구현노(具賢老), 시랑중(侍郎中) 구영양(具英良), 좌정승(左政丞) 구홍(具鴻), 판안동(判安東) 구성양(具成亮), 도원수(都元帥) 구성노(具成老), 재신(宰臣) 구성덕(具成德), 낭장(郎將) 구현보(具賢輔), 감무(監務) 구현기(具賢器), 임천군사(林川郡事) 구충



능성 구씨 시조단비

노(具忠老), 참판(參判) 구성미(具成美), 문천군사(文川郡事) 구원립(具爰立) 등 12과가 그 관직명을 따서 파명(派名)을 정했다. 12과 중 전서과와 임천군사과는 그 후손이 계속되지 않았으나 10과는 더욱 번창하여 훈업(勳業)과 문장(文章), 충효(忠孝), 덕행(德行)이 뛰어난 유수한 가문이 되었다.

능성 구씨에서 배출한 왕비가 1, 부마가 3, 부위(副尉)가 1, 정승(政丞)이 2, 보국정경(輔國正卿)이 10여 명, 등단대장(登壇大將)이 10여 명, 문과급제자가 60여 명, 무과급제자가 230여 명, 음직(蔭職)이 440여 명, 생원, 진사가 150여 명이고 오늘날 공훈자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다.

능성 구씨의 대표적 인물들

능성 구씨 가문에서 빛나는 공훈을 남긴 인물들을 각 분파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관사파>

구인문(具人文) 자(字)는 장숙(章叔)이고 호(號)는 수옹(睡翁), 시호(諡號)는 충장(忠莊)이다. 파조(派祖) 구현좌의 아들로 세종 23년(1441)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교리(校理)로 문종의 총애를 받았으나 세조가 즉위하자 사육신의 화를 직언하다가 보성군수에서 해임당했고 이후 세상을 비판하여 눈뜬 소경으로 자처하며 고향 봉생(鳳生)으로 낙향하여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이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그 마을 이름을 두문동(杜門洞)이라 했다. 그후 정조 15년(1791)에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구의강(具義剛) 자는 자화(子和), 호는 해문(海門)이다. 선조(宣祖) 29년(1596)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지평(持平)이 된 뒤 정언(正言), 수찬(修撰)을 거쳐 전적(典積), 교리(校理),



능성 구씨 자료집

강원도 암행어사, 이조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사간, 승지 등을 지냈고 선조 41년(1608) 호조참판이 되었으며 이듬해 주청 부사(奏請副使)로 명나라에 갔다가 1년 후 귀국하여 대사간, 대사성을 지냈다.

<전서파>

구현로(具賢老) 조선조에 공조전서를 지냈다.

<시랑중파>

구환(具桓) 자는 성천(成天), 호는 죽은(竹隱)이다. 고려말에 문과에 급제하여 병부시랑을 지냈으며 도량이 넓고 정직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조선 태조 원년(1392)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자 이태조가 누차 벼슬을 주어 불렀으나 불응하고 능주로 돌아가 절의를 지켰다.

구두남(具斗南) 자는 일지(一之), 호는 오봉(鰲峰)이다. 중종 23년(1528)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효행이 뛰어나 공릉참봉(恭陵參奉)에 특제되어 경릉참봉(敬陵參奉)을 거쳐 명종 4년(1549) 광흥창 봉사(廣興倉 奉事)가 되었다.

구희(具憲) 자는 신숙(愼叔), 호는 청계(淸溪)이다. 충효를 겸비한 학자로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의병을 일으켜 고경명(高敬命) 휘하의 종사관(從事官)으로 금산전투에서 전공(戰功)을 세우고 진주성 수호에 참가, 끝까지 왜적과 격전을 벌이다 순절하였다.

<좌정승파>

구봉령(具鳳齡) 자는 경서(景瑞), 호는 백담(栢潭), 시호는 문단(文端)이다.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특히 시문(詩文)이 뛰어나서 명종 15년(1560)에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으로 등용된 후 문신정시(文臣庭試)에 장원급제하여 수찬(修撰)에 임명되고 병조좌랑, 이조참판, 대사헌에 이르렀다. 당쟁이 시작되던 당시 중립을 지키기에 힘썼으며 당대의 양한문장(兩漢文章)이라 일컬어졌다. 저서에 <백담집>(栢潭集)이 있다.

구찬록(具贊祿) 호는 송안(松顔)이다.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역

임하였으며 면로강 위에서 송안정(松顔亭)을 짓고 공부했으며 퇴계와의 문답서(問答書)가 전하고 있다.

<판안동파>

구문신(具文信) 자는 가립(可立), 호는 포암(浦菴), 시호는 양평(襄平)이다. 세종 19년(1437) 음보(蔭補)로 내금위(內禁衛)에 들어갔고 변공(邊功)을 세워 중추원사가 되었다. 이후 경상우도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로서 부총관을 겸임하였다. 성종 2년(1471)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으로 능원군(綾原君)에 봉해졌으며 이후 도총관직(都總管職)을 겸직했다.

구수담(具壽聃) 자는 천로(天老), 호는 펴제이다. 조광조(趙光祖) 문인으로 중종 14년(1519) 생원이 되고 문과에 급제하여 박사(博士)를 거쳐 검토관이 되어 기묘사화(己卯士禍)때 화를 입은 유림(儒林)의 서용을 청했다가 파직되어 용천(龍川)에 유배되었다. 이후 소환되어 대사성, 대사헌에 이르렀으나 앞서 유림을 변호했다 하여 양사(兩司)의 탄핵을 받고 투옥되어 숨졌다. 선조 즉위년에 신원(伸寃)되어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도원수파>

구치관 자는 이율(李栗),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세종 11년(1466) 문과에 급제하였고 이후 평안도 절제사,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여진족의 침입을 물리쳤고 예종이 즉위하자 원상(院相)으로서 호조판서를 겸임하고 성종이 즉위하자 이조판서를 겸임했다. 사후 좌리공신 일등(佐理功臣一等)이 수여되었다. 재직시 산업을 장려했고 성품이 정직, 청렴하여 청백리의 모범으로 상징되었다.

구치관은 재직시 산업을 장려했고 성품이 정직, 청렴하여 청백리의 모범으로 상징되었다.

구인후 자는 중재(仲載), 호는 유포(柳浦),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김장생의 문인(門人)으로 선조 36년(1603) 무과에 급제하여 광해군(光海君)대에 선전관(宣傳官)에까지 이르렀다. 신경진, 김유 등과 인조반정을 일으켜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으로 능천군(綾川君)에 봉해졌다. 인조 5년(1627) 주사대장(舟師大將)으로 후금의 침입을 막아 내었고 인조 22년(1644) 심기원의 모반음모를

적발하여 영국공신(寧國功臣) 1등이 되고 능천부원군으로 책봉되었다. 이후 병조판서, 공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을 역임하였으며 효종 5년(1654)에 사은사(謝恩使)로 임명되어 청나라에 다녀와서 민회빈(愍懷嬪) 강씨의 신원을 상소하다가 화를 입은 김홍욱을 적극 옹호하여 관작을 삭탈당했으나 곧 복관되어 좌의정을 역임하였다.

구완식(具完植) 자는 미산(溪山), 시호는 무숙(武肅)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수원 유수(留守), 병조참판을 역임하고 충청병사로 재임중 대원군에 의하여 충주에 피신중이던 민중전(閔中殿)이 환어(還御)할 때 호위장(護衛將)으로 봉영했다. 뒤에 어영대장 겸 금위대장 등을 역임했다.

<낭장파>

구황(具滉) 자는 토호(土浩), 호는 검산(劍山)이다. 어려서 효성이 지극하였고 선조 21년(1588) 28세에 무과에 등과하여 도총부도사(都摠府都事), 훈련원첨정(訓練院僉正)을 역임하던 중 임진왜란을 맞아 단천(端川) 쌍포지(雙浦地)에서 정문부(鄭文學)와 함께 왜장(倭將) 가등정정의 대군을 격파하여 전공을 세웠다. 임진왜란 후 함경도 지방을 침범한 오랑캐를 맞아 격전중에 전사하였다. 선조가 통정대부 병조참의(通政大夫兵曹參議)를 제수하였고 선조 40년(1607) 병조참관 겸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使) 선무원종(宣武原從) 1등공신으로 추서되었다. 충남 서천군 비인면 검산사(劍山祠)에 배향되었다.

<문천군사파>

구영 자는 영연(瑩然), 호는 죽유이다. 김장생의 문인으로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을 역임하고 광해군조에 폐모후통문(廢母后通文)을 불사르고 만주의 야인이 침입했을 때 공을 세워 거의원종공신(義原從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구치용(具致用) 자는 기지(器之), 호는 우교당(于郊堂)이다. 29세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인조 23년(1645)에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우교당에 은거하였다. 도학(道學)과 경술(經術)

에 뛰어나 일생을 저술활동에 전념하였다. 편저에 <주자대전어류통편>(朱子大全語類通編), <심학제서주해>(心學諸書註解) 등이 있다.

<감무과>

구암(具巖) 조선조에서 현감을 역임하였다.

<임천군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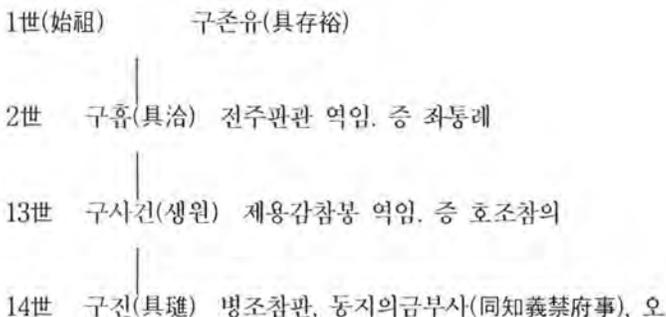
구충로(具忠老) 조선조에 지임천군사(知林川郡事)를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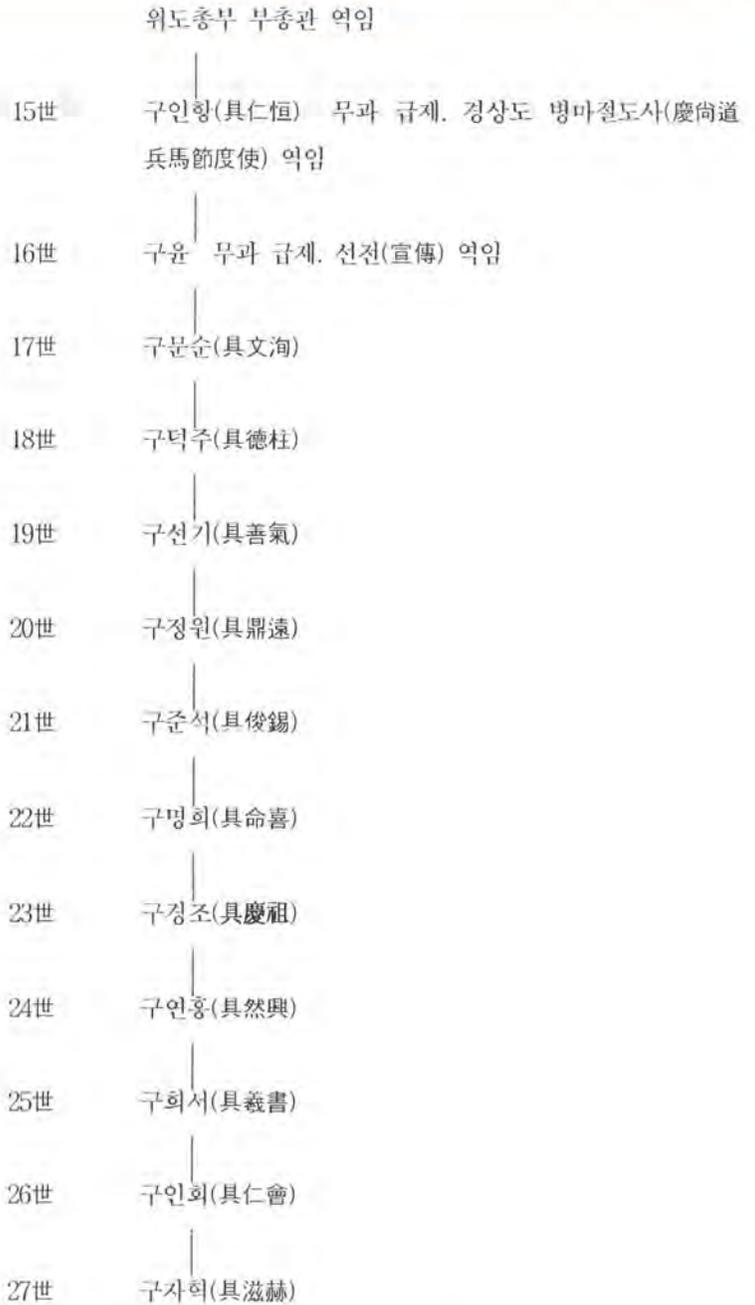
<참판과>

구성미(具成美) 조선조에 전라 수군절제사(水軍節制使)호조참판을 역임하였다.

광명시에서의 능성 구씨

조선 중, 후기 찬란한 문벌을 자랑했던 능성 구씨가 광명에 정착하게 된 경위와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능성 구씨 대동보를 살펴보면 경기도 양주에서 당시의 시흥군 서면(西面)이었던 철산동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 가계(家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광주와 양주, 광명시에 터를 잡고 있는 능성 구씨는 대체로 도원수공파의 후손들이며 광명시에서는 현재 15대의 세계(世系)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 철산동 사성부락 선산

에 모시던 13대조부터의 묘소는 1970년도 이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설정되면서 충청남도 조치원 지역으로 새롭게 선산을 마련하여 모두 안장하였다. 또한 철산 1동 49번지에 자리하던 구씨 집성촌은 개발지역의 설정과 함께 모두 사라지고 자연부락 중심부 역시 소실되었지만 현재까지도 26세손 구인회는 이곳에 거주하면서 지난 능성 구씨의 옛 터를 지키고 있다.

능성 구씨의 집성촌인 사성부락에는 문중에서 운영하던 서당이 있었는데 일제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서당을 유지하여 당시 제자가 20여 명쯤 되었다고 한다. 서당의 큰방 한 칸을 가득 채울 만큼의 많은 장서(藏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6·25 동란과 1·4후퇴때의 전화(戰禍)로 모두 소실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26세손 구인회는 현재 광명시 농협조합장을 역임하고 있고 구정회는 초대(初代) 도의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능성 구씨가 사당에서 모시고 있는 선조는 도원수공파 7대조 할아버지인 구성노(具成老)이며 경기도 광주에 그 사당이 있다.

철산1동 49번지에 자리하던 구씨 집성촌에는 현재까지도 26세손 구인회가 거주한다.

능성 구씨의 설화 및 전설

관안동파 11세조(世祖) 구수복(具壽福)은 기묘사화(己卯土禍)때 이조좌랑에서 파직되자 갈 곳이 없었다. 이에 그의 장인이 이를 딱하게 여겨 보은(報恩)에 있는 자기 농장에 가서 살도록 했으나 얼마후 농장의 종이 구수복을 싫어하여 장인에게 증상하며 "구좌랑이 농막을 차지한 뒤로 종들을 혹사하여 장차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장인은 자세히 알아 보지도 않고 분노하여 구수복을 쫓아 내었다. 수척한 말과 허약한 종 하나를 데리고 길에 나온 구수복은 또다시 갈 곳이 없었고 그때가 겨울철이어서 행색이 참으로 비참했다. 때마침 한 준수한 남자가 사냥하러 갔다

구수복의 설화
《연려실기술》 <기묘당적>

가 사냥개와 매, 그리고 수많은 종을 이끌고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한참동안을 길에서 방황하던 구수복과 그 남자는 잠깐씩 두번이나 서로 마주쳤다. 준수한 용모의 남자는 구수복에게 “당신은 누구이기에 길에서 홀로 머뭇거리고 있소?”라고 물었다.

구수복이 대략 그 까닭을 이야기하자 그 남자는 구수복과 눈 위에 털요를 깔고 서로 마주앉아 얘기를 나누면서 썰을 곱고 술을 부어 권해 마셨다. 자리가 파하자 두사람은 친숙한 사이같이 되어 그 남자의 집으로 갔다.

제보자 구정희(전 도의원)

그 남자는 찰방(察訪)을 지내다가 파직되어 보은에 내려온 김태암(金泰岩)이었다. 김태암은 구수복에게 집과 밭을 내주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구수복은 부인과 아들 3형제를 데리고 편히 살면서 단장과 짚신으로 각 명산승지를 두루 돌면서 마음껏 경치를 감상했는데 그는 특히 속리산의 경치가 가장 좋았다고 평했으며 또한 학풍을 일으켜 후진을 많이 배출했다는 이야기가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기묘당적>(己卯黨籍)에 전한다.

광산김씨

광산 김씨의 유래

시조 김흥광(金興光)

광산(光山) 김씨(金氏)의 시조(始祖)는 김흥광(金興光)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경주김씨 세보>(慶州金氏世譜)에는 김흥광이 신라 45대 신무왕의 세째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동국만성보>(東國萬姓譜) 및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광산김씨 세보>(光山金氏世譜)에 의하면 김흥광은 49대 헌강왕의 세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동국사기>(東國史記)와 최치원(崔致遠)의 <납정절표>(納旌節表)에 의하면 헌강왕은 아들이 하나인데 그가 곧 효공왕이니 김흥광이 헌강왕의 아들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또 <신라사기>(新羅史記)에 의하면 신무왕이 처음 김명(金明)의 난을 피해 청해진(淸海鎭, 지금의 완도)으로 가서 궁복(弓福)을 움직여 대군을 이끌고 서울로 쳐들어가 민애왕(閔哀王, 金明)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왕자가 미리 난리가 있을 줄 알고 피해 숨은 것이 이때가 아닌가?”라고만 했을 뿐 어느 왕자인지는 밝히지 못한다고 했다. 결국 그 선계(先系)가 실전되어 정확하게 상고(詳考)할 수 없기때문에 다만 김흥광이 신라의 왕자였음은 틀림없다고 본다.

김흥광은 신라의 정세가 어지러워지자 장차 국난이 일어날 것을 미리 깨닫고 경주를 떠나 광주(光州) 서일동(현 담양군 평장동)으로 이주하여 자연과 더불어 학문을 닦으며 살았으며 이후 후손이 번성하여 고려시대에는 정2품직인 평장사(平章事)를 많이 배출하여 마을 이름을 평장동이라 불렀다고 한다. 한동안 시조의 유허지가 실전되었으나 1741년 후손 김만기(金萬基)가 찾아 그 자리에 유허비를 세우고 다시 1786년 시조단(始祖壇)을 모아 매년 10월 1일 향사하고 있다.

김태현

명문거족(名門巨族)으로 발전한 광산 김씨는 후대에 와서 김태현(金台鉉)을 파조(派祖)로 하는 문정공파(文正公派), 김규(金珪)를 파조로 하는 낭장공파(郎將公波), 김련(金璉)을 파조로 하는 낭간공파(良簡公派), 김영(金英)을 파조로 하는 사온직장공파로 분파되어 계대(系代)를 이어왔다.

광산 김씨의 관향(貫鄕)인 광산은 전라남도 북서부에 위치한 지명으로 이전에는 백제의 무진주(武珍州)였다가 신라가 백제를 병합한 후 도독(都督)을 두었으며 경덕왕 16년(757) 무주로 개칭하였다. 진성여왕 때에는 견훤(甄萱)이 후백제를 세우고 이곳에 도읍을 정하기도 했으나 고려 태조 19년(918) 태조가 신검(神劍)을 토벌하고 군현을 정비할 때 최초로 광주라고 정했다. 고려 성종조에는 해양현(海陽縣)으로 개칭했으며 고종 46년(1259) 다시 기주(冀州)로 고쳐 부르다가 충선왕조에 이르러 화평부(化平府)로 강등되었으나 공민왕조에 광주목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성종조에 현(縣)으로 강등되어 광산이라 칭하다가 연산군조에 다시 주(州)로 승격되었고 고종 32년(1895) 전국을 23부로 나눌 때 나주부 소속의 광주군이 되었다. 이후 1935년 광주읍이 승격되면서 광산군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광산 김씨의 대표적인 인물들

고려초기부터 명문(名門)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한 광산 김씨는 시조 이래 그 후손들이 8명의 평장사를 배출하여 일약 명가(名家)로서의 기초를 닦았는데 11세손 김위(金位)와 김주영(金珠永) 형제대에서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그들의 아들인 김광세(金光世)와 김광존(金光存)은 가문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다.

김광세와 김광존

광세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먼저 그의 아들 김경량(金鏡亮)이 대장군에 올랐고 손자 김수(金須)는 삼별초의 난 때 장렬히 순절하였으며 김주정(金周鼎)은 충렬왕조에 동지밀직사사를 역임하였다. 공민왕조에 김광재(金光載)는 모친이 죽자 무덤가에 여막을 짓고 거상(居喪)하니 왕이 이를 듣고 그 효성을 가상히 여겨 그가 사는 곳에 '영창방효자리'(靈昌坊孝子里)라는 정표를 세우게 했다.

김주정

김성원의 <동국여지승람>

김성원(金性源)은 세조조에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편찬했고 중종조에 조광조(趙光祖)의 혁신정치에 동조한 소장파였던 손자 김구(金絿)는 김정(金靜), 김식(金湜), 한충(韓忠) 등과 더불어 기묘명현(己卯名賢)으로 일컬어졌으며 뛰어난 필법과 명문장으로 외교문서를 집필했는데 그는 자신이 살던 마을인 인수방(仁壽坊)에서 이름을 딴 '인수체'란 필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런데 김구는 중국 사람들이 자신의 글씨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듣고는 이후로 글씨를 쓰지 않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한다. 김극성(金克成)은 중종조에 영의정을 역임하는 등 30여년 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경륜과 계획이 탁월하여 조정내에 그 명성이 높았다.

김진

광종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의 현손인 김진은 대제학에 올랐고 고려말 문과에 급제한 김진의 증손 김약채(金若采)는 대사헌을 거쳐 충청도 도관찰사를 역임했으며 그의 아우 김약항(金若恒)은 공민왕조에 대사성으로 명나라에 갔다가 표문(表文)이 공손치 못하다고 하여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유배된 후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김약채의 증손 김국광(金國光)

김국광

은 성종조에 좌의정에 오르고 좌리1등공신(佐理一等功臣)으로 광산부원군에 올랐는데 일찌기 익성공(翼成公) 황희(黃喜)는 그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손녀사위를 삼았으며 언제나 그를 대할 때면 반드시 갓을 썼다고 한다. 김국광의 아우 김겸광(金謙光)도 성종조 이시에(李施愛)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좌리3등공신으로 광성군에 봉해졌으며 그의 아들 김극뉴와 김극복(金克福)은 대사간과 찬성(贊成)을 각각 역임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 김극필은 연산군조에 어지러운 정국에 대해 바른 말을 하다가 갑자사화(甲子士禍)에 연루되어 고산현으로 유배되었고 이후에도 권신 김안로(金安老)의 탄핵을 받아 일생을 귀양지에서 불우한 생활을 했다.

김계

김극뉴의 손자 김계(金鑑)는 명종조에 호조판서에 오르고 청백리에 녹선되었으며 증손 김계휘(金繼輝)는 선조조 대사헌을 역임했으나 성리학과 예학에 정통하여 국사가 있을 때마다 자문에 응했다.

또한 조선 예학의 종주(宗主)로서 가문의 명성을 더한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은 명종 3년(1548) 대사헌 김계휘의 아들로 태어났다. 김장생은 당대 8문장가로 이름난 송익필(宋翼弼)에게 예학을 배우고 석학 이율곡(李栗谷)에게 성리학을 전수받아 영남학과와 맞서는 기호학파의 영수(領袖)가 되었다. 그는 천성이 겸손하며 어질고 후하여 자연히 도에 가깝고 학문하는 방법은 한결같이 종자(種子)와 주자(朱子)를 법으로 삼아 세상살이의 화려함을 싫어하였으며, 당시의 예(禮)에 관한 질문은 모두 그에게로 왔다. 벼슬은 가의대부(嘉義大夫)로 형조참판에 그쳤으나 <경서변의>(經書辨疑) 8권, <의례문해>(疑禮問解) 8권,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 1권, <가례집람>(家禮集覽) 3권, <상례비요>(喪禮備要) 1권 등 총 21권의 저서를 남겨 한국 예전(禮典)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장생의 예학은 그의 아들 김집(金集)에게 이어지고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에게 전승되어 조선 예학의 태두(泰斗)로 예학파의 주류를 형성했다. 그의 아들 김집은 어려서 총명하여 충신효제(忠信孝悌)로서 몸을 세우는 근본을 삼았으며, 이치를 탐구하고 경(敬)을 주장하여 도학(道學)의 터전을 마련했다.

한편 김집의 아들 김익희(金益熙)는 병자호란때 척화론자로서 화의를 반대했으며 왕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가서 독전어사(督戰御史)로 항전했다. 또한 그의 아우 김익겸(金益兼)은 병자호란때 모친 서씨(徐氏)를 데리고 강화에 들어가 성을 사수하다가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김상용(金尙容)과 함께 남문에 올라가 자폭하여 영의정에 추증되고 광원부원군에 추봉되었다. 김익훈(金益勳)은 숙종조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의 주역이었으나 남인이 정권을 다시 잡자 강제로 유배되었으며 현종조의 예조참판 김익경(金益旻)은 고(故) 인선왕후(仁善王后)에 대한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服喪)문제로 송시열등과 함께 대공설(大功說)을 주장하다가 양성으로 귀향했다.

김익경의 아들로서 인경왕후(仁敬王后, 숙종의 비)의 부친인 김만기(金萬基)와 김만중(金萬重) 형제는 나란히 대제학을 역임한 명신으로 유명했다. 유복자로 태어난 김만중은 홀어머니 윤

김장생의 <예학>



문원공 김장생의 영정



김만중의 영정

김만수 형제

씨에 대한 효성이 뛰어나 모친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했다. 특히 남해의 유배지에서 쓴 <구운몽>(九雲夢)은 부귀공명의 일장춘몽이란 내용으로 그의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 썼다고 한다.

그밖에도 김인경(金仁慶)은 증종의 딸 혜순옹주(惠順翁主)와 혼인하여 광천위(光川尉)에 봉해졌으며 김언기(金彦璣)는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안동지방의 학문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국가에 대한 충절로서 이름이 높은 김덕령(金德齡)은 명종 22년(1567) 광주 석지촌에서 김봉섭(金鵬燮)의 아들로 태어나 성리학의 대가인 성혼(成渾)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장성(長城)현감 이귀(李貴)의 천거로 익호장군(翼虎將軍)의 호를 받고 의병을 이끌어 왜군과 맞싸 싸웠으며 이어 선전관(宣傳官)이 되어 권율(權慄)의 휘하에서 수차례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선조 29년(1596) 이몽학(李夢鶴)이 홍산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를 토벌하려 가던 중 이미 난이 진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회군했으나 당시 충청도 순찰사 종사관 신경행(辛景行)이 이몽학과 내통했다고 무고하여 국문을 받다가 끝내 옥사했다.

한편 김만수(金萬壽), 김천수(金千壽), 김백수(金百壽), 김구수(金九壽) 4형제는 임진왜란때 의병을 일으켜 장단에서 유극량(劉克良)의 군대와 합세하여 임진강 전투에서 전공을 올렸으며 김광운(金光運)과 김두남(金斗南)은 진주성 전투에서 용전하다 장렬하게 순절하여 충절의 가문이란 전통을 이었으며 선조조 김질간(金質幹)은 대북(大北)의 영수로서 활약하였고 <동문훈설>(童蒙訓說)을 저술한 김진우(金震羽)와 호남 8문장의 한 사람인 김공선(金公善) 역시 가문의 영예를 더했다.

영조조 김양택(金陽澤)은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부제학, 대사성, 우의정을 거쳐 영조 52년(1776) 영의정에 올랐으며 김상복(金相福)은 영의정을 역임하고 영종추부사에 전임되었다.

한말에도 광산 김씨의 인맥은 이어져 금위대장(禁衛大將)을 8 역임한 김기석(金箕錫)과 학문과 덕망이 높아 사림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던 김지수(金志洙) 등이 가문을 빛냈다. 또한 김재풍(金

在豊)은 외세에 흔들리는 국권을 회복하는데 앞장섰으며 김영덕(金永億)은 국운이 기울어짐을 통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김영숙(金永肅) 역시 한일합방을 반대하여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쳤다.이렇듯 예의충효(禮義忠孝)의 학풍을 중히하고 절의를 지킨 광산 김씨는 오늘 날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상과 같이 광산 김씨는 조선조에서만 왕비 1,상신 5,대제학 7,청백리 4,공신 7,문과급제자 265를 배출하여 명문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고 특히 김장생의 후손에서 배출한 7명의 대제학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오직 광산 김씨 뿐이다.

광명에서의 광산 김씨

광산 김씨가 광명시에 정착하게 된 경위는 명확하게 전하지 않는다. 다만 여타의 가문들처럼 광명시 일직동 (자경리)에 정착하여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가문의 전통을 이어 학문에 전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명시에 정착한 시기는 (광산김씨 사온직장공 파보) 16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며 당시 김원록(金元祿)과 김대덕(金大德)이 현재의 광명시 일직동 자경마을에 정착하였는데 김원록은 돈령공파(敦寧公派)를 이루어 그 파조(派祖)가 되었으며 김대덕은 김원상(金元相)의 아들로 소봉공파(蘇峰公派) 파조(派祖)의 파조가 되어 이후 두 분의 자손들이 광명시에서 번성하였다. 그 가계(家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명의 정착기

<소봉공파>

25世(始祖) 김원상(金原祥, 金大德의 父) 통훈대부(通訓大夫)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 역임. 증(贈)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

26世 김대덕(金大德) 진사(進士), 보승문정자(補承文



소릉공 김대덕 쌍분묘
광명시 일직동 산6번지

正字), 예문관 검열(藝文館 檢閱), 한성좌윤(漢城左尹), 형조참판(刑曹參判) 역임

27世 김익건(金益堅)

28世 김시일(金時鎰)

29世 김숙(金淑)

30世 김상우(金相宇)

31世 김환익(金煥翼)

32世 김휘진(金徽進)

33世 김기석(金基錫)

34世 김부구(金浮九)

35世 김연직(金淵植)

36世 김희범(金熙範)

37世 김원규(金元圭)

38世 김종운(金鍾云)

39世 김일호(金一浩)

40世 김동천(金東泉)

<돈령공파>

25세 김원록(金元祿) 강원도사(江原都事), 어천찰방(魚川察訪), 예조정랑(禮曹正郎),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 역임

26세 김대성(金大成) 통훈대부(通訓大夫)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 역임

27세 김익련(金益鍊) 선교랑(宣敎郎) 역임

28세 김시량(金時亮) 통덕랑(通德郎) 역임

29세 김옥(金沃)

30세 김정상(金鼎相)

31세 김낙추(金樂秋)

32세 김원경(金遠慶)

33세 김인석(金仁錫)

34세 김준구(金濬九)

35세 김영직(金永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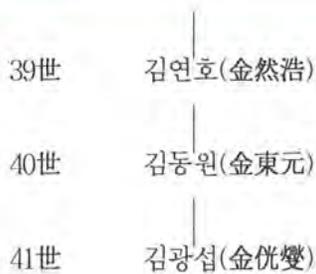
36세 김희수(金熙壽)

37세 김은규(金殷圭)

38세 김종순(金鍾淳)



돈령공 김원록의 묘
광명시 일직동 산6번지



광산 김씨는 크게 문정공파와 문숙공파, 낭간공파, 낭장공파, 사온직장공파등 5개파로 나뉘는데 광명시 일직동(자경리)의 광산 김씨는 김영(金英, 사온직장공)의 7세손 숙문(叔文)(奉事公 : 八文 중 셋째)의 손으로 계대(系代)를 이어오다가 다시 9세손에 이르러 김원상(金元相)을 파조로 하는 소봉공파, 김원복(金元福, 화성군 반월면)을 파조로 하는 호군공파, 김원록(金元錄)을 파조로 하는 돈령공파 등 3개 파로 나뉘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광명시 일직동 자경마을 인근에는 소봉공파가 약 25가구, 돈령공파가 40여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보름에 시향제(時享祭)를 지내고 있다.

김익련

광명시에 정착한 광산 김씨는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학문을 닦아 관직에 나아갔으며, 돈령공의 3세손 김익련(金益鍊)이 세자를 보필하는 세자익위사세마공(世子翊衛司洗馬公)의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거절하고 학풍의 가문으로서 후손들의 후학(後學)에 전념하면서 은거생활을 하였다. 현재에도 후손들의 자녀들이 학문에 뜻을 두고 뜨거운 학구열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봉공(김대덕)의 12세손 김장흥(金長興)은 강원도지사를 역임하는 등 광산 김씨 가문의 명성을 떨쳤다. (봉사공 종중)

광산 김씨의 설화 및 전설

고려시대 공민왕조에 대사성으로 명나라에 갔다가 황제의 노여움으로 유배되어 끝내 돌아오지 못했던 김약항(金若恒)은 사

후 황제의 노여움이 풀리자 늙은 여종이 그의 부인이라고 하여 남경까지 가서 그 시신을 찾아왔다. 그러나 <용제총화>에 보면 김약항의 아들 김처는 부친이 외국에서 죽었으므로 충격을 받아 미친병이 들어 매일같이 소리내어 울고 밤에는 시구(詩句)를 길게 읊으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비틀거리며 돌아다녔다 한다.

둘째 아들 김허(金虛) 역시 관직이 부정(副正)에 이르렀으나 효성이 지극하여 모친상을 당하자 여막의 벽에 <효경>(孝經)의 상친장(喪親章)을 써서 붙이고 날마다 바라보며 읽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기를 3년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이에 그 비참하게 우는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들도 눈물짓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김허

김장생(金長生)의 학통을 이어받은 그의 아들 김집(金集)은 40여년간 그의 부친을 모셨는데 언제나 부자(父子)의 법도를 지켜 아들이 질문했을 때 부친은 병을 앓고 있을 때라도 단정히 앉아서 대답하는 것이라든지 각상(各床)과 각방(各房)에서 밥을 먹을 때 부친의 젓가락 놓은 소리를 듣지 않고는 미리 밥상을 물리는 법이 없었다는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김집의 일화

김집은 부인 유씨의 성품이 분명하지 못하여 부부의 도리를 갖출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이율곡(李慄谷)의 서녀(庶女)를 얻어 첩으로 삼았다. 이후 김집의 부인이 죽자 부친 김장생은 아들이 상처하였으니 후처를 얻어 아들을 낳아서 선대를 계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좋아했다.

그러나 김집은 "사람이 각각 운명이 있는 법인데 운명이 좋지 않아서 먼저 사람(유씨)과 짝이 되어 욕을 보았는데 이제 비록 다시 장가든다고 하여도 꼭 먼저 사람보다 나을 리 있겠습니까?"라고 하여 대(代)를 잊지 못했다.

그리고 인조 24년(1646) 산적 류탁(柳濯)등이 난을 일으켰을 때 류탁은 그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김승지(金丞旨, 金集) 집을 지나가서는 안된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 말을 전해 듣고 신하들에게 "흉악한 무리들도 어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피할 줄은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젊어서 높은 학식과 뛰어난 용맹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이끌고 전공을 세웠던 명장 김덕령(金德齡)은 일찌기 이귀(李貴)가 그를 천거하는 글에 “지혜는 공명(孔明)과 같고 용맹은 관우(關羽)보다 낫다”고 적고 있다. 실제로 그가 전투에 임할 때면 언제나 첩퇴 두 개를 허리에 차고 다녔는데 그 무게가 백근이나 되어 그를 ‘신장(神將)이라 불렀고 왜군들도 그를 매우 두려워 했다고 한다.

또한 <난중잡록>(亂中雜錄)에 의하면 왜장 기요마사(加藤清正)는 그의 명성을 듣고 몰래 화공을 보내어 그 얼굴을 그려다가 보고는 “참으로 훌륭한 장군이다”하고 감탄했으며 뒤에 김덕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술을 마시며 기뻐 날뛰면서 “이제 양호(兩湖)는 걱정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김녕김씨

김녕 김씨의 유래



대보공 김알지
시조탄강 태석



시조왕릉

김녕(金寧) 김씨(金氏)의 내력은 신라 천년과 함께 하고 있다. 이는 김녕 김씨의 시조(始祖)로 알려져 있는 김알지가 옛 진한(辰韓) 땅인 계림(鷄林)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보공(大輔公) 휘(諱) 알지는 서기 65년 신라 석탈해왕 9년 3월 신라의 서울 금성(지금의 경주)에 있는 시림(始林)의 금櫃(金櫃)에서 탄생했다. 을축 밤중에 월성궁 서쪽 시림숲속에서 닭의 울음소리가 나자 탈해왕은 시종 호공을 보내어 그 까닭을 알아오게 했다. 새벽에 호공이 가서 보니 시림 숲속 나무가지에 조그마한 황금색 껍질이 매달려 있고 그 아래에서 흰닭이 울고 있었다. 호공은 이 사실을 왕께 아뢰었고 탈해왕은 그 껍질을 가져오게 했다. 가져온 껍질 문을 열어보니 안에 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자모가 매우 훌륭했다. 탈해왕은 놀라워하면서도 이것은 하늘이 왕에게 아들을 내리신 것이라 하며 기뻐했다. 탈해왕은 좌우 신하에게 일러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고 이름을 알지(闕智)라 했는데 이는 총명한 아이라는 뜻이었다. 또한 황금색 껍질에서 나왔다하여 김씨라는 성을 사성(賜姓)하였으며 시림을 계림이라 고침에 따라서 계림을 국호(國號)로 삼았다. 그리고 태자강조(太子康造)의 딸을 처(妻)로 취하게 했으니 이분이 마정부인(摩貞夫人)이었다.

김알지는 성장하여 뛰어난 재질과 지략으로 왕을 잘 받들어 벼슬이 대보(大輔)에 이르렀다. 그 뒤 대보공의 7세손이며 신라 제 13대 미추왕으로부터 56대 경순왕에 이르기까지 김씨 38왕이 587년 간 신라를 통치하면서 가야, 백제, 고구려를 통합하여 삼국통일의 위업을 성취하는 등 정치와 경제, 군사와 외교의 발전을 이룩한 신라의 융성을 주도했다.

그러나 본관인 김녕에 대해서는 많은 변동이 있었다. <고려사 지리지>(高麗史 地理誌)를 보면 김녕은 신라 유리왕 18년(41)에 김수로왕이 구촌장(九村長)의 추대로 가락국을 세운 뒤 가야, 금관국 등으로 국호가 바뀌었다가 신라 법흥왕 19년(532)에 구해

<고려사지리지>

왕이 신라에 귀화하여 빈객(賓客)으로 예우받으면서 금관국을 신라에 복속시키면서 읍의 명칭을 김관군(金官郡)으로 변경하였다. 그뒤 문무왕 20년(680) 금관소경(金官小京)으로, 경덕왕때 김해소경(金海小京)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왕건(王建) 23년(940)에 김해부(金海府)로 지칭되었으나 곧 임해현(臨海縣)으로 고쳤다가 다시 군(郡)으로 승격되었다. 성종 14년(995)에는 금주안동도호부(金州安東都護府)로 변경되었다가 현종 3년(1012)에 금주군(金州郡)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후 원종 11년(1270)에는 방어사(防禦使) 김선공이 밀성난(密城亂)과 삼별초란(三別抄亂)을 평정한 공로가 있어 김녕도호부(金寧都護府)로 승격되었다. 이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보면 충렬왕 2년(1276)에 다시 현(縣)으로 낮추었다가 충렬왕 34년(1308)에 금주목(金州牧)으로 변경되었으나 충선왕 2년(1310)에 다시 김해도호부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본관의 변동에 따라서 경순왕의 4자(子)인 대안군(大安君, 殷說公)의 셋째 아들인 김해군(金海君) 염공(濂公)을 관시조(貫始祖)로 모신 경순대왕과 김해(金海) 김씨(金氏)인 후김(後金)과 가락국 김수로왕과 김해 김씨인 선김(先金)의 구분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선김과 후김은 분명히 시조와 혈통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선김이라 부르던 수로왕 후예들과 경순왕 후손인 김녕군의 후예들 사이에는 같은 본관을 쓴 관계로 여러 가지 혼란과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김녕군 종문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선 현종 12년(1849)과 고종 22년(1884) 두 차례나 예조(禮曹)에 상소하여 왕의 윤허를 얻어 김해를 김녕(金寧)으로 행관(行貫)하게 되었다.

<동국여지승람>

조선 현종 12년(1849),
고종 22년(1884)

김녕 김씨의 대표적인 인물들

시조 김알지가 신라 천년의 국가기강을 다진 이후 7대손인 미

미추왕

- 추가 비로소 왕위에 올라 김녕 김씨는 경주에서 천년 동안 왕실의 큰 영화를 누렸다. 신라의 제 13대 왕위에 즉위한 미추왕은 전대의 침해왕이 왕자없이 붕어하자 왕의 처남으로서 국민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왕위에 오른 후 호(號)를 이사금(尼師今)이라 칭하고 사자를 각지로 파견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고 위무하면서도 직접 전국을 순행하면서 고령자와 극빈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한편 국방을 엄하게 하여 백제의 네차례 침입을 격파하였다. 미추이사금 이후 내물(奈勿)이사금은 교통이 불편하여 문화가 가장 뒤떨어져 있던 나라의 기틀을 갖추었으며 대내적으로는 효자와 열녀들을 뽑아 널리 권장하였다. 한편 재위시 백제와는 수교를 맺었으나 왜적들이 크게 침입해와서 왕은 풀로 허수아비 수천개를 만들어 토함산 기슭에 세우고 용사 천명을 잠복시켜 두었다가 침입하여 오는 왜적을 전멸시켰다. 실성(實聖)을 거쳐 눌지(訥祗)에 이르러 호를 마립간(麻立干)이라 하고 백성에게 복제(服制)와 우차법(牛車法)을 가르쳤다.
- 내물왕
- 소지왕
- 눌지마립간을 이어 자비(慈悲), 다음 소지(昭智)가 마립간이 되어 저자를 열어 상업과 교역을 활성화시켰으며 이후 지증(智證)이 마립간에 즉위하면서 문물제도를 쇄신하였고 각 고을에 명하여 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게 한 우경법(牛耕法)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 '사라'(斯羅) 또는 '사로'(斯盧)라는 국호를 처음으로 '신라'라고 칭했으며 그간의 이사금, 마립간이란 칭호도 고쳐 왕(王)이라 칭하고 시호(諡號)를 쓰도록 했고 상중에 있는 사람이 입어야 할 예복에 대한 상복제도(喪服制度)를 실시하였다. 또한 삼척군수 이사부(異斯夫)에게 우산국(현재의 울릉도)을 병합케 하기도 했다.
- 법흥왕
- 진흥왕
- 법흥왕이 즉위하자 대내적으로는 나라의 법률인 율령(律令)을 공포하고 백관(百官)의 공복(公服)을 제정하였으며 연호(年號)를 처음 제정하여 건원(建元)이라 하였고 불교를 정식으로 인정하였다. 대외적으로는 6가야 중 일부를 합쳐 땅을 넓혔다. 다음대인 진흥왕은 백제의 성왕과 동맹하여 고구려가 점령한 한강유역을 빼앗아 중국과 왕래의 길을 터놓았다. 뿐만 아니라 동해안을 따라 고구려로 쳐들어가 함경남도 남부 해안지방에까지 이르렀으

며 이때 새로 개척한 영토를 돌아본 진흥왕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함경남도의 마운령과 황초령, 서울의 북한산 및 경상남도 창령에 세운 기념비가 진흥왕의 순수비(巡狩碑)인데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

뒤이어 진지왕을 거쳐 진평왕에 이르러 왕자가 없어 왕녀 선덕이 왕으로 즉위했는데 선덕여왕은 신라인들을 당나라에 유학하도록 하여 선진 중국문물을 배워오게 했다. 선덕여왕 이후 진평왕의 아우인 국반(國飯)의 딸, 진덕이 여왕으로 즉위했다. 진덕여왕은 처음으로 당제(唐制) 관복을 모방하여 착용케 했으며 또한 당에 사신을 보내어 백제를 칠 것을 전하면서 손수 비단으로 짠 태평송(太平頌)이란 글을 보내었다. 이를 받아본 당 고종이 이에 감복하여 처음으로 중국 연호를 시행케 했다. 진덕여왕을 이어 즉위한 태종무열왕은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하여 신라 영토 중 33성을 탈취하였기에 당나라에 청원하여 도독 정명진(程名振), 소정방(蘇定方)과 김인문(金仁問)으로 하여금 연합하여 백제를 공격하였고 이후 직접 김유신(金庾信)을 거느리고 당군과 연합하여 백제를 또다시 공격하여 마침내 복속시켰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고구려군이 침입해 왔으나 이를 격퇴하였다.

무열왕을 이어 문무왕이 즉위하여 당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정벌하였고 부인복을 중국 의상으로 사용케 했으며 역법(歷法)을 반포했고 각 주(州), 군(郡)에 동인(銅印)을 주조하여 사용케 했다. 신문왕, 효소왕을 거쳐 왕위에 오른 성덕왕은 처음으로 누각(漏刻)이라는 물시계를 만들었으며 이어 효성왕, 경덕왕, 혜공왕, 선덕왕을 거쳐서 원성왕에 이르러 독서출신법(讀書出身法)을 정하였다. 원성왕 이후 14대 왕이 즉위했으나 경순왕에 이르러 국운이 쇠퇴하여 고려에 나라를 양도함으로써 찬란했던 천년의 신라는 막을 내렸다.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31세로 이종인 경애왕의 뒤를 이어 신라 제51대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신라 제51대 왕인 진성여왕의 실정(失政)으로 도적이 일어나고 나라일이 혼란해지자 결국 진성여왕은 11년에 조카인 효공왕에게 양위를 했다. 효공왕이 즉위했으나 궁예(弓裔)와 견훤(甄萱)의 세력이 점점 커지기만

선덕여왕

문무왕

경순왕



경순왕

마의 태자

했고 효공왕은 왕자도 없이 서거했다. 이에 백성들이 효공왕의 매부이자 신라 제8대 왕 아달라이사금(阿達羅尼師今)의 먼 후손인 박경휘(朴景輝)를 세워 왕으로 옹립했다. 신덕왕이 즉위함은 곧 박씨로는 728년에 다시 왕위에 오른 셈이다. 신덕왕 이후 장자(長子)인 경명왕이 즉위했고 또 그 뒤를 이어 왕의 아우인 경애왕이 즉위했다. 경애왕 4년(927) 11월에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 왕도를 침입하였는데 이때 경애왕은 포석정(鮑石亭)에서 유흥을 즐기던 중이라 불의에 침입한 견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견훤은 궁중을 약탈하고 경애왕을 협박하여 자진케 했으며 왕비 이종인 김부(金傅)를 권지국사(權知國事)로 삼고 퇴각하였다.

경순왕 5년(931)에는 고려 왕건이 군사를 거느리고 계림에 이르러 왕을 만나기를 청했다. 경순왕은 백관을 거느리고 나아가 이들을 영접하였다. 이들이 돌아가고난 뒤 경순왕이 나라를 왕건에게 양도할 것을 제의하자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왕은 “외롭고 위험함이 이와 같아 한나라를 보존하기 어려운데 무고한 백성들에게 이 이상 피를 흘리게 함은 나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며 백성을 위하는 뜻을 강력하게 피력한 뒤 시랑(侍郎) 김봉휴(金封休)에게 국서를 고려 왕건에게 보내게 했다.

이때 경순왕의 양국(讓國)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인물은 다름아닌 태자였는데 그 태자의 휘는 일(鎰)이요 자(字)는 겸용(謙用)이었다. 더이상 국권을 지속하기 어려우며 또 외침을 대항할 국력도 없고 설사 무리하게 항전을 하여도 많은 국민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니 차라리 고려 태조에게 손국(遜國)하여 같은 민족으로서 한 나라를 이룩함이 상책이라고 생각한 경순왕이 백관들을 불러 이 문제를 의논할 때 태자만은 강력하게 반대하며 천년의 국가사직(國家社稷)을 싸워도 보지않고 양국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하며 스스로 항전할 것을 결심했다. 그래서 태자는 성을 떠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사(龍門寺)에 들어가 추종자들과 함께 때를 기다렸다. 이후 태자는 다시 금강산으로 들어가 비로봉 밑에 장군대(將軍臺)를 쌓고 신라 국권회복의 염원을 위해 마의(麻衣)를 입고 푸성귀를 먹으며 화신상담하다가 결국

비로봉 아래 어느 기슭에서 조용히 순절하였다. 이런 태자를 세 상 사람들이 '마의태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경순왕의 국서를 받은 왕건은 이후 장녀 낙랑공주를 경순왕의 후비로 삼게 했는데 그때 경순왕의 나이 39세였다. 이로써 신라 건국 이래 992년의 오랜 역사는 그 막이 내렸고 천년 사직은 끝을 맺었다. 경순왕은 고려 왕조에서 그 위치가 태자보다 높은 정승공(政丞公)이 되었고 옛 신라땅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리고 왕건은 경순왕의 백부 김억렴(金億廉)의 딸을 아내로 맞게 되니 그 딸이 곧 신성왕후 김씨이며 왕후의 소생이 고려 현종의 부군인 안종이었다. 고려 경종 또한 경순왕의 딸을 왕비로 맞았는데 이가 현승왕후였다. 이렇듯 신라 천년을 주도했던 김녕 김씨의 후손들은 고려왕조에 와서는 왕가의 모계가 김씨로 상호 혈연을 교결(交結)하였다.

이외에도 김녕 김씨의 관조(貫祖)인 김시흥(金時興)은 고려 인조때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하고 묘청(妙淸)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김녕군(金寧君)에 봉해졌으며 또다시 명종때 조위총(趙位寵)의 난을 진압하여 일천호(一千戶)의 식읍(食邑, 領地)을 하사받고 금주군(金州君)에 봉해졌다.

김시흥의 아들 원정공 김상 역시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데 그는 고려 인종때 병부상서를 지내고 평장사에 올랐으며 그의 동생 김순(金珣)은 사헌부 지평을 거쳐 사(死)후 찬성사(贊成事)로 관위가 상승되었다.

김상의 증손 김귀갑(金貴甲)은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응교(應敎)를 거쳐 밀직사사(密直司使)를 지내고 고려왕조가 멸망하자 순절(殉節)하였다. 김상의 5세손인 김정병(金挺丙)은 공민왕때 병부상서를 역임했으며 홍건적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분성군(盆城君)에 봉해졌다. 김현(金峴)의 아들인 김광저(金光儲)는 대사헌에 이르기도 했다.

이렇게 고려 사회의 전반에 걸쳐 가세(家勢)와 명성을 떨친 김녕 김씨는 조선조에 와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는 문벌의 전통이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치며 일관되게 이어져 온 것으로 조선의 왕족들은 김녕 김씨의 외손들이었다.

김녕 김씨의 관조 김시흥



백촌 김문기(1399~1456)

김준(영돈령부사)

양녕에서의 김해 김씨

조선시대 김녕 김씨의 대표적인 인제는 백촌(白村) 김문기(金文起)이다. 김녕 김씨의 한 분파를 이루기도 한 김문기는 조선 정종 1년(1399)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백지리에서 영의정으로 추증된 김관(金觀)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字)는 여공(汝恭), 호는 백촌, 정호(亭號)는 마암(馬巖)이다. 문무를 겸하여 세종 8년(1426) 문과에 급제한 후 형조참판, 함경도감사, 함길도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공조판서, 이조판서를 역임하고 문종으로부터 어린 단종을 잘 보필할 것을 특별히 부탁받았다.

그리하여 세조 즉위 후 그는 박팽년(朴彭年), 성삼문(成三問), 하위지(河緯地), 이개(李瑄), 류성원(柳誠源) 등과 함께 단종 복위 운동을 하여 사육신이 되었다. 선생은 한학(漢學)과 중국어에 정통하여 복위운동 중 중국 사신을 설득할 것과 단종상왕(端宗上王)과의 연락을 맡았다.

그러나 김질의 밀고로 단종복위의 계획이 폭로되자 모든 유신이 마침내 자백하였으나 백촌만은 끝까지 절의를 지켰다고 한다. 결국 세조 2년(1456) 음력 6월 8일 선생은 맏아들 김현석(金玄錫)과 함께 의롭게 형장에서 순절하였다. 그후 영조 7년(1731) 10世孫 김정구(金鼎九)의 송원(訟冤)으로 복관되었으며 영월(寧越) 장릉충신단(莊陵忠臣壇)을 비롯한 지례(知禮)의 염계서원에 배향되었다.

이후 김문기의 손자 김충주(金忠柱)와 증손 김현남(金玄南), 김현손(金玄孫), 김약전(金約前)에게 오세충효(五世忠孝) 정문(旌門)이 하사되기도 했다. 또한 김준(金遵)은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를 지내다가 단종이 죽자 피신하였다가 세조가 좌의정을 제수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김응수(金應壽)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3형제가 함께 의병을 일으켜 전공을 세워 호성공신(扈聖功臣)에 봉해졌으며 한성부 판윤(判尹)을 역임했다. 또한 충효공(忠孝公) 김유부(金有富)는 팔공산(八公山)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으며 그의 아들 김기남(金起南)과 김난생(金蘭生)은 병자호란때 순절하여 공신(功臣)에 올랐으며 담양부사 김언공(金彦恭)은 정묘호란때 의병을 인솔하여 진주성(晉州城)을 방어하고 섬진강의 적을 막았으며 노량대첩 때에는 충

무공(忠武公)의 진중에서 전공을 세우기도 했다. 이외에도 병자호란때 공주(公州), 광주(廣州) 등지에서 공을 세우고 전사한 김경세(金景世)는 병조판서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추증되었고 충경(忠敬)이라는 시호를 받기도 했다.

이상과 같이 김녕 김씨는 조선시대에만 절의 2, 공신, 판서 및 기타관직에 31명을 배출하여 가문의 명성을 드높였다.

광명시에서의 김녕 김씨

김녕 김씨가 광명시에 정착한 연대나 연원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김녕 김씨의 대동보를 보면 17세 김순종이 17세기무렵 노리실에 정착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대동보를 통해 가계(家系)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7세 김순종(金舜鍾) 진사(進士) 역임

18세 김지선(金枝善) 이조좌랑 역임

19세 김거연(金舉演) 목사(牧使) 역임

20세 김처주(金處周) 진사(進士) 역임

21세 김재의(金在義)

22세 김종성(金宗聲)

23세 김용국(金溶國)

24세 김정권(金貞權)

25世	김형득(金炯得)
26世	김덕규(金德圭)
27世	김진섭(金鎭燮)



집성촌 노리실의 현재 위치

노리실에 정착한 김순중은 충의공파로 이후 경주 김씨가 노리실에 조금씩 살았지만 김녕 김씨가 비교적 많이 살고 있는 편이다. 김순중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둘째 아들 김지일(金枝鎰)은 좌승지(左承旨)를 역임했고 셋째 아들 김지창(金枝昌) 역시 진사(進士)를 역임했으나 그는 인천(仁川)으로 분가했다. 둘째 아들 김지일의 아들인 19세 김익연(金益演)은 이조좌랑에 올랐고 그의 세 아들 중 맏아들 김처칠(金處喆)과 셋째 아들 김처일(金處逸)은 진사를 지냈으며 김선철(金膳喆)은 현령(縣令)을 역임했다.

24세 김세권(金世權)은 조선말 여러 문사들과 교류하였는데 특히 영의정에 올랐던 김병학과의 교분이 두터웠다고 한다. 25세 김형원(金炯元)은 한학에 몰두하여 그 이름이 높았었다.

노리실에 정착한 김녕 김씨는 주로 농사를 지으며 평범하게 살아왔다. 안산에는 김녕 김씨의 사당이 있으며 광명시에서 노리실을 둘러싼 약 25~40포쯤 되는 작은 산이 거의 김녕 김씨의 종주망이라고 한다. 또한 광명시에서 김녕 김씨는 매년 3~4회의 종친회를 개최하고 있고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초에 길일을 택해 당제를 지내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마을 중앙에 있는 느티나무 앞에서 지내다가 나무가 소실되자 마을 앞 산중턱에 당집을 짓고 군웅제를 지내고 있다. 서울에서는 10월경 시조(始祖) 백촌 김문기선생의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매년 10월 경 시조에게
제사를 지냄

김녕 김씨의 설화 및 전설

미추왕

미추왕은 신라 13대 왕으로서 김녕 김씨에서는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다. 백성들을 아끼고 재임기간 중 특히 국방을 튼튼히 하여 백제가 네 차례나 침입해 왔어도 이를 모두 쉽게 물리쳤다. 그래서 재위 23년 동안의 치적이 뛰어났고 백성들의 애도속에 흥륜사(興輪寺) 동쪽 죽능(竹陵)에 장례를 모시니 이 능을 죽현능(竹現陵)이라 했다.

그런데 미추왕을 이어 왕위에 오른 유리왕때에 이서국(伊西國. 현재의 경북 청도군 지역)이 금성(金城)을 침공해 왔다. 이에 신라군이 전력을 다해 싸웠으나 전세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한 부대의 구원병이 몰려 왔는데 이들은 모두 대잎(竹葉)을 귀에 꽂고 있었다. 구원병에 힘을 얻은 신라군은 이들과 합세하여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적군이 물러가버리자 이상하게 구원병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신라 군사들은 이를 이상히 여겼지만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얼마 후 미추왕의 능앞에 대잎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선왕 음조(陰助)의 공(功)인 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후로 이 능을 죽엽능(竹葉陵)이라고 불렀다.

미추왕의 음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라 36대 혜공왕대에도 나타난다. 혜공왕 14년 4월에 김유신(金庾信) 장군의 무덤에서 갑자기 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는데 그 회오리 바람 가운데로 한 장수가 준마를 타고 죽엽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후 죽엽능 속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신(臣)이 평생동안 나라를 구하고자 하여 삼국통일의 공이 있었으며 혼백이 되어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변함이 없는데 지금 군신들은 모두 나의 공덕을 생각지 않으니 신은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은 “나와 공(公)이 이 나라를 수호하지 않으면 저 백성들을 어찌할 것인가”하고 말하며 세번이나 청하였으나 장수는 듣지않고 돌아갔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 혜공왕은 크게 놀라며 공신들을 김유신

장군의 홍무왕릉에 보내 용서를 구하고 취선사(鷲仙寺)에 명복을 빌었다. 또한 미추왕의 성덕을 생각하여 제사지내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 묘소를 대묘라고 일컬었다.

김문기

단종을 위해 끝까지 절의를 지켰던 백촌 김문기(金文起)의 운명을 미리 점쳤던 한 일화가 있다.

그가 당시 함길도관찰사로 있을 때 중국인 공손급(公孫汲)이라는 관상을 잘보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날 공손급은 그의 상을 보고 "혼백은 생비단에 의지하고 천자손이 세 번 거듭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뜻을 풀이하여 말하기를 "대감의 훌륭한 몸가짐은 태산(泰山)과 같이 빼어났으니 크게 성인(聖人)의 이름을 얻을 것이나, 태평한 시대의 재상의 상(相)이 아니니 천년후에는 메뚜기 퍼지듯 자손이 억(億)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며 사당(祠堂)은 있으되 분묘(墳墓)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다.

제보자

이는 과연 선생의 충의(忠義)는 하늘을 찌르고 살신성인한 이름은 만고에 빛났으니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선생의 옥고를 치루는 동안 가문이 거의 멸족되었는데 어느날 선생의 두 손자가 선생을 면회왔다. 이때 선생은 두 손자에게 아무말도 없이 밤 한톨을 쥐어주었다. 면회를 마치고 감옥에서 돌아오면서 만형은 그 밤을 동생에게 건네주었다. 그러자 동생이 말하기를 "이것은 할아버지가 오늘밤 안으로 달아나라는 뜻이야"라고 했다. 이에 두 형제는 그날 밤으로 피난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해김씨

김해 김씨의 유래



시조 김수로왕 영정

김해(金海) 김씨(金氏)의 시조(始祖)는 김수로(金首露)왕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김수로왕에 대해서는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와 함께 《가락국기》(駕洛國記)에 나타나 있다. 《가락국기》에 의하면 아직 나라의 이름도 없었고 임금과 신하의 칭호도 없이 아도간(我刀干), 여도간(汝刀干), 피도간(彼刀干), 오도간(五刀干), 유수간(留水干), 유천간(留天干), 신천간(神天干), 오천간(五天干), 신귀간(神鬼干) 등의 구간(九干)들이 백성들을 통솔하던 시대에 서기 42년 3월 변한지방의 북쪽 구지(龜旨, 산의 봉우리를 일컫는 것으로 거북이 엮드린 모양에서 따온 것)에서 수상한 소리가 나며 사람들을 불렀다. 이에 구간들과 마을 사람들 2, 3백명이 이곳에 다가가자 형상은 보이지않고 그 음성만 들려왔다.

“여기 누가 있느냐?”라는 물음에 구간들은 “저희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또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왔다. 이에 구간들은 “구지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또 말하되 “하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로 건립하여 임금이 되라고 하시기에 내려왔다. 너희들은 산마루를 파고 흙을 뒤집으며 노래를 하되 '신(神龜)이여, 신이여 머리(頭. 宗. 王)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 하고 춤을 추어라. 이렇게 함은 곧 하늘에서 대왕을 맞이하는 너희들의 즐거운 춤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구간들은 그 말씀대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얼마후 하늘을 쳐다보니 자주빛갈의 밧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에 닿았다. 그 밧줄끝을 찾아보니 분홍 보자기에 금합(金盒)이 싸여 있었다. 그 금합을 열어보니 그 속에는 태양같이 둥근 황금색 알이 여섯개가 있었다. 사람들은 놀라는 한편 기뻐하여 백번 절을 하고 그 금합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금합을 여니 여섯 알은 모두 나이 15세 가량의 어린 동자로 변해 있었는데 용모가 매우



시조왕후 허씨 영정

뛰어났다. 사람들은 모두 이들에게 절을 하고 지극히 공경하였다. 동자들은 나날이 장성하여 10여일이 지나자 신장이 9척이나 되었고 그중 알에서 제일 먼저 나온 동자를 수로(首露)라 이름짓고 마침내 그달 보름날에 왕으로 즉위하니 세상에 처음 나라가 서게 되었다.

수로는 금합에서 탄생하였다 하여 성(姓)을 김씨(金氏)라 하고 국호를 가야라 하였다. 나머지 다섯 동자는 각각 돌아가서 다섯 가야의 임금이 되었는데 동쪽은 황산강(현재 낙동강), 남쪽은 바다로,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으로써 국경을 삼았다.

가야의 왕으로 추대된 김수로왕은 김해 김씨의 시조가 되었고 가야의 발전과 함께 가문도 역시 번성하게 되었다. 가야 혹은 가락국은 오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여러 명칭으로 불렸는데 신라 법흥왕 때에 금관국, 문무왕때에 금관소경, 경덕왕 때에 김해소경이라 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조 때에 김해부(金海府)를 임해현(臨海縣)이라 하다가 곧 임해군(臨海郡)으로 승격했고 광종 때에 다시 김해부로 환원하였다. 이후 금주(金州), 금녕부(金寧府), 금주목(金州牧) 등으로 부르다가, 고려 충선왕때 김해부(金海府)가 설치되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어서는 태종 때 김해도호부(金海都護府)라 하고 고종 때에 김해군(金海郡)이라 함으로써 김수로왕의 후손들은 본관(本貫)을 김해(金海)로 하게 된 것이다.

김수로왕

김해 김씨의 대표적인 인물들

김해 김씨의 세계(世系)는 후손들이 번창해짐에 따라 수로왕의 13세손 김유신(金庾信)을 중시조(中始祖)로 하여 약 148파로 분파되었다. 그 중에서 김유신의 직계 종파는 고려때의 김목경(金牧卿)을 一世祖로 하는 경과(京派)와 그의 아우 김익경(金益卿)을 一世祖로 하는 사군파(四君派)와 김관(金管)을 一世祖로 하는 삼현파(三賢派)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유신



김유신 장군의 영정

중시조 김유신은 기락국 마지막 왕인 양왕의 증손으로 조부는 신라의 장군이며 신라의 17관등의 첫째 위치로 진골만이 하는 최고 직책 각간(角干)인 무력(武力)이고, 부친은 태종무열왕의 장인이며 당대에 이름난 장군인 김서현(金舒玄)이었다. 김유신의 모친은 진흥왕의 아우인 숙흘종(肅訖宗)의 딸 만명(萬明)이었다.

김유신은 15세에 화랑이 되어 심신을 수련하며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신라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졌다. 김춘추(金春秋)를 무열왕으로 추대하여 상대등(上大等)이 되었으며 당나라 소정방(蘇定方)과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고 고구려 정벌 후 당나라 군사를 축출하여 한강 이북의 고구려 땅을 수복했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경파의 파조(派祖) 김목경이 고려 충혜왕 때 조적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금녕군(金寧君)에 봉해졌으나 국사가 날로 어지러워짐을 보고 수차례 상소를 올렸지만 시정되지 않자 속리산으로 들어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김목경의 아들 김보(金普)는 충정왕 때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를 지냈고 공민왕 때 김해부원군(金海府院君)에 책봉되었으나 신돈을 탄핵하다가 미움을 사서 파직되었다.

김익경

사군파의 파조 김익경(金益卿)의 증손 김조는 조선 태종때 문과에 급제하고 세종 때 집현전 수찬(修撰)을 거쳐 예조판서를 지냈으며 장영실(蔣英實)과 함께 간의대(簡儀臺), 자격루(自擊漏), 혼천의(渾天儀) 등을 만든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조는 <세종실록>(世宗實錄) 편찬에 참여했으며 문명(文名)이 높아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았다.

김관

삼현파의 파조 김관(金管)은 고려 충선왕때 판도판서를 역임했고, 또한 왕에게 간언하여 불교를 배척하고 유학을 진흥시키는 등 공적을 남겼으며 그의 5세손 김극일(金克一)은 일찍부터 벼슬길에 뜻을 두지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였으며 효행이 뛰어나 세종 때 효자정문(孝子旌門)을 하사받기도 했다.

김씨삼주

김극일의 둘째 아들 김맹(金孟)은 세종때 과거에 급제하여 집의(執儀)를 역임했고 또한 김맹의 아들 3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김씨삼주(金氏三珠)'라 불리면서 당대의 문장으로 유명하였다. 특히 세째 김일손(金駟孫)은 조선의 석학(碩學) 김종직의

문하에서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등과 친분을 나누는 한편 춘추관(春秋館) 사관(史官)으로 재임시 전라관찰사 이극돈(李克墩)의 비행을 사초(史草)에 기록하여 원한을 샀다.

이 일은 연산군 4년(1498) <성종실록>(成宗實錄)을 편찬할 때 공교롭게도 이극돈이 당상관으로 참여하여 사초를 살피게 되면서 알려졌으며 이때 이극돈은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이 세조의 왕위찬탈을 비판한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실은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이극돈은 노사신, 한치형 등과 함께 왕에게 알려 김종직은 부관참시(副棺斬屍)의 극형에 처해졌고 그의 일족은 참수당하거나 유배되는등 큰 화를 당했다.

김준손(金駿孫)의 아들 김대유(金大有)는 정여창의 문인으로 아버지와 함께 귀양갔다가 중증반정으로 풀려나 조광조(趙光祖)에 의해 실시된 과거인 현량과에 급제하여 칠원현감(漆原縣監) 등을 지냈다.

이상과 같이 김해 김씨에서는 조선시대에 정승 1명, 공신 5명, 청백리 4명, 대장 1명, 판서, 군수, 목사 및 기타관직에 2, 700여 명을 배출한 명문가문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광명에서의 김해 김씨

김해 김씨가 광명시에 정착하게 된 시기와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김해 김씨 대동보를 보면 충북 진천에서 시흥으로 이주해 온 김두조(金斗祚)의 처 최악덕(崔岳德)의 열효(烈孝)가 나라로부터 인정받아 홍살문과 함께 시흥동 박미고개 땅을 하사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이때부터 광명시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광명시에 거주한 김해 김씨는 판서공파의 후손이며 그 가계(家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홍살문터 광명7동 575-15

16世	김두조(金斗祚) 자(字) 두징(斗徵)
17世	김준현(金俊鉉)
18世	김세복(金濟福)
19世	김인식(金仁植)
20世	김현세(金顯世)
21世	김치배(金致培)
22世	김종협
23世	김창태(金昌泰)
24世	김봉기(金鳳基)
25世	김석찬(金錫燦)
26世	김동환(金東煥)

수원 최씨인 최악덕은 16세 김두조의 부인으로, 시집오기 전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이미 효녀로서 인정받았으며 출가 후에는 남편에게 정성을 다했다. 그러던 어느날 건강하던 남편 김두조가 원인모를 병을 얻게 되어 점점 병세가 깊어지자 최악덕은 여러 해에 걸쳐 갖은 약제를 쓰고 지극히 간호하였으나 끝내 김두조는 회생(回生)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에 최악덕은 남편 김두조의 죽음을 슬퍼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고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남편의 입관(入棺)이 끝나자 결국 최악덕도 남편을 따라 절개를 지키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이러한 최악덕의 선행이 조정에 알려졌고 나라에서는 그 정절을 기리고자 홍살문과 함께 시흥 박미고개 땅을 하사하게 된 것이다. 나라에서 하사한 홍살문에는 '열효지문'(烈孝之門)이라 양각되어 있었는데 이는 최악덕의 효행과 정절을 모두 칭송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항에 관해 <김해김씨예파보>(金海金氏璿派譜)에는 효종조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표기로 판단되는데 <여지도서>(輿地圖書), <경기읍지>(京畿邑誌) 및 여러 참고문헌을 살펴보면 이때를 영조 17년(1741)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살문은 원광명, 즉 현재의 광명 7동 575-15번지에 세워졌으며 후손들이 관리해왔으나 이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설정됨과 함께 화재로 소실되어 버렸다. 하지만 최근까지 근방에서 최악덕의 10세손 김세겸의 집을 '홍문집'이라 칭할 정도로 최악덕과 홍살문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

김해 김씨가 광명시에 정착한 이후 후손들은 농업에 종사하며 착실히 살았는데 23세 김창순은 특히 한학(漢學)과 중국어에 능해 원광명에서 서당을 열어 고(故) 백상철, 광명단위 농협간사인 왕재민, 민병욱등 많은 후진을 양성했고 '정의'(正義)라는 좌우명 하에서 몸을 닦아 '산부처'라 일컬어질 정도여서 언제나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여쭙러 오는 경우가 많았다.

김해 김씨의 설화 및 전설

김해 김씨의 시조인 김수로왕에 대한 기록은 가락국의 건국신화로서 더 잘알려져 있다. <<가락국기>>에 실려 있는 김수로왕에 대한 이야기 두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서두에 전체해 두는 것은 김수로왕이 신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하는 이야기 또한 설화적 성격을 지녔다는 사실이다.

먼저 김수로왕과 신라의 시조인 석탈해와 이야기이다. 당시

완하국(琬夏國, 옛 신라) 함달왕의 부인이 임신하여 달이 차자 해산을 했는데 뜻밖에 큰 알을 낳았다. 그 알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석탈해(昔脫解)였다. 탈해는 바닷길을 따라 가락국에 왔는데 그 키가 삼척(三尺)이요 머리 둘레는 일척(一尺)이나 되었다. 탈해는 가락국의 궁궐로 들어와 웃으며 수로왕에게 “나는 왕의 자리를 빼앗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수로왕은 “하늘이 나에게 명하여 왕위에 오르도록 한 것은 장차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 함이니 감히 하늘의 명령을 어겨 왕위를 남에게 줄 수도 없거니와 또 내 나라, 내 백성을 너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탈해는 “그렇다면 술법으로 승부를 겨뤄 보시겠습니까?”라고 말했고 수로왕은 흔쾌히 승락하였다. 순식간에 탈해가 변하여 매가 되자 수로왕도 독수리로 변했다. 이에 탈해가 다시 참새로 변하자 수로왕 역시 새매로 변했다. 탈해가 본 모습으로 돌아오니 수로왕도 전 모습으로 돌아왔고 이에 탈해는 그 앞에 엎드려 항복하고 말았다.

꿨어 엎드려 탈해가 말하기를 “제가 술법을 겨루면서 매가 독수리에게, 참새가 새매에게 잡히는 것을 면함은 아마도 성인(聖人)께서 살생하기를 싫어하시는 어진 마음을 갖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저의 술법으로 대왕과 왕위를 다투는 것은 진실로 어렵겠습니다”라며 곧 그 자리를 떠났다.

수로왕은 탈해가 가락국에 머물며 반란을 꾸밀까 염려하여 급히 수군(水軍) 오백척을 보내 추격하게 했다. 그러자 탈해가 신라의 경계로 도망함으로 수군은 모두 돌아왔다고 한다. 이상의 기록은 신라의 기록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가락국기>>에도 전제되어 있다.

수로왕과 허씨 왕후

서기 48年 7月 27日 구간들은 수로왕에게 “왕께서 강림하신 후로 좋은 배필을 아직 구하지 못했으니 신들이 기른 처녀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뽑아 왕후로 삼으시지요”라고 아뢰었다. 이에 수로왕은 “짐이 이곳에 하강함은 하늘의 명이다. 짐의 짝이 되어 왕후를 삼는 일도 또한 하늘이 명할 것이니 경들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드디어 유천간에게 명령하여 가벼운 배와 빠른 말을 가지고 망산도(望山島, 가락국의 남쪽에 있는 섬)에 가서 대기하라 하고 또 신귀간에게 명령하여 승점(乘帖)이라는 곳으로 나가게 했다.

잠시 후 바다의 서남쪽에서 붉은 돛을 달고 붉은 기를 휘날리면서 다가오는 배가 있었다. 유천간 등이 이를 발견하고 망산도에서 햇불을 올리니 그 배 안의 사람들이 육지로 내려왔다. 승점에서 바라보던 신귀간이 대궐로 달려와서 그 사실을 아뢰자 수로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구간들에게 명하여 배에 탄 사람들을 궁궐로 데리고 오라고 했다.

구간들이 이 전갈을 배안의 사람들에게 전하자 한 여인이 “나는 그대들을 모르는데 어찌 경솔히 따라가겠느냐”라고 말했다. 유천관이 궁궐로 돌아와 이를 왕께 고하자 수로왕은 친히 백관을 이끌고 그곳으로 갔다.

그 여인은 별포(別浦) 나루터에 배를 매게하고 육지로 올라와 입고 온 비단바지를 벗어 그것으로 폐백(幣帛)삼아 산신령께 바쳤다. 이후 그녀는 좌우에 시종들을 거느리고 수로왕이 설치한 임시궁궐로 향하니 수로왕은 친히 나가 그녀를 맞았다.

수로왕과 침전에 든 여인은 말하기를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성(姓)은 허(許)라고 하고 이름은 황옥(黃玉)이며 나이는 16세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 하루는 부모님이 꿈에서 내외가 다 같이 황천상제(皇天上帝)를 뵈는데 상제께서 ‘가락국 시조 수로왕은 하늘에서 내려보낸 자로서 임금의 자리에 오르도록 했으니 그대들은 공주를 보내 수로왕의 배필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듣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를 단장하고 이렇게 감히 용안(龍顏)을 뵈게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수로왕은 “짐은 이미 공주가 먼 곳에서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의 왕비 간택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소. 이제 현숙한 공주가 스스로 왔으니 이 몸으로서는 다행하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드디어 혼인을 하고 수로왕은 허왕후를 맞게 되었다.

허왕후를 맞은 수로왕은 나라와 집안을 잘 다스리고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였다. 이처럼 수로왕이 허왕후와 함께 거처함은 마치 하늘아래 땅이 있고 해에게는 달이 있으며 양지에게 음지가 있는 것과 같았다. 그 내조의 공은 대단했으며 얼마후 왕후께서는 태자(太子) 거등공(居登公)을 순산하였다.

그러나 서기 189년 3월 1일 시조왕후께서 157세로 붕어하니 수로왕은 물론 나라 백성들까지 땅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하고 구지봉 동북쪽 언덕에 장례를 모셨다. 백성들은 왕후의 은혜를 잊지 않고자하여 처음 배의 닻줄을 내린 나룻가의 마을을 주포촌(主浦村)이라 하고 비단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바쳤던 언덕을 능현(綾峴)이라 했으며 배의 붉은 기가 드러났던 바다가를 기출변(旗出邊)이라 했다.

허왕후가 붕어하자 베개를 의지하여 슬퍼하던 수로왕도 10년 후(199) 3월 23일 세상을 떠났으니 그 나이 158歲였다.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던 백성들은 마침내 궁궐의 동북쪽 평지에 거대한 빈궁(殯宮)을 지어 장사지내니 이곳을 수능왕묘(首陵王墓)라 했다. 장자 거등왕으로부터 9대손 구형왕까지 왕묘의 향사를 모실 때에는 매년 정월 3일, 7일과 5월 5일과 8월 5일, 15일에 풍성하고 정결한 제전(祭典)을 서로 계승하여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위 자료는 김해 김씨 광명 종친회 회장 김운근씨, 새마을 광명시지회 회장김석천씨 께서 제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흥민씨

여흥 민씨의 유래

여흥(驪興) 민씨(閔氏)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중국 농서현(감숙성 난산도)에서 배출된 성씨라고 보는 것인데 공자(孔子)의 10제자 중 한 사람인 민손(閔損) (자(字)는 건(騫) 노나라 현인(賢人))의 후손으로 상의봉어(尙衣奉御)를 역임한 민칭도(閔稱道)가 고려 중엽에 사신으로 왔다가 귀화한 것이 시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도 여주(驪州)에 있는 민굴(閔窟)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이나 두가지 견해 모두 명확히 확증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두가지 유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민칭도가 중국에서 귀화하여 여흥에 정착하면서 우리나라 민씨의 시원(始原)이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묘정비
충남 감진군 송악면 서포리

이에 덧붙여 일생을 독립운동에 전념하면서 중국과 소련(蘇聯)을 2,3차례 도보로 왕복했던 민충식(閔忠植)의 회고담에 의하면 그는 중국에서 수백여호씩 거주하는 민씨촌(閔氏村)을 자주 목격했다고 한다. 한번은 어느 민씨촌을 방문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크게 반기면서 말하기를 “한국 민씨는 중국 민씨의 후예”라고 하며 그 이유를 “중국 문헌에 조선(朝鮮) 고려조(高麗朝)에 중국 조정의 민씨 한 사람이 고려에 사신으로 갔다는 기록만 있고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으니 조선의 민씨는 그 사신의 후손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말은 민씨가 중국에서 귀화해 온 것이라는 귀화설(歸化說)을 뒷받침하는 자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여흥 민씨의 시조는 고려에 귀화한 민칭도라 할 수 있지만 그의 상계(上系)는 전해지지 않고 또 본관을 여흥으로 하게 된 연유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여흥 민씨 시조, 민칭도

여흥 민씨의 관향인 여흥은 경기도 남동단에 위치한 여주의 옛 지명(地名)으로 본래 고구려(高句麗)의 골내군현(骨內斤縣)이었다가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이 황효현(黃曉縣)으로 개칭하여 기천군(沂川郡)에 귀속시켰다. 이후 고려초에 황려현(黃驪縣)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종 9년(1018) 원주에 속했다가 고종(高宗)조에 영의(永義)로 바뀌었다. 그리고 충렬왕 31년(1305) 여흥군(驪

興郡)으로 승격된 후 조선시대에 접어들자 태종(太宗)조에 음죽현(陰竹縣)의 북부를 편입하여 여흥부(驪興府)로 승격되면서 관할이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이관되었다. 예종(睿宗)조에는 천녕현(川寧縣)을 병합하여 여주목(驪州牧)으로 변경하였고 연산군 8년(1501) 충주부(忠州府)의 관할에 두었다가 고종 33년(1895) 충주부 여주군이 되었으며 1914년 경기도 여주군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씨의 본관(本貫)은 여흥을 비롯해서 황려(黃驪), 영주(榮州), 여주(驪州), 대전(大田), 해남(海南) 등 32본(本)이 있는 것으로 문헌에 전해지지만 황려는 여흥의 옛 지명이고 영주 민씨는 여흥 민씨의 지파(支派)로서 근세에 와서 여흥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므로 모두가 여흥 민씨의 세거지명(世居地名)으로 여흥 민씨와 같은 혈족이기에 본관은 여흥 단본(單本)이다.

민씨의 본관은 여흥 단본이다.

가문을 빛낸 인물들

고려 말기부터 명문(名門)의 지위를 굳혀온 여흥 민씨는 한말의 세도가문(勢道家門)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3차에 걸쳐 가문의 위세를 떨쳤다. 첫번째는 고려 말엽에서 조선초에 이르는 기간이고 두번째는 조선 숙종(肅宗)조부터 영조(英祖)조까지, 세번째는 한말 고종조이다.

먼저 첫번째 시기로서, 시조의 증손 민영모(閔令謨)가 고려 인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부원외랑(吏部員外郎)을 지내고 명종이 즉위하자 왕의 총애를 받으며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거쳐 태자 태사(太師)를 역임하면서 융성기를 맞았다. 이후 그의 두 아들 민식(閔澁)은 신종(神宗)조에 형부상서를 역임했고 민공규(閔公珪)는 판병부사(判兵部事)를 거쳐 태자소보(太子小保)에 올랐는데 이 두 형제는 가문의 양대 쌍벽을 이루면서 가세를 크게 일으켰다.



문경공 민영모의 단소
충북 음성군 금성읍

민지

상서공(尙書公) 민식의 증손 민지(閔漬)는 원종(元宗)조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충렬왕과 충선왕조에 걸쳐 원(元)나라와의 대외관계를 원만히 처리하여 공을 세우면서 원나라로부터 한림직학사(翰林直學士)와, 조열대부(朝列大夫)의 벼슬을 받았다. 또한 두차례나 실패한 일본원정을 원나라가 다시 시도하려고 하면서 고려에 전함(戰艦)의 건조를 명하자 왕을 수행하여 원나라에 가서 전함의 건조를 중지케 했다. 그는 첨의정승(僉議政丞)에 이르러 벼슬에서 물러났으나 충숙왕 8년(1321) 여흥군(驪興君)에 봉해졌다. 한편 그는 문장도 탁월하여 <세대편년절요>(世代編年節要)와 <본국편년강목>(本國編年綱目)을 저술했으나 모두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그의 아들 민상정(閔祥正)은 강직한 성품으로 매사에 청렴하고 공평하여 이름이 높았고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와 찬성사(贊成事)를 역임했다. 민식의 6세손 민안부(閔安富)는 고려말 예의판서(禮儀判書)를 역임했으나 조선개국에 반대해 두문동에 은거하며 망국의 한을 달랐다.

세대편년절요

본국편년강목

민여익

그러나 민상정의 손자 민여익(閔汝翼)은 이성계(李成桂)를 도와 조선 창업에 공을 세우고 개국3등공신(開國三等功臣)에 올랐으며 태종조에 공조판서와 관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역임했으며 세종조에는 호조판서로 여천부원군(驪川府院君)에 책봉되면서 조선초에 크게 명성을 떨쳤다. 여흥군 민지의 증손 민안인(閔安仁)은 공민왕조에 삼사우윤(三司右尹)을 지냈으며 조선개국 후에도 왕명을 받들어 악기(樂器)를 정리하고 제도를 바로잡아 대례(大禮)를 완성했다.

민종유

민종유(閔宗儒)는 충렬왕조에 삼사우윤을 거쳐 밀직부사를 역임했고 충혜왕조에 대제학과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를 역임했으며 전고(典故)에 밝아 명성을 떨쳤다. 충정왕을 수행하여 원나라에 다녀온 공으로 공신에 올랐으며 첨의참리(僉議參理)를 역임한 민사평(閔思平)도 시서(詩書)를 즐기고 학문에 뛰어나 당대의 석학 이제현(李齊賢), 정자후(鄭子厚) 등과 함께 명망이 높았다.

여평군(驪平君) 민적의 손자 민제(閔齊)와 민개(閔開) 형제는 조선 초기 여흥 민씨의 가세를 크게 일으켰는데 민제는 공민왕조에 19歳の 나이로 문과에 급제했고 창왕조에 예문관 제학(藝

文館 提學)과 예조판서를 거쳐 한양부윤(漢陽府尹)에 이르렀고 조선 태조조에 정당문학(政堂文學)이 되어 여흥백(驪興伯)에 봉해졌다. 그는 특히 국구(國舅)로 잡신(雜神)을 섬기는 음사(淫祠)를 싫어하여 그가 거처하는 곳 주변에는 몽둥이를 든 하인과 개가 무당과 중을 쫓는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또한 민제는 사치와 오만을 배격하고 건강증진에 힘써 환자들에게 약을 주는 방(榜)을 전국에 보내 보건계몽 운동에 앞장섰다. 이와 같은 그의 일관된 생각으로 그의 네아들의 이름을 무구(無咎.참지승추부사 역임, 여강군), 무질(無疾.우군도총재 역임,여성군),무휼(無恤.한성윤 역임), 무회(無悔.예문관 제학 역임,여산군) 등으로 지었다.

민개는 공양왕조에 한성부윤, 대사헌을 역임했고 정도전(鄭道傳) 일파가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것을 반대했다가 그들에게 피살되기 직전에 이방원(李芳遠)의 저지로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그의 둘째 아들 민불탐(민불貪)은 세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경상도 감사, 이조참관을 역임했으며 청백리(清白吏)에 올라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민개의 손자 민신(閔伸)은 수양대군의 왕위찬탈 음모에 완강히 거부하였는데 이로인해 계유정난(癸酉靖難) 당시 현릉(顯陵)에 비(碑)를 세우는 공사를 감독하고 있다가 수양대군이 보낸 자객(刺客), 삼군진무(三軍鎭撫) 서조(徐遭)에게 다섯 아들과 함께 무참히 살해당했다.

민개

중종조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하여 호당(湖堂)에 뽑혀 사가독서(賜假讀書)를 역임했던 민제인(閔齊仁)은 이후 인종조에 위사2등공신(衛社二等功臣)에 올랐다. 그리고 명종이 어린 아이로 왕위에 오르자 수렴첨정(垂簾聽政)을 하던 문정왕후(文定王后)가 밀지를 내려 인종의 장인 윤임(尹任)과 류인숙(柳仁淑), 류관(柳灌) 등을 제거하려 했을 때 그는 윤임 일파의 처벌은 마땅하나 민심을 동요시키지 말 것을 건의했다.

민제인

이후 민기(閔箕)는 명종, 선조조의 명신으로 우의정을 역임했으며 여흥 민씨의 중흥을 주도하였다. 그는 김안국의 문인으로 중종 34년(1539)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저작(弘文館 著作)이 되고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으로 춘추관 편수관(春秋館 編修

민기

官)을 겸직하였고 <중종실록>(中宗實錄)의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이어 군기시정(軍器寺正)을 거쳐 경상도 암행어사, 동부승지(同副承旨), 공조참의, 호조참의를 거쳐 명종 6년(1551) 대사성(太司成)에 올랐다. 이듬해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이후 대사간, 대사헌, 대사성 등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한 뒤 선조 원년(1568) 우의정에 올랐다.

민순

민광훈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의 문하에서 역리(易理)를 공부했던 민순(閔純)은 주정설(主靜說)을 기반으로 생활했으며 민광훈(閔光勳)은 인조 6년(1628)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정언(正言)과 지평(持平)을 지내고 홍문관 교리(校理)와 사간(司諫)을 역임한 후 효종조에 승지,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다. 그의 아들 민정중(閔鼎重)은 송시열(宋時烈)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아 인조조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했으며 이후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한 후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역임했으나 숙종의 즉위와 함께 남인(南人)의 득세로 장흥부(長興府)에 유배되었다가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풀려나와 좌의정에 올랐다. 민광훈의 손자 민진장(閔鎭長)은 남달리 효성이 지극하여 정문(旌門)이 내려졌으며 형조와 호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이르렀다. 또한 민광훈과 그의 아들 민정중, 손자 민진장은 '삼세문장'(三世文章)으로도 크게 명성을 떨쳤다.

민광훈, 민정중, 민진장의 '삼세문장'

민진원

인현왕후의 동생인 민진원(閔鎭遠)은 숙종 17년(1691) 문과에 급제했으나 왕후의 유폐로 등용되지 못하다가 인현왕후가 복위되자 검열(檢閱)에 올랐고 이후 병조정랑과 사복시정(司僕寺正)을 거쳐 전라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이때 그는 범람하는 서원으로 인해 지방관청의 재정소모가 심하고 당쟁의 온상이 된다고 하는 상소를 올려 서원건립을 줄이게 했으며 경종조에는 공조판서로 실록청의 총재관이 되어 <숙종실록>(肅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했고 경종 4년(1724) 우의정에 이어 좌의정에 올랐다. 영조조에는 판중추부사가 되어 <가족제복론>(加足帝腹論)을 찬진했으며 이광좌(李光佐)가 이끄는 소론에 맞서 노론의 영수로서 활약하였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후 봉조하(奉朝賀)가 되었으며 문장과 글씨로도 이름을 떨쳤다.

영의정에 추증되고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에 추봉된 민치록(閔致祿)의 딸이자 조선 고종의 비(妃)인 명성왕후(明成王后)에 서부터 조선말 여흥 민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되었다. 명성왕후는 16歳の 나이로 왕비에 간택된 후 대원군(大院君)과 대립하면서 한말 격동기속에 국내외의 정치적 반항을 감내하였다. 민승호(閔升鎬) 역시 명성왕후를 도와 국정 전반에 참여하면서 여흥 민씨의 가세를 크게 일으켰고 민겸호(閔謙鎬)는 고종조에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를 역임한 후 정치제도의 개혁을 주도하였으며 선혜청 당상관(宣惠廳 堂上官)에 올라 영의정에 오른 민규호(閔奎鎬)와 함께 가문의 융성을 가져왔다.

명성황후

민겸호의 아들 민영환(閔泳煥)은 고종 14년(1877) 문과에 급제하였고 동부승지와 대사성을 지낸 후 예조, 형조, 병조판서를 거쳐 한성판윤 등 두루 요직을 역임하였으나 광무 9년(1905)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결하였다. 이외에도 민영익(閔泳翊)은 친일정권이 수립되자 상해로 망명하였으며 민종식(閔宗植)은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항일운동을 주도했다. 민강은 상해 임시정부와의 연락을 담당했고 의병장 민공호(閔肯鎬)는 강원, 충청, 경상도를 누비며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민치도(閔致道)는 대동단(大同團)에 가입한 후 사재를 털어 임시정부의 군자금을 조달했으며 민형식(閔衡植)은新民회(新民會)의 회원으로 민족운동에 참여했고 대한민국 청년단 재무부장 민제호(閔濟鎬), 중국 정부와 협의하여 무장경위대를 조직하고 항일투쟁을 벌였던 민필호(閔弼鎬) 등은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절의를 지키며 겨레와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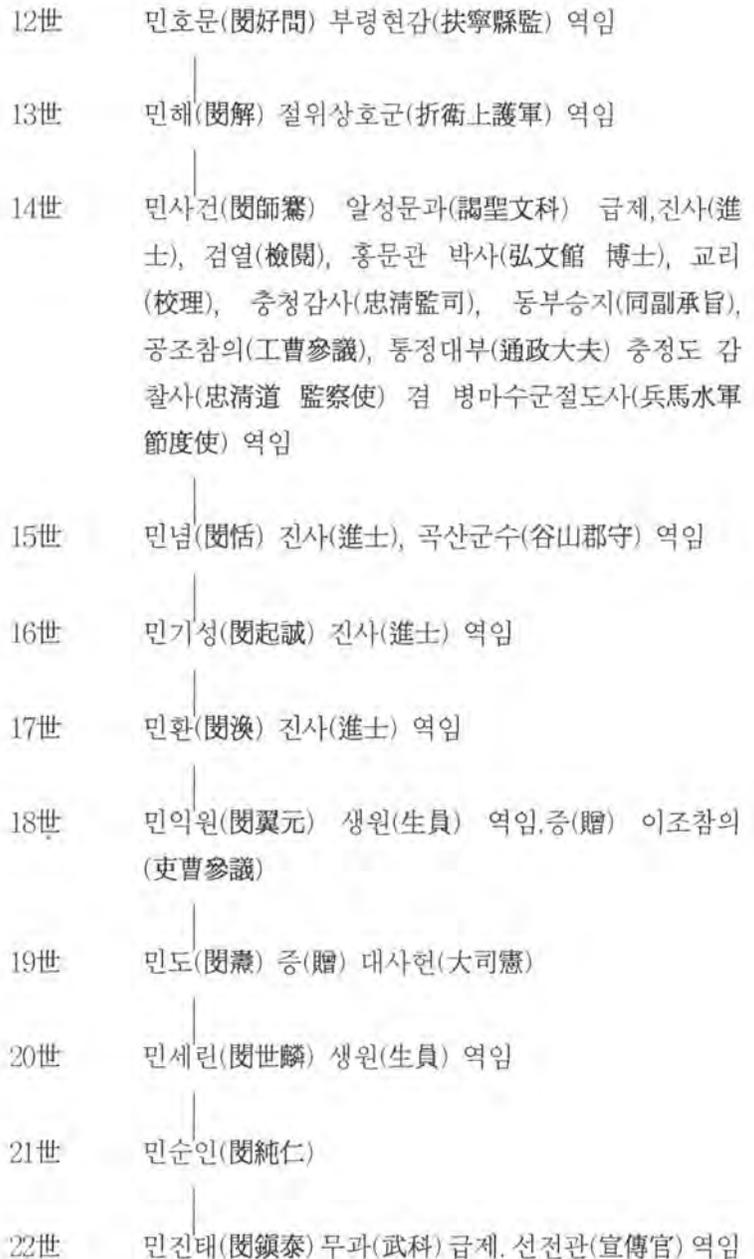
민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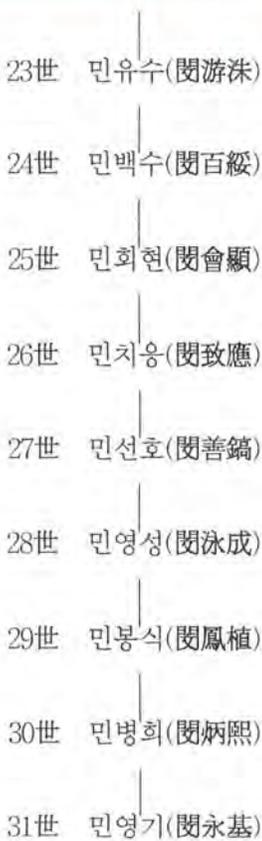
민치도

광명에서의 여흥 민씨

여흥 민씨가 광명시에 정착한 것은 13세 민해(閔解)부터이고

그 기간은 약 반세기전으로 실로 오랜 기간을 광명시에 뿌리내리고 계대(系代)를 이어왔다.그 기간동안 14세 민사건(閔師鶯)을 파조(派祖)로 하여 감사공파(監司公派)로 분파되어 후손들이 번영했는데 그 가계(家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를 주도했던 명문 여흥 민씨는 광명시에서도 가문의 번성을 누렸다. 근세에는 민병욱이 시흥농민봉기 때에 성우경과 함께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그리고 민진식은 광명시 및 시흥시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큰 활력소가 되기도 했다. 제보자는 민해식이다

여흥 민씨의 설화 및 전설

명종과 선조조의 명신으로 여흥 민씨의 중흥을 가져온 인물인 민기(閔箕)는 다섯살의 나이로 천자문(千字文)을 배울 때 진(晉),

초(楚) 두 글자를 익힐 무렵 아버지에게 묻기를 “진나라와 초나라가 있기 전에는 이 글자의 뜻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라고 하여 아버지를 당황하게 했다는 일화가 전한다.

이후 명종조에 좌의정 윤개(尹漑)가 독단적인 정치를 이끌어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그를 싫어하였다. 이때 민기는 윤개의 면전에서 “거만한 용(龍)이 후회함이 있다”라고 충고했으며 얼마후 윤개가 왕의 미움을 받아 “대신에 합당하지 않다”는 전교를 내렸을 때 민기는 “대신을 예로써 대우해야 하며 간(諫)하는 신하의 말을 받아들여 용납해야 합니다”라고 하며 본인 앞에서도 대담하게 충고하고 또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제하는데 힘써 훌륭한 인격으로 칭송을 얻었다.

민영환의 일화

여흥 민씨가 사랑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인 민영환(閔泳煥)은 광무 9년(1905)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병세(趙秉世)와 백관(百官)들을 인솔하여 궁궐에 나가 이를 반대하려 했으나 일본 헌병들의 개입으로 강제해산 당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종로 백목전도가(白木廳都家)에 모여 상소를 올릴 것을 의논했지만 이미 대세가 기울어짐을 보고 전동(典洞) 이완식(李完植)의 집에 가서 “아, 나라의 수치와 백성의 욕됨이 이에 이르렀으니…”로 시작된 유서 3통을 남기고 장렬하게 순절하였다.

그가 자결한 후 피문은 옷을 지하실에 간직하고 그 방을 봉했는데 이듬해 봄 그 자리에서 대(竹)가 솟아 올랐다. 이에 사람들은 그 대나무를 민영환의 충절을 말하는 ‘혈죽’(血竹)이라 불렀다고 한다.

광명에는 최머리마을과 뱀수마을 사이에 모세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 여흥 민씨가 제일 처음 정착했다고 한다. 모세라는 마을 이름에 관련된 전설이 전해 지고 있다.

여흥 민씨는 대대로 손이 귀했는데 마을에 연못 세 개를 파면 손이 흥한다는 말을 듣고 연못 세 개를 파서 “못이 세 개 있다”는 뜻으로 모세라 이름하였다는 전설이 전한다. 이 전설은 농경

사회에서 연못이 생산력과 직결된다는 것과 연관지어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한편 지금의 충현탑 일대는 여흥 민씨의 선산이 있던 곳인데 그 선영 중에는 감사공파의 파조 사건 공의 네 째 뼈드리인 하동 정씨의 묘도 있었다고 한다.

하동 정씨는 남편을 따라 황해도 해주에서 분가해 살다 모세로 다니러 왔다가 그만 병환을 얻어 이 곳에서 돌아가시고 말았다. 이에 황해도 해주를 그리워하며 묘를 써서 그 묘는 다른 묘소와 달리 북향묘였다고 한다.

제보자 민해식

여 백

순창설씨

순창 설씨의 유래



순창 설씨 시조비

설씨(薛氏)의 시조(始祖)는 설거백(薛居伯)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설거백은 신라 건국의 원훈(元勳)으로 당시 진한(辰韓) 땅이었던 지금의 경상북도 월성군 천북면 일대의 화산, 물천, 동산리와 안강읍 일대인 명활산 고야촌을 다스렸던 촌장이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설거백은 기원전 57년 금산가리(金山加利), 무산대수(茂山大樹), 자산진지, 돌산고허(突山高墟), 알천양산(闕川陽山) 등 다른 5부(五部)의 촌장들과 함께 알에서 태어났다는 박혁거세(朴赫居世)를 왕으로 추대하여 신라를 세웠고 서기 32년 신라 3대 유리왕조에 고야촌이 습비부(習比部)로 개칭되면서 다른 다섯 촌장들과 함께 각각 그 공적을 가려 성(姓)을 하사받았다고 한다. 이후 설거백은 법흥왕 3년(516) 무신으로 증시(贈謚)되고 무열왕조에 장무왕으로 추존되었다. 1954년부터 매년 음력 8월 17일에 경주의 유림들이 신라제(新羅祭)로 향사하고 있다.

이렇게 설거백을 시조로 받들면서 문호가 열리게 된 설씨는 한반도 동남단에 위치한 서라벌, 경주를 본관(本貫)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 왔으며 근원이 같으면서도 본관을 달리하여 경주 설씨와 순창(淳昌) 설씨로 분적(分籍)되어 계대(繼代)하고 있다. 14세손 설곡이 최초로 본관을 경주로 정했으나 36세손 설자승(薛子升)이 고려 인종조에 예부시랑(禮部侍郎)을 지내고 순화백(淳化伯. 淳化는 淳昌의 옛 지명)에 봉해진 이후 경주와 순창으로 분관(分貫)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주, 순창 설씨는 모두 같은 혈손(血孫)으로 사실상 순창 단본이며 <설씨2천년사>(薛氏二千年史)에 따르면 경주가 원적(原籍)이고 순창은 본적(本籍)으로 지칭하고 있어 결국 같은 혈족임을 밝히고 있다.

순창은 전라북도 남쪽 중앙에 위치한 지역으로 원래 백제의 도실군(道實郡)이었으나 신라 경덕왕이 순화군(淳化郡)으로 변경하였다가 고려시대에는 순창현(淳昌縣)이 되어 남원부(南原府)에 소속되었다가 충숙왕 원년 군(郡)으로 승격되어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순창 설씨의 대표적인 인물들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설씨 인물은 고승(高僧) 원효대사이다. 원효대사의 본명(本名)은 사(思), 아명(兒名)은 서당(誓幢), 호(號)는 화정(和淨)이고 법명(法名)이 원효(元曉)이다. 내마(奈麻) 설담날(薛談捺)의 아들로서 상주(경북 경산군 자인면)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신라시대 불유사상(佛儒思想)의 양대산맥을 이루었고 아들 설총과 함께 설씨가 자랑하는 인물로서 민족사에 찬란한 업적을 남겼다. 원효대사는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가 중간에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 불교의 보급에 힘쓰는 한편 문무왕의 딸 요석공주와 혼인하여 아들 설총을 낳고 파계를 선언하여 승복을 벗고 스스로 소성거사라 칭하며 참선과 저술에 힘써 한국 불교사상 가장 위대한 고승으로 추앙받고 있다.

원효대사

원효대사와 요석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빙월당(氷月堂) 설총은 신문왕조에 한림(翰林)의 벼슬을 지내면서 주로 왕의 정치에 자문 역할을 하는 한편 국학을 크게 진흥하여 '신라 10현'(新羅十賢)의 한사람으로 추앙받았으며 강수(强首), 최치원(崔致遠)과 함께 '신라 3문장'(新羅三文章)으로 일컬어졌다. 특히 그는 신문왕을 훈계하는 <화왕계>(花王戒)를 직접 지었으며 또한 중국 한문에 토를 다는 방법을 고안하여 이두(吏頭)를 창제했다고 하나 이미 선대(先代)에 이두표기가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가 창제한 것이 아니라 이두를 집대성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서 뿐만 아니라 설총은 고려 현종조에 홍유후(弘儒侯)에 봉해졌으며 분묘에 배향되었는데 이는 그가 고려의 유신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빙월당 설총

고려시대에 가문을 빛낸 인물로는 태조조에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부원군(府院君)에 책봉된 설경(薛鏡)이 있으며 29세 손 설신(薛愼)은 고종조에 추밀원사(樞密院使)로 순화백(淳化伯)에 봉해졌으며 그의 맏아들 문량공(文良公), 설공검(薛公儉)은 도병마녹사(都兵馬錄事)로서 문과에 급제하여 예부낭중(禮部郎中)이 되고 원종조에 군기감(軍器監)이 되어 원나라에 가는 세자(世子)

고려조의 인물들

충렬왕을 호종했다. 그 공으로 우부승선(右副承宣)이 되었으며 충렬왕 묘정(廟庭)에 배향되었고 순창의 무이서원(武夷書院)에 제향되었다. 설신의 둘째 아들, 설인검(薛仁儉)은 충렬왕조에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했다.

설공검의 아들 설지충(薛之冲)은 충숙왕조에 찬성사(贊成事)를 거쳐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영의정에 올랐으며 그의 아들 설봉(薛縫)은 대호군(大護軍), 병부시랑(兵部侍郎)을 역임했고 충정왕조에 대사헌에 오른 설봉의 아들 설안통(薛安統)과 함께 가문의 명예를 드높였다. 한편 충렬왕조의 명의(名醫) 설경성(薛景成)은 원나라로 가서 세조와 성종의 병을 고쳐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조선조의 인물들

조선시대에는 설위(薛緯)가 세종조에 진사(進士)로 문과에 급제하여 만경현령(萬頃縣令)을 거쳐 대사성에 이르렀으며 시(詩)와 문장(文章)으로도 이름을 떨쳤다. 설위의 맏아들 설효조(薛孝祖)는 목사(牧使)를 거쳐 호조참판을 지냈으며 둘째 아들, 문간공(文簡公) 설계조(薛繼祖)는 세종 25년(1443) 진사에 합격하였고 단종 원년(1453) 계유정란(癸酉靖難)때 사복시정(司僕寺正)으로 수양대군을 도와 정난3등공신(靖難三等功臣)으로 옥천군(玉川君)에 봉해지고 병조판서에 올랐다. 세조즉위 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일생을 마치니 성종조에 화상을 내려 시흥의 사묘(祠廟)에 봉안토록 했다.

설계조는 세조의 즉위를 도와 옥천군으로 봉해지고 성종조에 시흥의 사묘에 봉안되었다.

설우범(薛禹範)은 임진왜란때 고성현령(固城縣令) 조응도(趙癡道)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가 조응도가 전사하자 남은 병력을 수습하여 남원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다시 거제, 옥포싸움에서 전과를 올렸다. 또한 선조가 의주로 서행할 때와 한양으로 환도할 때 호위하여 선조 37년(1604)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책봉되고 이듬해 훈련원정(訓練院正)에 올랐다.

설창후

영조조의 설창후는 경종 4년(1723) 무과에 급제하여 영조 4년(1728) 이인좌(李麟佐), 정희량(鄭希亮) 등이 호서(湖西), 호남(湖南), 영남(嶺南)에서 난을 일으키자 병조판서 오명항(吳命恒)의 휘하 기사(騎士) 3백 명을 이끌고 출정하여 전주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후 분무원종공신(奮武原從功臣)으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올랐고 무과에 급제하

고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거쳐 간성 군수 겸 수군방어사를 지낸 설응정(薛應貞), 제용감판관(濟用監判官)을 역임한 설술남(薛述男) 등과 함께 가문에 영예를 더했다.

한말에는 항일 의병활동에 전념하면서 일제에 정면으로 맞선 항일 독립운동가 설육영과 기우만(奇宇萬)의 문인으로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게 되자 낙향하여 미산(巒山) 남쪽에 서재를 세우고 후진을 양성했고 창씨를 강요당하자 우물에 몸을 던져 자결했던 남파(南坡) 설진영(薛鎭永)이 고결한 절의와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시켰다.

광명에서의 순창 설씨

순창 설씨가 광명시에 정착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50년전 49세 설업(薛業)이 시초이며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 해서 이름이 붙여진 가학동에 정착했다. 이후 순창 설씨는 가학동에서 집성촌을 이루어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그 가계(家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始祖 실거백(薛居伯)
- 49세 설업(薛業) 통정대부 중추부사 역임
- 50세 설기종(薛起宗) 무과 급제
- 51세 실원달(薛元達)
- 52세 실국노(薛國老) 첨지(僉知) 역임
- 53세 설시임(薛時臨) 첨지(僉知), 중추부사(中樞府事) 역임



순창 설씨 족보



집성촌(가학동)



사당



비석

가학동에는 45세 옥천군 설계조(薛繼祖)의 사묘인 경묘제(敬墓齊)가 있는데 이는 약 300여년 전에 건립되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로 인해 건물이 훼손되어 재보수, 수리하여 현재는 새로 단장을 마친 상태이다. 시조로부터 49세손인 설업(薛業)은 가학동 노리실 부락에 처음 정착했고 이후 후손들이 이곳에서 번창했다. 한편 49세손 설맹기(薛孟基)는 조선 중종조에 옥구현감(沃溝縣監)을 역임하고 병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경기도 안산시 군자동 구죽물 마을에 정착하여 가세(家勢)를 일으켰다.

이후 일제때의 만행과 6. 25전쟁을 통해 마을은 많은 훼손을 당했으나 순창 설씨는 광명시에 정착 이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지금도 약 150여명의 회원이 있는 가학동 마을 청년회는 마을에 큰 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면 모두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60세손 설영규(薛榮奎)는 이전 시흥군 때에 1930년부터 1943년까지 서면(西面)의 면장을 역임했고 설황규(薛晃奎)는 1907년부터 1945년까지 38년 동안 가학동에 서당을 열어 후학을 키웠다. 그의 아들 설진철(薛鎭哲)은 대한전선 명예회장에 선임되기도 하였다.

순창 설씨의 설화 및 전설

아찬군 이금(伊琴)의 아들로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군 자인면에서 태어난 원효대사는 그의 모친 조씨(趙氏)가 어느날 유성(流星)이 품속에 드는 꿈을 꾸고 그를 잉태하였다고 하며 모친이 만삭이 된 몸으로 압량군(押梁郡)의 남불지촌(南佛地村) 울곡(粟谷)마을을 지나다가 사라수(娑羅樹) 아래에 이르러 갑자기 그를 낳았는데, 그때 오색구름이 땅을 뒤덮었다고 한다.

원효대사

그는 32세에 불문(佛門)에 들어가 의상(義湘)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가는 길에 배를 기다리다가 큰 비를 만나 근처 토굴로 피신하여 밤을 지새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밤 심한 갈증을 느낀 그는 마침 근처 바가지에 담겨있던 물을 맛있게 마셨다. 다음날 깨어보니 그곳은 토굴이 아니라 옛 무덤으로, 많은 해골이 주위에 널려 있었으며 간밤에 마셨던 물은 시체가 썩어 해골에 담겨있던 것이었다. 이것을 알고 급히 구역질을 하며 토하다가 그는 문득 “만사(萬事)는 생각하기에 따라 망상이 생기니, 차별하는 마음을 버린다면 토굴이나 무덤인들 어떻겠는가. 이 세상 갖가지 현상은 오직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유래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진리(眞理)요, 스승이거늘 어디가서 스승을 구한단 말인가? 마음이 생겨나야 모든 사물(事物)과 법(法)이 생겨나는 것이요, 마음이 죽으면 곧 해골이나 다름 없도다”라고 깨달아 유학의 길을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와 분황사(芬皇寺)에서 불심(佛心)을 닦으며 독자적으로 통불교(通佛敎)를 제창하여 민중(民衆)속에 불교

를 보급하기에 힘썼다.

그런던 중 하루는 마음이 들떠 거리에 나가 소리치기를 “누가 자루없는 도끼를 내게 주겠느냐, 내 하늘을 받칠 기둥을 깎으리로다”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었으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때 임금이 우연히 그 소리를 듣고 “대사가 귀부인을 얻어 슬기로운 아들을 낳고자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원효대사를 맞아들이고 요석궁에 홀로된 공주를 불러내어 서로 인연을 맺게 했다. 과연 공주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가 설총(薛聰)이었다.

스스로 파계한 원효대사는 스스로를 소성거사(小性居士)라 칭하면서 가사를 벗고 속세의 복장으로 마을을 다니다가 우연히 한 광대가 괴상한 박(瓢)을 가지고 춤과 민담을 벌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원효대사도 같은 물건을 만들어 <화엄경>의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에서 ‘무애’를 따다가 박의 이름을 짓고 <무애가>라는 노래를 지어 춤추고 노래하면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래서 이후 신라 사람들 중에서 염불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불교포교를 위한 원효대사의 노력이었다.

*제보자는 설경규(68세)씨 이다.

제보자 실재민씨(76세)

창녕성씨

창녕 성씨의 유래

<조선씨족통보>

창녕(昌寧) 성씨(成氏)는 고려조에 호장중윤(戶長中尹)을 역임한 성인보(成仁輔)를 시조(始祖)로 받들고 있다. 창녕성씨문헌지의 선세고적(先世故蹟)에 의하면 성인보의 부친은 성숙정(成叔正)이며 신라때 대관(大官)의 벼슬을 지낸 성저(成貯)의 후손으로 되는 한편 주문왕(周文王)의 아들 성숙무(成叔武)의 후예로도 기록되어 있으나 상고(詳考) 할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씨약사(成氏略史) 창녕성씨족보 계축보(癸丑譜 1493刊)에는 성원의 고보(古譜)에 고려때 호장중윤을 지낸 성인보를 시조로 기록하여 정종(正宗)으로 삼은 다음 계승하고 있다. 또한 경남 창녕군 대지면 모산리 맥산 기슭에 있는 그의 묘에는 그가 조정사(朝正使) 송경(松京, 開城)에 갔다가 그곳에서 병몰(病歿)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씨약사>

그후 창녕 성씨는 성인보의 손자 성공필(成公弼), 성한필(成漢弼) 대에 두 계파로 나누어지고 6세에 내려와 성기(成紀)를 파조(派祖)로 하는 판서공파(判書公派)를 비롯하여 13개 공파(公派)로 분파되었다. 그 분파는 성기의 판서공파, 성석린(成石麟)의 독곡공파(獨谷公派, 文景公派), 성석용(成石瑑)의 회곡공파(檜谷公派, 文肅公派), 성석연의 상곡공파(桑谷公派, 靖平公派), 성석번의 낭장공파(郎將公派), 성련(成連)의 판사공파(判事公派), 성준(成遵)의 시랑공파(侍郎公派), 성사제(成思齊)의 정절공파(貞節公派), 성태준(成台俊)의 사인공파(舍人公派), 성사준(成士俊)의 좌랑공파(佐郎公派), 성갑신(成甲臣)의 평리공파(評理公派), 성을신(成乙臣)의 검교공파(檢校公派), 성언신(成彦臣)의 지사공파(知事公派) 등이다.

이와 같이 창녕 성씨는 분파를 이루어 세계를 이어오면서 학문과 도덕의 가문으로 명성을 떨쳐 영남지방의 명문으로 알려져 왔다.

창녕 성씨의 대표적인 인물들

창녕 성씨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성인보의 현손(玄孫) 성여완(成汝完)을 꼽을 수 있다. 성여완은 공민왕 6년(1357) 문과에 급제한 후 예문관, 춘추관을 거쳐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에 올랐다. 그러나 고려의 국운이 기울자 성여완은 성부(成溥), 성사재(成思齋) 등과 함께 굳은 절개를 지켰다. 성여완은 공양왕 4년(1392) 정몽주가 살해되자 경기도 포천 왕방산(王方山)에 은거하여 조선에서 제수한 벼슬을 거부하며 끝까지 절개를 지킨 충신으로 이름이 높다. 이러한 절의는 조선조에도 이어져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삼문(成三問)을 배출하여 또한번 가문을 빛나게 했다.

성여완 이후 창녕 성씨는 조선 개국초 그의 아들 독곡(獨谷) 성석린(成石麟), 회곡(檜谷) 성석용(成石路), 상곡(桑谷) 성석연 3형제가 높은 벼슬에 오르면서 문중을 빛냈으며 이후 가문의 번성을 가져왔다. 성여완의 아들 3형제는 조선초에 창녕 성씨의 번성을 가져온 중추적 인물들로서 '삼곡'(三谷)으로 일컬어졌다.

성석린은 고려 공민왕조에 등과하여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을 세워 찬화공신(贊化功臣)에 창성군충의군(昌城郡忠義君)에 책봉되었으며 조선개국 후 정종조에 평양부윤(平壤府尹), 문하우정승(門下右政丞), 좌정승을 거쳐 태종 15년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당대 명필로도 유명했던 그의 필체는 조선 태조의 건원릉신도비문(建元陵神道碑文)에서 돋보이고 있다.

성석용은 우왕 2년 등과하여 형 성석린과 함께 이색(李穡) 등의 일파로 몰려 한때 유배되기도 했으나 조선이 개국하자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으로 책록되어 대제학에 이르렀으며 성석연도 우왕 3년 과거에 오르고 조선개국 후 예조판서를 거쳐 태종 6년에는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온 뒤 우군총제(右軍摠制), 대사헌, 우정승, 예조판서와 호조판서를 역임했다.

도총관(都摠管) 성승(成勝)의 아들인 매죽헌(梅竹軒) 성삼문은 단종복위를 도모하다가 실패하자 최후까지 유학자로서의 신념과 절의를 지켰던 명신(名臣)이었다. 일찌기 세종조에 집현전 학사

성여완



성석린 좌명공신왕지

성석린



성삼문의 묘

매죽헌 성삼문

로 '훈민정음'(訓民正音)창제에도 참가했던 성삼문은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이개(李瑄), 류성원(柳誠源), 유응부(兪應孚) 등과 더불어 단종복위를 협의하다가 탄로가 나서 그의 일문이 멸족당하는 가화(家禍)를 겪었다.

충신 성부와 성담수

성삼문과 함께 충신으로 후세에 추앙받는 인물로는 성부(成溥)와 성담수(成瞻壽)가 있다. 성부는 조선이 건국되자 개성 두문동(杜門洞)에 살면서 태조가 대사간에 임명했으나 거부하고 양주(楊州), 서산(西山)에 은거하여 조견, 남을진(南乙珍)과 함께 '유양3은'(維楊三隱)으로 일컬어졌고 성담수는 생육신으로 유명했다.

성임

성임(成任)은 성종조에 좌참찬을 거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역임했으며 율시(律詩)가 뛰어났고 글씨 또한 능하여 중국에서까지 그의 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고금(古金)의 여러 책을 편집하여 <태평통재>(太平通載)를 저술했고 <경국대전>(經國大全)과 <여지승람>(輿地勝覽)의 편찬에도 참여했으며 <오례>(五禮)를 개수하기도 했다.

성준

영의정을 지낸 성준(成俊)은 성종이 즉위하자 사간(司諫)이 되어 '시정십칠조'(時政十七條)를 올려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연산군의 실정을 바로 잡으려 영의정 한치형(韓致亨), 우의정 이극균(李克均)과 함께 '시폐십조'(時弊十條)를 주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갑자사화(甲子士禍)때 아들 성중온(成仲溫), 성경온(成景溫)과 함께 죽음을 당했다. 같은 시대에 대제학을 지낸 성현(成俔)은 학문에 뛰어나 한문학(漢文學)의 대가로 불려졌으며 청백리(淸白吏)에 책봉되었다. 성현의 아들 성세창(成世昌)도 각 판서를 두루 역임한 후 대제학에 올랐으며 글과 그림,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삼절'(三絶)이라고 일컬어졌다.

청백리 성현

이외에도 선조조에 우찬참을 역임하고 청백리에 올랐던 성세창(成世章)과 중종반정에 공을 세워 정국일등공신(靖國一等功臣)으로 창산부원군(昌山府院君)에 책봉되고 영의정에 올랐던 성희안(成希顔)이 뛰어났으며 성훈(成渾)은 유학계(儒學界)의 거목으로 문하에서 조헌(趙憲), 이귀(李貴), 정엽(鄭晔)등 훌륭한 학자들을 배출시켜 더욱 명성을 떨쳤다. 한말에 와서는 아산(牙山) 출신인 성재한(成載翰)이 의병을 일으켜 홍주성(洪州城)을 지키다가 일본

군의 기습으로 성이 함락될 때 장렬하게 전사하여 학문과 절의의 가문임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광명시에서의 창녕 성씨

창녕 성씨가 광명시 가학동에 정착한 것은 명종조인 1550년대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시기는 조선시대의 혼란기로서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당쟁으로 여러 사람들이 억울한 무고와 모함으로 생명을 잃거나 유배의 길을 떠나는 일이 많았다. 창녕 성씨도 예외일 수 없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지방으로 은둔하여 낙향하는 경우가 속출하였다.

광명시에 정착한 창녕 성씨는 성석연의 상곡공파(桑谷公派, 靖平公派)에서 분파된 묘령공파(廟令公派)의 후손들이다. 묘령공파는 병조좌랑공 성희윤(成希尹)의 둘째 아들인 성의(成誼)의 맏아들 생원공(生員公) 성춘영(成春英)이 가학동으로 낙향하여 세거하여 이후 세계가 번성하였으며 현재 노은곡 노리실에 성춘영의 묘소가 있다.그 가계(家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3世 성춘영(成春英) 생원(生員) 역임
- ┆
- 14世 성몽규(成夢奎) 군사감정(軍資監正) 역임
- ┆
- 15世 성복진(成復振) 군수(郡守) 역임
- ┆
- 16世 성권(成倦) 통덕랑(通德郎) 역임
- ┆
- 17世 성원준(成元俊) 장사랑(將仕郎) 역임
- ┆
- 18世 성도겸(成道謙) 진사(進士) 역임



창녕 성씨 묘령공파보

광명에는 묘령공파의 후손들이 정착했다.

19世	성기하(成起夏)
20世	성취인(成就仁)
21世	성봉조(成鳳祚)
22世	성식(成植)
23世	성윤묵(成允默)
24世	성낙의(成樂義)
25世	성우경(成祐慶)
26世	성기병(成者秉)
27世	성건용(成建鏞)
28世	성희수(成喜洙)
29世	성교식(成敎植)

성몽규와 공석골

가학동에 정착한 후 두각을 나타낸 인물을 살펴보면 14세손 자정공(資正公) 성몽규(成夢奎)의 자(字)는 문서(文瑞)이고 문과에 급제하여 군자감정(軍資監正)을 거쳐 통정대부(通正大夫),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 겸 경연(經筵) 참찬관과 춘추관, 수찬관을 역임했다. 배위(配位)는 고령 신씨(高靈 申氏)이시고 묘는 가학동 노리실에 있다. 성몽규가 군자감정으로 공석골 천산록(千山麓)에 창고를 짓고 나라에 바치는 공물(貢物)과 세금 및 군수물자를 받아서 저장, 보관하여 출납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공세동(貢稅洞)을 공석골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성몽규의 맏아들 군수공(郡守公) 성복진(成復振)의 자(字)는 대립(大立)이며 초휘(初諱)는 재진(再振)이다. 음사(蔭仕)로 수안군수(遂安郡守)를 역임했고 묘소는 가학동 노리실에 있다고 전하나 실전되었다.

통덕랑공(通德郎公) 성권의 자(字)는 사근(士勤)이고 정5품 통덕랑(通德郎)을 역임했다. 배위는 백천 조씨(白川 趙氏)이고 묘는 가학동 노리실 안터골에 있다.

성향은 숙종조에 통정대부를 역임했다. 묘는 경주 창암(倉岩, 현재 경북 영일군 지행면 신창리)에 있는데 성향은 세거지를 경주 창암으로 옮겨서 묘령공파의 소종중(小宗中)으로 분파되어 계대를 이어나갔다.

성향

성권의 아들인 장사랑공(將仕郎公) 성원준(成元俊)의 자(字)는 문백(文伯)이고 음사로 문과에 올라 통정대부, 행승정원좌승지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이조판서, 사간원 대사간을 역임했다. 배위는 한산 이씨(韓山 李氏)이고 묘는 실전되어 선영에 설단한 것을 1984년 비(碑)를 다시 세웠다.

장사랑공 성원준

성원준의 맏아들 진사공(進士公) 성도겸(成道謙)의 자(字)는 명보(明甫)이고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장사랑(將仕郎) 행공릉참봉(行恭陵參奉)을 역임했고 배위는 전주 이씨(全州 李氏)이다. 묘는 가학동 뒷골에 있다.

진사공 성도겸

성도겸의 맏아들 종사랑공(從仕郎公) 성기하(成起夏)의 자(字)는 중여(中汝)이다. 음사로 종사랑(從仕郎) 행참봉을 지냈으며 배위는 나주 박씨(羅州 朴氏)이다. 묘는 가학동 공석골 천산록(千山麓)에 있다고 전하나 실전되어 설단(設壇) 봉향(奉香)하며 1984년 개수봉단(改壘封壇)하였다.

종사랑공 성기하

순조 27년(1827) 태어난 성종영(成鍾永)의 자(字)는 중량, 호는 서은이다. 성복영의 증손이자 홍문과 교리 성우규의 아들로 태어난 성종영은 고종 2년(1875)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고종 11년(1884) 돈녕부 도정(敦寧府 都正)을 역임했다.

집강공(執綱公) 성우경(成祐慶)의 자(字)는 치영(致英)이다. 광무 2년(1898), 광무 8년(1904) 두차례의 시흥군민요사건(始興郡民擾事件)을 주도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광무 11년

시흥농민봉기의 주모자 성우경

(1907) 순종 즉위와 천추경절(千秋慶節)의 국경일(2월 27일)에 특사령으로 석방된 후 항일운동에 전념했다. 배위는 선산 김씨(善山 金氏)이고 묘는 공세동 천산남록(千山南麓) 선영에 있다.



성하경의 과거급제 통지서 및 교지

성기하의 둘째 아들인 승지공(承旨公) 성하경(成夏慶)의 초명(初名)은 태경(泰慶)이고 호는 서암(書巖)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통정대부, 돈령부도정에 초배(初拜)되었고 승지에 올라 입궐할 때는 역마(驛馬)를 타는 특혜를 받았다. 배위는 평양 조씨(平壤 趙氏)이고 묘는 가학동 서독산(書讀山) 아래 원두곡에 있다.

창녕 성씨의 설화 및 전설

성인보

창녕 성씨의 시조(始祖)인 성인보의 묘(墓)에 대하여 전하는 일화가 있다. 성인보는 창녕지방의 호장중윤을 지냈는데 어느해 정월 조정사(朝正使)로 송경(松京)에 갔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아들 송국(松國, 侍中)이 몸소 시신(屍身)을 지고 천리길 청산원(靑山院)에 이르렀는데 해가 저물어 청산원 밖에서 가숙(假宿, 옷을 벗지 않고 자는것)하였다. 그날밤 갑자기 큰 눈이 내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범(虎)의 발자국이 시신 밑에서부터 앞산으로 향해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발자국을 따라 찾아 갔더니 지포의 뒤 북쪽 산머리에 이르러 자국이 멈췄으며 그곳에 만은 쌍인 눈이 녹아 넓이가 자리를 깔 만하였다. 인하여 이곳에 안장(安葬)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과연 과거에 급제하여 크게 귀히 되었으며 자손(子孫)들이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니 사람들은 효성(孝誠)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 하였으며 맥산(麥山)이라 이름한다.

성삼문의

사육신으로 절의를 지켰던 성삼문에 관련된 일화가 있다. 그의 이름이 '삼문'(三間)인 것은 그의 탄생때의 일에서 비롯되었

다 한다. 성삼문은 홍주(洪州, 지금의 충남 홍성)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낳았느냐?”라고 묻는 소리가 세번 났기 때문에 이름을 ‘삼문’이라 지었다고 한다.

이후 성장하여 세종조에 집현전 학사가 되어 훈민정음 창제에도 참여했던 그는 세조가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자 옥새를 안고 통곡하기도 했다. 그리고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응부, 류성원 등과 더불어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탄로가 나고 말았다.

세조앞에 끌려온 성삼문에게 왕은 “나의 녹(祿)을 먹은 자가 어찌 반역을 꾸밈느냐?”라고 소리쳤다. 이에 대하여 성삼문은 “나오리가 준 녹(祿)은 하나도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결국 성삼문은 형장에서 죽음을 맞았고 그가 죽은 뒤 세조가 성삼문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 버렸다. 관원들이 그의 집에 도착해서 살펴보니 성삼문의 집에는 세조가 즉위한 뒤 받은 녹(祿)은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 별실에 쌓여 있었고 그의 방에는 허름한 거적만 깔려 있었다고 한다.

성삼문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 5, 6세된 딸이 울면서 그가 탄 수레를 따라 왔다. 이에 성삼문이 돌아다 보며 “아들은 다 죽을 것이지만 너는 딸이니까 살 것이다”라고 달랬다. 이때 그의 여종이 울며 술을 올리니 성삼문이 구부러서 마시고 시를 지었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제보자 : 성추, 성동수

임이 주신 밥을 먹고, 임이 주신 옷을 입었으니
 일평생 한 마음이 이길 줄 있었으랴
 한 번 죽음이 충의인 줄 알았으니
 현릉의 송백이 꿈속에 아른아른
 食人之食衣人衣
 所一平生莫有違
 一死固知忠義在
 顯陵松柏夢依依

성삼문의 시

여 백

고령신씨

고령 신씨의 유래



시조의 묘

고령(高靈) 신씨(申氏)의 시조(始祖) 신성용(申成用)은 고려 고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을 역임했다. 신성용의 선계(先系)는 신라의 공족(公族)으로서 고려 태조가 호장(戶長)에 임명한 관례에 따라 여러 대에 걸쳐 고령에 세거하면서 호장을 지낸 향리 출신이다.

<어성보>(漁城譜) 서문(序文)에 따르면 고령 신씨는 고려시대에 들어와 크게 번창했고 신라 이래의 지방호족으로 권세를 누렸지만 시조 신성용이 문과에 급제하여 중앙에 진출하면서 현족(顯族)으로 기반을 확고히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세거지(世居地)로서 고령에서 발원했다고 하는 것은 신성용 이전에도 신씨는 고령지방의 토착세력이었음을 추측케 한다.

더구나 고령은 옛 대가야국(大伽倻國)의 중심지였으며 대가야국에서 16대 520년 간을 지배해오다가 신라 진흥왕때 신라로 병합되었고 이후 경덕왕 16년(757)에 고양군(高陽郡)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접어들어 현종 9년(1018) 영천현(靈川縣)이 되어 경산부(京山府, 현재의 星州)에 속했고 조선시대에는 태종(太宗)조에 고양군의 '고'(高)와 영천현의 '영'(靈)을 따서 고령현(高靈縣)이라 했다. 이후 고종 32년(1895) 성주(星州)의 9면(面)과 현풍(玄風)의 3면(面)을 병합하여 고령군(高靈郡)이 되었다.

고령 신씨의 분파는 7세손 신장(申槩), 신평(申秤), 신제(申梯)가 각각 엄현공파, 정은공파(靜隱公派), 감찰공파(監察公派)등 3파로 나뉘어지고 이들의 아들대에 다시 분파가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3대조에 신인재(申仁材), 신인기(申仁杞) 형제가 있었는데 신인재의 자손은 변성하였고 신인기의 후손은 시중공파(侍中公派)로 분파된다.

엄현공파의 분파

엄현공파는 엄현공의 다섯 아들 신맹주(申孟舟), 신중주(申仲舟), 신숙주(申叔舟), 신송주(申松舟), 신말주(申末舟)의 후손이 각각 서윤공파(庶尹公派), 순창공파(淳昌公派), 문충공파(文忠公派), 안동공파(安東公派), 귀래정공파(歸來亭公派)로 분파되고 정은공파

는 정은공의 세 아들 신맹정(申孟艇), 신중정(申仲艇), 신숙정(申叔艇)의 후손이 생원공파(生員公派), 통덕랑공파(通德郎公派), 성오재공파(省悟齋公派)로 나누어졌으며 감찰공파는 감찰공의 네 아들 신자교(申子橋), 신자강, 신자동(申子棟), 신자정(申子楨)의 후손이 각각 사간공파(司諫公派), 인천공파(仁川公派), 사정공파(司正公派), 학생공파(學生公派)로 나누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씨족통보>에서 신씨의 본관은 171본(本)까지 기록되어 있으나 평산(平山), 고령, 아주(鷓洲)를 제외한 나머지 관향(貫鄉)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중 평산 신씨와 고령 신씨가 대종(大種)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역사상 기문을 빛낸 인물들도 이 두 본(本)의 후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령 신씨는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대를 잇는 역사의 흐름 속에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여 전통적인 명문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정은공파의 분파

감찰공파의 분파

고령 신씨의 대표적인 인물들

고령 신씨는 시조의 현손(玄孫)대 신덕린(申德麟)이 고려말에 두루 청환직(淸宦職)을 역임하고 우왕조에 시학(侍學), 좌사의대부를 거쳐 예조판서에 이르렀고 정몽주(鄭夢周), 이색(李穡)등과 학행(學行)을 같이 했으나 조선이 건국하자 관직을 버리고 아들 신포시(申包翹)와 함께 두류산, 서석산 등으로 은거하여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켰다. 글씨에 뛰어났던 신덕린은 특히 팔분체(八分體)에 능하여 '덕린체'라 일컬어졌을 정도였고 <해동필첩>(海東筆帖)에도 명필로 기록되어 있다.

신덕린의 아들 신포시는 고려시대에 공조참의를 역임했으나 부친과 더불어 절의를 지켰으며 역시 글씨에 능하여 필명을 떨쳤다. 신덕린의 아들 3형제 또한 모두 현달하여 고령 신씨의 3대 산맥을 이루었는데 맏아들 신장(申樞)은 태종조에 문과에 급

신덕린

신포시와 아들 3형제



신숙주 영정

제하여 직제학(直提學), 부제학(副提學)을 거쳐 세종조에도 오랫동안 대제학을 역임하며 <태종실록>(太宗實錄)을 편찬하는 등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또한 유학에 조예가 깊고 글씨에도 능하여 남대문 문액(門額)인 승례문의 필체는 국보급이다. 둘째 아들 신평(申枰)은 세종조에 춘장문과(春場文科)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正言)을 역임하였고 막내 신제(申梯)는 사헌부 감찰(監察)에 이르렀다.

세조의 공신으로 영상에까지 오른 신숙주를 중심으로 신장의 아들 5형제는 고려 신씨의 가세를 크게 떨쳤다. 신맹주, 신경주, 신숙주, 신송주, 신말주 5형제는 모두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아가 그들의 후손에서 삼정승(三政丞), 삼문형(三文衡. 文衡은 대제학의 별칭)을 비롯한 91명의 대과 급제자를 배출했다.

신숙주는 세종조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게 했던 주역의 한 사람으로 조선의 국토를 늘리는 북관정책에 명외고관으로 활약하여 훌륭한 업적을 남겼으며 6대 왕조를 받들면서 영의정에까지 올라 조선의 기반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 신말주는 단종 2년(1453)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고 이듬해 세조가 즉위하자 원종이등공신(原從二等功臣)에 올랐으나 관직을 버리고 은거하다가 성종조에 전주부윤(全州府尹),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거쳐 충청도수군절도사를 역임했다.

신숙주의 9형제 중 신면은 도승지로서 함길도관찰사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이시애(李施愛)의 난 때 난적들과 싸우다 전사했고 신준(申浚)은 성종 2년(1470)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이듬해 좌리4등공신(佐理四等功臣)에 책봉된 뒤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쳐 고양부원군(高陽府院君)에 진봉(進封)되었다.

신용개(申用溉)는 성종 19년 문과에 급제하고 수찬, 응교를 지냈지만 연산군 4년(1487) 무오사화때 김종직(金宗直)의 문인(門人)이라는 혐의로 투옥되었다가 곧 풀려났으나 너무 강직한 성품이 연산군의 비위에 거슬려 갑자사화때 영광으로 유배되었다. 그후 중종반정으로 다시 등용되어 우의정, 좌의정에 이르렀다. 특히 그는 효행이 뛰어나고 집념이 강하기로 유명했다. 신공제(申公濟)는 연산군 원년(1494)문과에 급제하고 창원부사를 거쳐



신숙주의 필적

이조판서에 올라 정조사(正朝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오기 했다.

대제학을 역임한 영광한(申光漢)은 기묘사화로 삭직되었다가 다시 등용되어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을 겸했다. 또 우찬성으로 양관대제학을 겸임하기도 했다. 명종 6년(1550) 좌찬성에 올라 궤장(機杖)을 하사받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며 문장과 글씨에도 뛰어났다.

영조조의 석북(石北) 영광수(申光洙)는 백거이(白居易)에 비교되었던 시인(詩人)으로 그의 저작(著作) <관산용마>(關山戎馬)는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영광수의 아우 영광연(申光淵), 영광하(申光河)와 여동생 부용당(芙蓉堂)도 문장에 뛰어나 4남매 시인으로 유명했다.

한편 풍속화로 유명한 혜원(蕙園) 신윤복(申潤福)은 화원(畫員)으로서 관직이 첨정에 이르렀으며 양반 문인화가들의 틀을 벗어나 시정촌락의 모습, 무속, 기녀, 주점 등 일상적인 풍속도(風俗圖)를 많이 그려서 조선후기 사회의 생생한 풍속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영조 30년(1754) 과거에 급제하여 낭관(郎官), 장령(掌令)등을 거쳐 강계, 순천부사, 제주목사를 지낸 신경준(申景濬)은 학문이 뛰어나고 지식이 해박하며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고증학적 방법으로 지리학을 개척하여 <문헌비고>(文獻備考)를 편찬할 때 '여지고'(輿地考)를 담당하였고 팔도지도(八道地圖),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를 완성했다.

한말에 와서 고령 신씨는 절의(節義)의 가통(家統)을 이어 가문의 영예를 더욱 휘날렸다. 신규식(申奎植)은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지던 날 음독자결을 기도했으나 미수에 그쳐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독으로 인상이 이그러져 '눈흘겨 보는 사람'이란 뜻으로 예관이란 별호(別號)가 붙게 되었고 이후 '흘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의 詩'란 뜻인 <아목루>(兒目淚)란 시문집을 남겼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한 자강협회(自彊協會), 대한협회(大韓協會)에 가입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1911年 중국으로 망명하여 손문(孫文)의 신해혁명(辛亥革命)에 참가하고 한·일 연합단체인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를 조직, 우리나라



신윤복의 미인도

신규식의 독립운동

광명 운동가를 지원하는데 앞장 섰으며 신생 중화민국 광둥정부(廣東政府)에 대사로 파견되어 손문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북벌서사식(北伐誓詞式)에 참가했다가 임시정부의 분열상을 보고 조국의 앞날을 근심하며 25일간 단식하다가 끝내 순절하였다.

단체 신채호

신채호(申采浩)는 순수한 민족주의적 사관(史觀)으로 당시의 식민주의적 학설을 배격하여 올바른 우리의 역사를 정립하였다. 역사가이자 언론인이며 독립운동가로서 그는 항일 독립운동의 이념적인 지도자로서 선구적인 역할을 주도했다. 신홍식(申洪植)은 민족대표 33人 중 한사람으로 일제 침략에서 받은 민족적 굴욕을 신앙과 독립운동으로 승화시켜 인천, 원주 등지에서 종교운동과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신백우(申伯雨)는 만주에서 대동청년단에 가입하여 이청천(李靑天), 이시영(李始榮), 윤덕병(尹德柄) 등과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이동녕(李東寧)등과 함께 이완용(李完用)의 집을 습격했던 신황(申滉)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절의의 가문인 고령 신씨를 더욱 빛나게 했다.

신홍식

신백우와 신황

광명시에서의 고령 신씨

고령 신씨가 광명시에 정착한 것은 세조 이후 문충공 신숙주의 손자, 절충장군으로 충주부사를 지낸 10세손 신종흡(申從洽)의 묘를 광명 7동으로 옮겨 오면서부터이다. 신종흡의 묘소는 1982年 11月 30日에 도굴당해 새로 만들었다고 한다. 광명시에 정착한 고령 신씨는 문충공파에서 다시 분파한 봉례공파의 후손들로서 현재 15대를 이어오고 있다. 그 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世 신종흡(申從洽) 첨정(僉正) 역임, 원훈적손(元勳嫡孫)으로, 특히 참녕부(參寧府) 첨정(僉政) 절위장군(折衛將軍)

을 제수

- 11世 신임(申濂) 사마시에 급제. 이천부사(利川府使) 역임
- 12世 신수명(申秀溟) 사마시(司馬試)에 급제. 아산현감(牙山縣監),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 오위도총부총관(五衛都摠府摠管), 통정대부(通政大夫) 역임. 증(贈) 참판(參判)
- 13世 신요(申橈)
- 14世 신광추(申光樞)
- 15世 신민(申彬)
- 16世 신유권(申有權)
- 17世 신백(申栢)
- 18世 신복원(申復源)
- 19世 신흥권(申亨權)
- 20世 신헌록(申學祿)
- 21世 신헌모(申恒模)
- 22世 신흥구(申鳳求)
- 23世 신흥휴(申永休)
- 24世 신흥우(申天雨)

25世 신봉식(申鳳植)

매년 10월9일에
시제를 지냄

시제는 음력 10월 15일에 드렸으나 한글창제를 기념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지금은 10월 9일날 드리고 있다.

고령 신씨의 설화 및 전설

신숙주

세종대왕을 도와 훈민정음 창제에 큰 공을 세우고 조선의 기반을 확고히 했던 신숙주(申叔舟)는 일찌기 젊었을 때 성삼문(成三問), 박팽년(朴彭年)을 비롯한 중신들과 더불어 문종으로부터 어린 단종을 잘 보살펴 달라는 유언을 들었다. 그러나 신숙주는 수양대군을 도와 단종을 내쫓는 일에 가담하여, 죽음을 불사하는 문우들의 절의(節義)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59세에 임종을 맞아 탄식하며 말하기를 "인생이란 마침내 이에 그치고 마는가?"라고 하였으니 이런 말은 지난일을 후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동악부>(海東樂府)에 기록되어 있다.

<해동악부>

또한 왕위에 등극한 세조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신숙주를 달래주기 위하여 어느날 술자리를 마련했다. 그 자리에는 새로 우의정에 발탁된 구치관(具致寬)도 동석(同席)시켰다. 이때 세조가 주위를 둘러보며 "오늘 내가 경들에게 질문을 던질테니 잘못 대답하면 벌을 내리겠노라"라고 말하고 나서 "신정승"하고 부르자 신숙주가 이에 대답했다.

그러자 세조는 "신(新)정승을 불렀는데 경이 대답을 잘못 했도다"하고는 커다란 잔으로 벌주를 내렸다. 그리고는 다시 "구정승"하고 부르니 신숙주는 구(舊)정승을 부르는 줄 알고 또 대답했다. 이에 세조는 구치관을 불렀다하여 다시 신숙주에게 벌주를 내렸다.

신숙주가 잔을 내려놓자 또 세조가 "신정승"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번에는 신숙주와 구치관이 모두 대답하자 세조는 한 사

람을 불렀는데 두사람이 모두 대답한다고 해서 두사람에게 별주를 내렸다.

그뒤 세조가 다시 "구정승"하고 부르니 신숙주와 구치관이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에 세조는 임금이 부르는데 신하가 대답을 하지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며 또 별주를 내렸고 신숙주가 취한 것을 보고 세조는 크게 웃었다고 한다.

문장(文章)과 시(詩)로 명망이 높았던 신숙주의 손자 신중호의 아들 신항(申沆)은 성종의 딸 혜숙옹주와 혼인하여 고원위(高原尉)에 봉해지고 연산군조에 부총관을 지냈다.

신항

일찌기 성종이 신항을 사위감으로 정해버리자 신하들은 신항의 사주(四柱)가 일찍 죽을 수(壽)라고 하여 성종의 뜻을 재고해 줄 것을 주청하였다. 그러나 성종은 "사람을 취할 때 사주의 운수(壽)로 취할 것이 아니라 그사람의 어짐(賢)으로 하는 것이 나의 신조다"라고 일축해 버렸다.

그러나 성종을 이어 연산군이 즉위하자 같은 부마(駙馬)인 임승재(任崇載)의 시기와 모함으로 중종반정(中宗反政) 직후에 죽음을 당하니 그의 나이 30세였다.

관찰사 신면의 아들 신용개(申用溉)는 연산군의 비위를 거슬러 유배당하기도 했지만 중종반정 이후 등용되어 여러 주요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좌의정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그는 효심이 깊으며 집념이 강하기로 유명했는데 이에 관계된 일화가 있다.

신용개

신용개가 어렸을 때 부친 신면이 함길도관찰사로 제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일어나자 부친 신면은 곡루(曲樓)밑에 숨어 있었다. 난적(亂賊)들이 신면을 잡으려 했으나 결국 찾지 못하여 돌아갈 때 아전(衙前) 하나가 그의 숨은 곳을 그들에게 알려주어 마침내 신면은 화를 당하고 말았다.

신용개는 성장하여 반드시 원수를 갚을 것임을 홍유손(洪裕孫)과 약속하고 여러번 함길도로 가서 그 아전의 이름과 얼굴을 익혀 두었다.

그러던 어느날 마침 그 아전이 일이 있어 한양에 나오게 되었

다. 당시 사인(舍人)으로 재직하고 있던 신용개는 이 사실을 알고 홍유손과 함께 어둠을 틈타서 그 아전이 묵고 있는 집으로 갔다. 홍유손은 관청일로 얘기하는 것처럼 유인하여 그 아전을 끌어냈고 신용개는 준비해간 도끼로 부친의 원수를 갚았다.

이후 의금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여 신용개가 범인인 줄 알았으나 그의 효행과 아전의 악한 소행을 듣고는 신용개의 일을 묵인하여 다시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보자 신천우씨(69세)

청 송 심 씨

청송 심씨의 유래

청송(靑松) 심씨(沈氏)의 시조(始祖)는 고려 충렬왕 때 문림랑(文林郎)으로 위위시승(衛尉寺丞)을 지낸 심홍부(沈洪孚)이다. 심홍부의 자(字)는 홍일(洪一)이며 궁중관계의 의식용인 물건을 맡아 보던 관청의 종 6 품 벼슬을 지냈다.

이후 심홍부의 증손(曾孫) 심덕부(沈德符)는 고려 충숙왕 때 소부윤(少府尹)을 거쳐 공민왕 때 판위위시사(判衛尉寺事)를 역임한 후 우왕 4년(1378)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에 올라 수차례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여 공을 세웠다. 이에 우왕은 심덕부를 안사공신(安社功臣)으로 청성부원군(靑城府院君)에 봉했다가 청성(靑城, 靑松의 옛 지명) 충의백(忠義伯)으로 승진시켰다. 그후 심덕부는 태조 이성계(李成桂)를 도와 조선 창업의 공을 세우고 청성백에 봉해졌으며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와 영삼사사(領三司事)를 거쳐 정종 즉위년에 좌의정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청송을 본관으로 하게 되었는데 청송은 경상북도 중부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래 고구려의 청기현(靑己縣)에 속했던 곳으로 신라때에는 적선(積善)으로 변경하여 야성군(野城郡)에 속했다가 고려 초에 부이현(杼伊縣)이 되고 다시 운봉(雲鳳)으로 개칭되어 예주(禮州, 영해)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 태조때 진보현(眞寶縣)에 흡수되었다가 세조 원년(1419) 청보군(靑寶郡)으로 승격되었으나 다시 진보와 분리, 송생현(松生縣)과 합하여 청송으로 개칭되었고 이후 청송부(靑松府)로 승격하였다가 고종 32년(1895) 청송군(靑松郡)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송을 본향으로 청송 심씨는 세계(世系)를 이어오면서 조선시대에서도 세도가문으로 명성을 떨쳤다. 청송 심씨는 심덕부의 아들 7형제에서 분파(分派)가 되어 도총제공 인봉파(都摠制公 仁鳳派), 판사공 의구파(判事公 義龜派), 지성주사공 계년파(知成州事公 繼年派), 인수부윤 공징파(仁壽府尹 公澄派), 안효공 은파(安孝公 溫派), 청원군 종파(靑原公 淙派), 동지총공 청파로 나뉘며 이들 7파의 자손이 크게 번창하여 가문의 영화를 누렸다.



청송 심씨의 대동보

청송 심씨는 심덕부의 아들 7형제에서 분파되었다.

청송 심씨의 대표적인 인물들

심덕부의 아우 심원부(沈元符)는 고려 말에 여러 관직을 거쳐 전리판서(典理判書)를 역임했으나 고려의 국운이 다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새 왕조의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절의를 지켰으며 후손들도 그의 유훈(遺訓)을 받들어 '선훈불사'(先訓不仕)라 하여 대대로 벼슬에 연연하지 않았다.

심원부의 총절

청송 심씨는 조선의 개국을 시작으로 명문벌족(名門伐族)으로서 지위를 굳혔는데 심덕부의 아들 7형제에 의하여 가세가 크게 융성하였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인수부윤공파의 심징(沈澄)과 안효공파의 심온(沈溫)을 꼽을 수 있다.

세종의 장인으로 국구(國舅)였던 심온은 태종이 세종에게 선위(禪位)한 뒤 병권(兵權)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때 심온의 막내 아우인 심청이 병조판서 박습(朴習)에게 군국의 대사를 선왕(太宗)이 좌우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평한 것이 태종의 귀에 들어가 옥사가 일어났다. 평소에 심온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던 좌의정 박은의 모함에 의해, 심온은 영의정으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의주에서 체포되어 한양에 압송된 후 수원에서 사사(賜死)되었다.

심온의 옥사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된 심온은 “내 자손들은 대대로 박씨와 혼인하지 말라”(吾子孫世世勿與朴氏相婚也)고 유언하였고 자손들도 이 유언을 지켜 박씨와 혼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심온의 현손(玄孫) 심의와 심음이 박씨와 혼인했으나 아들이 없거나 자손이 융성하지 못했다고 한다.

심온의 아들 심종은 태조의 부마(駙馬)로 청원군(靑原君)에 봉해졌고 심온의 둘째 아들 심희(沈澮)는 세조조에 영의정을 역임하여 부자(父子) 영상(領相)의 영예를 누렸으며 예종조에 익대이등공신(翼戴二等功臣)으로 청송군(靑松君)에 봉해졌고 성종조에는 좌리이등공신(佐理二等功臣)으로 청송부원군(靑松府院君)에 진봉되었다.

심종, 심희

심선(沈璿)은 세조조에 중 4 품 벼슬인 부호군(副護君)을 지내

심선

고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에 추증되었다. 심선의 맏아들인 심안인(沈安仁)은 병조참관에 추증되어 세종의 부마인 심안의(沈安義)와 함께 가문의 지위를 높였다.

심연원

심희의 아들 3형제 중 판관을 역임한 막내 심원(沈潑)의 아들 심순문(沈順門)은 장령(掌令)으로 연산군의 어의(禦衣)의 크기에 대하여 논한 것이 화근이 되어 갑자사화(甲子士禍)때 개령(開寧)으로 유배되었다가 참형을 당했다. 심순문의 아들 심연원(沈漣源)은 어려서 김안국(金安國)의 문하에서 글을 배워 일찌기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에 재직중에 <인종실록>(仁宗實錄) 편찬에 참여했으며 명종조에 영의정에 올랐다. 심연원은 부친 심순문이 군기시(軍器寺) 앞길에서 참형을 당했으므로 일생동안 그 앞을 지나지 않았다고 하며 항상 왕실의 외척임을 경계하여 그의 손자들을 모두 '겸'(謙)자 돌림으로 지었다고 한다. 심연원의 아우 심통원(沈通源)은 명종 13년(1558)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에 진봉되었으며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을 역임하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심강과 심의겸

명종의 국구인 심강(沈綱)은 명종비(妃)인 인순왕후의 부친으로 활인서별좌(活人署別坐)를 거쳐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 겸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권귀(權貴) 속에서도 가풍을 지켜 신진사류로서 화를 당하려던 박순(朴淳)등을 아들 심의겸과 함께 구하고 권신 이양(李樾)을 제거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그의 둘째 아들인 심의겸(沈義謙)은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선조조에 동, 서 분당의 발단을 이루었고 서인(西人)의 거두로서 선조조에 좌부승지, 대사간, 이조참의를 지내는 동안 사림의 명망이 높았다. 심의겸은 왕실의 외척으로서 신진세력을 대표하는 이조정랑 김효원(金孝元)과 대립하여 당시 격렬한 당쟁 발생의 장본인이 되었으나 원래는 봉당(朋黨)형성을 꺼려했던 강직한 인물이어서 명종조에 그의 외숙인 이양(李樾)이 사화를 일으키려할 때 미리 이를 적극적으로 막았다.

심희수

심희수(沈喜壽)는 선조말에 이조판서와 양관대제학, 좌·우찬성(左右贊成)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으며 광해군이 즉위한 후

권신 이이첨(李爾瞻)의 전횡이 심해지자 병을 핑계로 사직하려 했으나 허락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의정에 임명되어 광해군 6년(1614)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신원을 상소했다가 사형을 당하게 된 정온을 죽음에서 구하여 유배에 그치게 하는 등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특히 그는 재상의 벼슬을 지내면서도 청빈하게 생활하였고 만년에 둔지산에 들어가 시(詩)를 지으며 여생을 보냈다.

심열(沈悅)은 문장(文章)에 능하고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경제에 능한 정치가로 명망이 높았으며 인조조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을 거쳐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올랐으며 목사 심우정(沈友正)의 아들인 심집은 인조조에 형조판서를 역임했다. 심기원(沈器遠)은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정사1등공신(靖社一等功臣)으로 청원부원군(靑原府院君)에 봉해졌으며 병자호란때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 한양방어에 공을 세우고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올랐다. 심환지(沈煥之) 역시 정조조에 좌의정에 올랐고 예조참판 심엄조(沈念祖)의 아들 심상규(沈象奎)는 정조조에 알성문과(諳聖文科)에 급제하여 정조의 시문(詩文), 율음, 교지등을 수록한 <홍재전서>(弘齋全書) 편찬에 참여하였고 순조조에 영의정에 올라 세손의 사부를 역임한 후 헌종이 즉위하자 임금으로서 지켜야 할 6조목(六條目)大本(大本)을 찬진(撰進)했다. 특히 그는 문장에 능하고 필법이 뛰어나 당시의 1인자로 손꼽혔으며 일만여권의 책을 수집한 장서가(藏書家)로도 알려졌다.

그밖의 인물로는 임진왜란때 용맹을 떨쳤던 심우정(沈友正)의 아들 심현이 인조조에 여러 군현의 수령을 지내고 돈령부 도정에 이르러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로 피란가서 청나라 병력이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묘의 위패를 땅에 묻은 후 국난(國亂)의 비운을 통탄하는 유소(遺疏)를 쓰고 부부가 함께 자결했다.

청송 심씨의 명성은 한말(韓末)에도 이어져 심상익(沈相翊)은 전라도 관찰사를 거쳐 내무협판을 역임했다. 그는 갑오경장 이후 신문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제국신문 발간에도 공헌을 했다. 심수택(沈守澤)은 광무 9년(1905)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의병을 모아 융희 1년(1907) 의병 700여 명을 이끌고 여러번 일본군

심열

심상규

심상익의 신문화운동

심수택

<상록수>의 저자 심훈

을 격파했으나 장성군 동치에서 패하여 동지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로서 1962年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단장이 수여되었고 1973年 유림에 의하여 광주 서공원에 위령비가 세워졌다. 심상건(沈相健)은 부친 심창래에게 가야금을 배워 견실하고 소박한 주법으로 가야금 산조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으며 레코드도 취입하였다. 1960年 국악진흥회로부터 공로상 수상, 1962年 정부로부터 문화포상등을 받았다. 또한 <상록수>(常綠樹)의 저자로 잘알려진 심훈(沈薰, 본명은 대섭)은 농촌문학의 선구자로서 가문을 더욱 빛나게 했다.

이상과 같이 청송 심씨는 고려말에서 조선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가문의 명성을 더욱 빛나게하는 많은 활동을 보였으며 이는 현재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단지 조선시대에만 청송 심씨에서 배출한 인재들을 살펴보면 왕비 3명, 재상등 상신이 13명, 대제학이 2명, 청백리 2명, 공신 8명, 장신(將臣)이 1명, 문과 급제자 194명등을 기록하여 조선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청송 심씨 가문의 위치를 다시한번 확인시켜 준다.

광명에서의 청송 심씨

청송 심씨가 광명시에 정착한 시기와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청송 심씨 대동보를 보면 숙종조에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 지방으로부터 현 광명시 일직동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그 가계(家系)를 보면 다음과 같다.

17世 심사현(沈師賢)

18世 심인진(沈仁鎭)

19世 심진영(沈晋永)
 |
 20世 심낙하(沈樂河)
 |
 21世 심노중(沈魯中)
 |
 22世 심원명(沈遠明)
 |
 23世 심종안(沈鍾安)
 |
 24世 심정구(沈正求)
 |
 25世 심영식(沈榮植)
 |
 26世 심우진(沈愚珍)

17세손 심사현(沈師賢)이 일직동으로 낙향하여 그 후 후손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평범하게 살아 왔으며 20세 심낙하부터 이후 26세 심우진(沈愚珍)까지는 일직동 120번지에서 7대째 가계를 이어오고 있다.

22세 심원명(沈遠明)은 한학(漢學)에 정통하여 많은 후학을 양성했으며 24세 심정구(沈正求)는 일제하에서 야학을 열어 문맹퇴치 운동에 앞장섰으나 질병으로 끌려갔다가 갖은 어려움 끝에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져 돌아와 마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현재는 공직자윤리회등에서 활동하고 있다.또한 심현구는 광명시노인회장으로 지역사회의 어른으로 귀감이되고 있다.



심사현의 묘소



7대째 거주한 집터

청송심씨의 설화 및 전설

세종의 비(妃)인 소헌왕후의 부친인 심온(沈溫)과 무자 영상(父子 領相)의 영예를 누렸던 심회(沈澮)는 3형제를 두었는데 그중 막내 아들인 심순문(沈順門)은 갑자사화와 연루되어 유배된 후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이 일에 대하여 <정암연주>(靜菴筵奏)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심순문이 죽음을 당한 것은 그가 임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는 죄목으로 화를 입은 것이며 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대간들간의 논란이 분분했다고 한다.

또 일설에 의하면 심순문이 무척 아꼈던 기생을 연산군이 강탈해 간 일이 있었는데 이 같은 관계에서 발생한 연산군과 심순문과의 연적(戀敵)에 의한 감정대립이 그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심순문의 조부인 심회가 연산군의 어머니인 윤씨(尹氏)에게 사약을 내릴 때 영의정이었다는 까닭에 관작이 추탈되고 망자(亡者)의 시신을 꺼내어 참수시키는 부관참시(剖棺斬屍)에 처해졌으며 그에 연좌되어 심순문도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다.

심봉원

한편 심순문의 아들 심봉원(沈逢源)은 명종조에 사예(司藝)를 지내고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에 이르렀으며 그림, 글씨, 운율, 의술 등에 능통하고 시문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한편으로 심기안정법(心氣安定法)을 터득하여 태화산 기슭에 집을 짓고 살며 스스로 효창노인(曉窓老人)이라 불렀다 한다. 하얀 수염을 날리며 산수(山水)속에서 여생을 살았는데 옷은 반드시 무계를 달아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지어 입었으며 밥도 손갈을 세어서 먹었고 씹는 것도 그 속도나 회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며 동작과 휴식도 조절하였고 마음쓰는 것도 그 심도의 분량을 근량으로 재는 듯 하였다고 한다.

심현과 부인 송씨

역사상 가장 태연하고 절도있는 죽음으로 알려진 심현과 부인 송씨(宋氏)의 일화가 전한다. 심현은 돈령부도정(敦寧府都正)에 이

르러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도로 피란을 갔다. 그러나 그곳마저 청병이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조카 심동구(沈東龜)가 배를 대놓고 피난할 것을 재촉했으나 그는 이를 애써 거부하고 그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조복(朝服)을 입고 동쪽을 향해 네번 절을 올리고 난 뒤 “신(臣), 심현은 동향사배(東向四拜)하고 남한산성에 계신 주상전하에게 올리옵나이다”라고 시작하는 임금께 올리는 유소(遺疏)를 남겼다. 그 유소는 임금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죽음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그 유소를 외손자 박장원에게 주어 배를 태워 보낸 다음 70세의 노구인 부인 송씨를 돌아보며 “정(情)은 백년을 같이하고 의(義)는 한번 죽음을 같이 하니 내가 충신이 되고 그대는 충신의 아내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면서 함께 죽을 것을 권유했다. 이에 대해 송씨는 “중용당고사(從容堂故事, 죽음이 주는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갈등을 무화시킨다는 뜻)를 본받겠나이다”라고 말하며 쾌히 응낙했다.

이들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갑시다”라고 말하고 난 뒤 함께 목을 베었는데 서로의 어깨를 짚고 편안히 운명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죽어 있었다고 한다.

제보자 심정구씨(71세)

여 백

파주염씨

파주 염씨의 유래

파주(坡州) 염씨(廉氏)의 시조(始祖)는 염형명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는 중국에서 여러 선대(先代)가 높은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운명을 그 나라의 운명과 함께 하는 교목세가(喬木世家)의 후손이었다. 그러나 염형명은 후당(後唐)때 국정이 어지러워지자 이것을 한탄하고 신라에 들어와 봉성(峰城, 파주의 옛 지명)에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후 신라에서 대사도(大司徒)를 역임하면서 완전히 정착하여 우리나라 염씨의 시조가 되었다.

염씨의 본관(本貫)은 파주를 포함하여 광주, 개성, 순창, 담양 등 83본(本)까지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에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파주 염씨의 일족(一族)이 거주하던 세거지명(世居地名)에 불과한 것으로 전한다. 염씨의 관향(貫鄉)인 파주가 신라 시대에는 봉성이었기 때문에 고려 공민왕조에 곡성부원군(曲城府院君)을 역임한 염제신(廉梯臣)을 일세조(一世祖)로 하고 본관을 봉성으로 정했었다. 이후 다시 곡성(曲城)으로 본관을 변경하였으나 곡성현(曲城縣)이 서원(瑞原)으로 바뀐에 따라 다시 서원으로 개관(改貫)하였다.

조선 연산군(燕山君)조에 들어서 서원이 파주로 개칭됨에 따라 다시 개관하여 지금까지 파주를 본관으로 하고 있다.



1세조 염제신 영정(공민왕의 친도)
보물 1097호

파주 염씨의 대표적인 인물들

파주 염씨는 주로 고려시대에 많은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하여 가문의 번성을 이루었다. 또한 목은(牧隱) 이색(李穡)은 충경공(忠敬公) 염제신(廉梯臣)의 신도비를 쓰면서 파주염씨 가문의 업적을 더욱 빛나게 했다. 이렇게 파주 염씨의 명성은 고려시대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와 한말에까지 이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충경공 염제신

신라의 고승(高僧)이었던 염거(廉巨)는 도의(道儀)의 법(法)을 이어받은 가지산선파(迦智山禪派)의 제 2대조로 강원도 원주군 법흥사(法興寺)에 그의 탑이 있었으나 현재는 서울 경복궁으로 이전되었고, 이전당시 발견된 지판(誌版)은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었다.

신라 고승 염거

염하청은 고려 문종조의 무장으로 충절을 지켰으며 왕에게 영업전사(永業田舍)를 하사받기도 했다. 고려의 무신으로 전공을 세운 염한(廉漢)은 문종 27년(1073) 영군도부서장군(領軍都部署將軍)으로 재임중 동경(東京, 慶州)지방에 침입한 동번(東蕃)의 해구(海寇)를 격퇴하였고 문종 34년(1080)에는 병부상서(兵部尙書)로서 병마사(兵馬使)가 되어 정주(定州, 정평)에서 난을 일으킨 동번을 토벌했다. 같은 시기 염현(廉顯)은 고려 덕종조에 국자감시(國子監試)를 처음 실시케 하여 정지공(鄭志功)등 60명의 명사(名士)를 얻었으며 문종 35년(1081) 왕명(王命)에 의하여 인재를 잘 등용하여 유명하였고 정승을 역임하였다.

고려의 문신인 염신약(廉信若)의 자(字)는 공가(公可), 시호(諡號)는 효문(孝文)이다. 인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광주장서기(廣州掌書記)가 되었는데 부친상을 당해 3년간 시묘살이를 하여 마을에 효자정문(孝子旌門)이 세워졌다. 그후 첨사부 녹사(詹事府錄事)를 거쳐 명종 원년(1170) 국자제주, 한림시강학사(國子祭酒, 翰林侍講學士)를 지냈으며 판대부사를 역임했다. 명종 8년(1178) 서북면 병마사가 되어 당시 반란을 일으킨 조위총(趙位寵)의 허위사실을 밝히고 이듬해 이부상서에 올랐다. 이후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를 거쳐 명종 22년(1192)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치사(致仕)했다.

염신약

염맹자(廉孟子)라 불리던 염희헌(廉希憲)의 자(字)는 선보(善甫), 호는 야운(野雲), 시호(諡號)는 문정(文正)이다. 어릴때부터 학문에 열중하여 성리학에 정통하고 원나라 세조와 더불어 대설(對說)하여 염맹자란 칭호를 얻었다. 고종 44년(1257) 문과에 장원하였으며 황제앞에서 무예를 시험할 때 화살을 연달아 3번 적중시키는 등 무예도 뛰어났다. 그가 몽고 사신으로 4년동안 일본에서 생활한 경험을 적은 <일본전>(日本傳)이 전하고 있다. 이

염희헌

후 관직은 중서평장사(中書平章事)를 지내고 충청수덕공신(忠淸粹德功臣)에 책록되었으며 태부(太傅), 개성의동삼사(開城儀同三司) 위국공(魏國公)에 추증되었다. 또한 성종황제는 문정(文正)이라 하여 증시(贈諡)하였으며 원나라 옛 수도에는 만유당(萬柳堂), 청로당(淸露堂)이 그의 별업(別業)으로 남아있다.

염제신

염제신(廉梯臣)의 아명(兒名)은 불노(佛奴), 자(字)는 개숙(愷叔), 시호는 충경(忠敬)이다. 중찬(中贊) 염승익(廉承益)의 손자로 일찌기 부친을 여의고 원나라에 가서 평장사로 있는 고모부 염말길(廉末吉)의 집에서 자랐다. 태정황제(太定皇帝)의 총애를 받다가 정동성(征東省) 낭중(郎中)에 임명되어 돌아왔다. 충숙왕의 신임을 받았으며 공민왕 3년(1354) 좌정승, 우정승을 지내고 원나라 내란을 평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유탁(柳濯)등과 함께 2천의 군사를 이끌고 갔다가 오기도 했다. 공민왕 5년(1356) 기철(奇徹)일파를 숙청한 후 원나라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서북면 도원수로 나가기도 했으나 신돈(辛旽)에게 아부하지 않아 파직되기도 했다. 딸이 신비(愼妃)로 책봉되었고 우왕조에 영삼사사(領三司事), 영문하부사(領門下府事)를 거쳐 곡성부원군(曲城府院君)에 진봉되었다.

염정수

염제신의 아들 염정수(廉廷秀)는 공민왕 20년(1371) 문과에 급제하고 우왕 9년(1383) 지신사(知申事)로서 전주(鎭注)를 맡기도 했으며 정몽주(鄭夢周)와 함께 호복(胡服)을 폐지하고 중국제도를 따르자고 건의했다. 그뒤 동지밀직(同知密直), 대제학을 역임했으나 이성계에 의하여 임견미(林堅味)등이 제거될 때 살해되었다.

송은 염치중

송은(松隱) 염치중(廉致中)은 우왕 1년(1375) 문과에 급제하고 봉익대부(奉翊大夫),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상호군(上護軍),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를 지냈으나 우왕 14년(1388) 정세가 혼란스러워지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조선개국 후 수차례에 걸쳐 벼슬이 제수되었으나 거부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에 태종(太宗)이 그의 고절(高節)을 가상히 여겨 그의 동생 염치용(廉致庸)을 공조판서에 임명하였다. 철종 3년(1852) 사림들에 의해 나주의 금강서원(錦江書院), 장성의 경현사(景賢祠)에 제향되었다.

염상항(廉尙恒)은 상산(商山)에 은거하여 이조판서 이승원(李崇元)과 함께 성리학을 연구하였는데 부사를 지낸 염귀항(廉貴恒), 정언(正言)을 역임한 염유항(廉有恒), 상호군(上護軍)을 지낸 염종항(廉從恒), 사정(司正)에 오른 염익항(廉益恒) 등의 5형제가 모두 학문에 뛰어났다. 염우혁(廉友赫)은 인조 5년(1627) 문과에 급제하고 교서관 정자, 사간원 정언 등을 거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을 역임하였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때는 남한산성에서 왕을 호위하였고 독전어사(督戰御使)가 되어 문천, 희천, 연안, 장연, 북청, 철원 등지를 순회하였다. 그후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으며 공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염상항 5형제

한편 염걸(廉傑)은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규합하여 노량, 거제도 대첩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형제 및 부친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에 선조는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봉했으며 그후 자헌대부(資憲大夫) 병조판서에 추증되어 정려(旌閭)가 명해졌다. 염언상(廉焉祥)은 문장이 뛰어났고 무예에도 능해 일찌기 무과에 급제하여 시복시주부(司僕寺主簿)를 역임했으나 사직하고 순천으로 낙향했다. 그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李舜臣)휘하에서 옥포, 한산전투에 참가하여 승리를 거두는데 공을 세우니 이를 본 이순신의 장계(狀啓)로 훈련원 첨정(訓練院 僉正)이 되었다. 이어 권율(權擥)의 막하로 들어가 하동, 악양곡의 전투에서 공을 세워 유격장(遊擊將)이 되었으며 이후 곽재우(郭再祐)와 함께 의령, 함양을 지키고 추풍령을 방어하다가 순절하였다. 그후 선무원종이등공신(宣武原從二等功臣)에 책록되었고 통정대부 병조참의에 추증되었다.

염걸

한말 민비시해, 을사조약 등 일본의 침략행위에 의분을 참지 못했던 염재보(廉在輔)는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등 동지들과 함께 의병대를 조직하여 구치대첩을 비롯하여 20여회에 걸쳐 많은 전공을 세웠다. 특히 기계제조, 총포의 제작, 조립, 사격에 능했던 염재보는 1909년 의병대의 주장(主將)인 안규홍(安圭洪)과 함께 체포되어 42세의 나이로 순절하였다.

염재보의 의병운동

또한 소설가(小說家)로서 한국 근대문학 운동의 중심인물로 자연주의를 표방하면서 우리나라의 사실주의 문학발전에 기여한

최보 임성섭

횡보(橫步) 염상섭(廉想涉)은 보성학교를 거쳐 일본 게이오대학 문학부를 중퇴했다. 1920년 김억(金億), 남궁벽(南宮璧), 오상순(吳相淳), 황석우(黃錫禹) 등과 <폐허> 동인에 참가하였고 이듬해 <개벽>지에 단편소설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발표하여 문단에 등장했다. 그후 현진건(玄鎭健)과 함께 시대일보, 매일신보 기자로 재직하면서 평론을 쓰는 한편 창작에 몰두하였다. 그뒤 만주로 건너가 만선일보 주필 겸 편집국장을 지내다가 해방 후 귀국하여 경향신문 편집국장이 되었다. 6. 25 사변 중에는 해군소령으로 복무했고 이후 예술원 초대회원이 되어 종신회원에 추대되었다. 1956년 제3회 자유아시아 문학상, 1962년에는 삼일문화상 예술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이상과 같이 파주 염씨는 조선시대에만 대제학 2명, 현감 및 기타관직에 47명을 배출한 명문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광명시에서의 파주 염씨

파주 염씨가 광명시에 정착하게 된 경위와 연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고려조에서 강성했던 문벌의 위력을 과시하다가 조선 개국에 동조하지 않아 역적으로 몰려 고려 유신들과 함께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초 역적으로 몰림과 동시에 아무리 훌륭한 인물일 지라도 벼슬에 나아갈 수 없었고 또 아무리 공로가 있다 하여도 그 공과가 널리 알려질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파주 염씨 대동보를 보면 8세 염공거(廉公舉)와 염백거(廉白舉) 형제가 550여년 전, 당시 시흥군 서면 가학리 등지에 정착한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두 형제의 묘소는 기록으로만 전해질 뿐 해방전 일본의 군용지로 징발되어 실전되었고 현재는 14세 염귀일부터 그 묘소가 관리되고 있어 매년 음력 10월 15일 후손들이 모여 시제(時祭)를 지내고 있다. 파주 염씨 가손파인 이들의 가계(家系)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족보

1世(中始祖) 엄제신(廉梯臣)

8世 엄공거(廉公舉)

9世 엄목동(廉穆東)

10世 엄진손(廉進遜)

11世 엄홍세(廉興世)

12世 엄득수(廉得水)

13世 엄정춘(廉正春)

14世 엄귀일(廉貴一)

15世 엄후상(廉後相)

16世 엄시룡(廉時龍)

17世 엄성욱(廉成郁)

18世 엄천구(廉天耆)

19世 엄재현(廉在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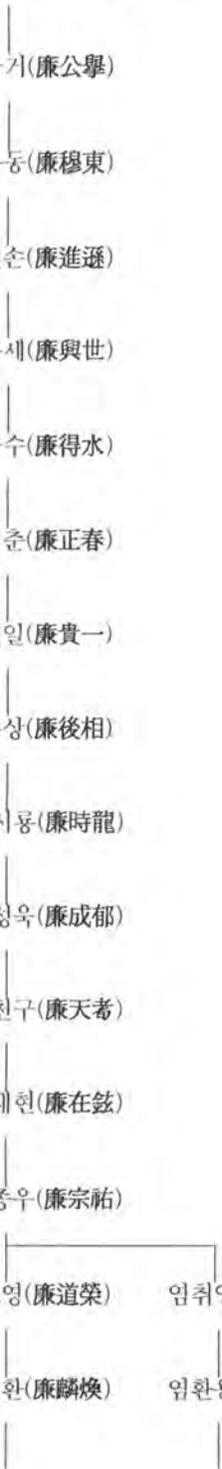
20世 엄종우(廉宗祐)

21世 엄도영(廉道榮)

엄취영(廉就榮)

22世 엄린환(廉麟煥)

엄환용(廉煥塔)



23世	염재운(廉載胤)	염재정(廉載程)
24世	염명신(廉明善)	염종신(廉宗善)
25世	염낙원(廉洛元)	염낙천(廉洛千)



염중현의 묘소



염낙원, 테레사 수녀에게 감사패를 받고 있다.

파주 염씨가 광명시에 제일 처음 정착한 곳은 장터말로서 이곳은 노리실과 시흥시 논곡동 논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장터말은 광명사에서 제일 먼저 시장(市場)이 생긴 곳이기도 하다. 장이 섰던 곳은 현재 장밭이라고 불릴 정도로 넓은 밭인데 이곳은 시흥시 금이동 칠리제 저수지에서 시흥시 목감동 더푼물(신촌)에 이르는 신작로 중간지점으로 예전에는 시흥시의 금이동, 무지동, 매화동 등 옛 소래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안양, 과천 등지를 왕래하는 교통로이기도 했다. 이때문에 시장이 들어설 수 있었고 사람들의 왕래도 잦았다.

파주 염씨는 장터말에 집성촌을 이루어 살아왔으나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한 상태이다. 그러나 장터말에 정착한 이후 파주 염씨는 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왔고 6·25동란도 무난히 극복하였다. 한국 가훈 연구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25세 염낙원(廉洛元)은 1970년 안양, 시흥군 서도회를 창설하여 초대 2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정신문화 계승 및 교육에 전념하였다.

파주 염씨의 설화 및 전설

염상의

고려초 마산성(馬山城), 통해진성(通海鎭城) 등의 진두(鎭頭)를 지낸 뒤 태사(太師)에 이르렀던 염상(廉相)은 태조의 총애를 받던 신하로서 왕규(王規), 박수문(朴守文)과 함께 태조의 임종을 지켰다. 그때 태조가 유언하기를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유소(遺疏)

하길 천하만물이 생겨나서 죽지 않는 것이 없다. 죽는 것은 천지원리(天地原理)의 자연법칙이거늘 내 어찌 근심하리오 라고 했는데 이 문제(文帝)의 말이 곧 나의 뜻이다”라는 유언을 받았다.

고려 문종조 염하청이 병사를 지낼 때 서북방을 방어하다 거란군의 포로가 되었다. 거란군은 그에게 항복할 것을 강요했으나 염하청은 끝내 절의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그때 그의 머리털이 하얗게 백발로 변하는 이적(異蹟)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거란군들은 크게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염하청의 고절(高節)에 탄복하여 그를 풀어 주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문종은 그의 충절을 가상히 여겨 토지와 가옥을 하사하였다.

여 백

무송윤씨

무송 윤씨의 유래

무송윤씨(茂松尹氏)는 본래 소호씨이다 상고시대 소호金天氏 次妃의 아들 般이 弓正이 되었는데 帝로부터 尹城에 봉해진 것이 윤씨의 姓籍이 되었다. 그후 하남도 무송현(현 전북고창군)에 정착하면서 貫籍이 되었다. 이후 世系가 失傳되었다가 후손 양비(良庇)가 고려 예종때에 保勝郎將을 역임하여 茂長縣戶長의 宅號를 받게 되면서 시조가 되었다.



무송 윤씨 족보

양비의 증손(曾孫)인 정공(文貞公) 택(澤)이 충숙왕(忠肅王)조에 문과에 급제한 후 정당문학(政堂文學:내사문하성소속 종2품)과 침의찬성사를 역임하였다. 택(澤)의 손자 소종(紹宗)은 공민왕때 장원급제 하고 조선에서 병조전서를 지낼 때 (高麗史)의 편찬에 참여하였고 회군삼등공신에 올랐고 경사에 밝아 명성을 떨쳤다.

소종의 아들인 회(淮)는 세종때 병조판서와 대제학을 역임하였으며 그의 손자 자운(子雲)은 성종때 영의정을 지냈으며 무송 부원군에 봉해졌다. 자운의 5세손 형(炯)은 선조때 호조판서와 판중추부사에 이르렀고 임진왜란때 왕을 호종한 공으로 보국숭록대부(輔國崇錄大夫)에 올랐다. 근대인물중 독립운동에 앞장선 세복(世復),세주(世胄),호(皓)등이 무송윤씨의 가문을 빛내었다.



시조공 윤양비 지묘
전북 고창군 대산면 삼남리

무송 윤씨의 대표적인 인물들

윤해(尹諧) 1231(고종18년)-1307(충렬왕) 고려의 문신 자는 강재(康哉) 문과에 급제하여 상주사록(尙州司錄)이 되었다. 이후 내시(內侍)가 되어 충렬왕을 시종하여 원나라에 다녀왔고 통례문지후(通禮門祗候), 지장흥부사(知長興府事)를 역임하면서 일본정벌에 쓸 전함의 건조를 감독했다. 충렬왕 24년(1298) 정헌대부,국학 대사성, 문한 사학(正獻大夫 國學 大司成 文翰 司學)이 되어 치사(致仕)했다. 청렴 결백하고 강직하여 권세에 눌리지 않았다.

윤등(尹登) 고려(高麗)때 직제학(直提學)을 역임하였다.

윤택(윤택) 고려의 문신, 해의 손자이며 경산부사록(京産府司

錄) 교감(校勘)을 거쳐 검열(檢閱)이 되었다.

충목왕이 죽자 밀직(密直) 이승로(李承老)와 함께 강릉대군을 추대하려 했으나 충정왕이 즉위하여 광양감무(光陽監務)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이후 정당문학에 올라 항상 치국(治國)의 길을 왕에게 건의했으며 관직은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에 이르렀다.

윤충보(尹忠輔) 공양왕 2년(1390) 진사가 된 후 안성군사(安城郡事)를 지냈으나 조선이 개국하자 여주에 은둔했다. 그후 태조가 수차례 벼슬을 제수했으나 끝까지 거부하니 여거사(驪居士)라는 호를 하사하였다.

윤소종(尹紹宗) 충목왕1(1345)-태조2년(1393) 고려, 조선의 문신, 이색(李穡)의 문인으로 공민왕 14년(1365) 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춘추관 수찬(修撰)을 거쳐 정언에 올랐으나 시사(時事)를 논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파직되었다. 그러나 우왕조에 다시 등용되었다가 1388년 이성계의 회군때 동문(東門)밖에 나가 영접하고 군전에서 우왕을 폐하고 다른 왕씨(王氏)를 왕으로 옹립하기 위한 암시로서 <곽광전>을 올렸다. 창왕조에 대사성에 이르렀으나 남을 헐뜯는 것으로 공양왕의 미움을 받아 금주(錦州)로 유배되었지만 곧 용서를 받았다. 하지만 또다시 정몽주 일파의 간관(諫官)에게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다가 정몽주가 살해되자 귀양에서 풀려났다. 조선개국과 함께 병조전서에 올라 <고려사>(高麗史)의 수찬에 참여했고 이듬해 회군3등공신(回軍三等功臣)에 올랐으며 수문전 학사 겸 동지춘추관사를 겸임했다. 그는 성리학과 경사(經史)에 밝아 문명(文名)을 떨쳤다.

윤회종(尹會宗) 고려, 조선의 문신, 소종의 아우 1414년 사간원 우사간(司諫院右司諫)역임

윤회(尹淮) 고려우왕6년(1380)-세종18년(1436) 소종의 아들 어려서 경서(經書)에 능통하여 이름을 떨치다가 태조 2년(1393) 진사가 되고 태종 원년(1401)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 예조정랑, 이조정랑을 역임했다. 이후 세종의 명을 받고 신장(申樞)과 함께 <팔도지리지>(八道地理志)를 편찬했다. 그리고 세종 16년(1434) 집현전에서 왕명으로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의 찬집을 맡았으며 병조판서, 예문관, 대제학을 역임했다.

문정공 윤택

윤소종

문도공 윤회

문헌공 윤자운

윤자운(尹子雲) 태종16년(1416)-성종9년(1478) 세종 20년(1438) 진사가 되고 이어 문과에 급제하여 검열이 되었으며 세종 32년(1450) 집현전 부수찬으로 수사관(修史官)이 되어 정인지(鄭麟趾) 등과 <고려사>의 편찬에 참여했다. 이후 좌익3등공신(佐翼三等功臣)에 올랐으며 신숙주(申叔舟)와 함께 아인토벌에 출전하기도 했고 주문사(奏聞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다. 병조와 형조의 관서를 역임하고 우찬성으로 함길도도체찰사(咸吉道都體察使)와 도총관(都摠官)을 겸직할 때 이시애의 난을 토벌하여 이듬해 무송군(茂松君)에 책봉되었다. 예종 원년(1469) 좌의정이 되고 성종 원년(1470) 영의정이 되었고 좌리1등공신(左理一等功臣)에 올랐으며 무송부원군(茂松府院君)에 진봉되었다.

윤옥

윤옥(尹玉) 중종6년(1511)-선조17년(1584)김안국의 문인으로 검열, 동부승지, 양주목사를 지낸 윤옥은 명종 16년(1561) 딸이 순회세자의 빈(嬪)이 되자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가 되었다. 이어 공조참판에 승직되어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희암 윤진

윤진(尹珍)은 선조조에 효행이 뛰어나 천거되어 단성현감을 지낼 때 선정을 베풀었다. 이에 백성들이 삼진도(三盡圖)를 만들어 그의 공적을 칭송하였다.

윤형(尹炯)은 김치원(金致遠)의 문인으로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예조정랑으로서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가서 종계(宗系)를 설명하고 돌아와 사십시침정에 올랐다. 이후 지평(持平)으로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 후에 논공행상의 불공평을 논하다가 파직되기도 했으나 이듬해 광국2등공신(光國二等功臣)으로 무릉부원군(茂陵府院君)에 책록되었으며 임진왜란때 세자를 성천(成川)으로 시종하였고 이듬해 사성(司成)으로 왕을 호종(護從)하여 군기시정(軍器寺正)이 되었다. 이후 호조판서,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이르렀으며 광해군 3년(1611)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서 임진왜란때 왕을 호종한 공으로 무성부원군(茂城府院君)으로 봉해졌다.

윤백상

공조참판 윤옥의 서자(庶子)인 윤백상(尹百祥)은 18세때 누이동생이 순회세자의 빈이 되자 내수사별좌(內需司別坐)에 발탁되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때 용주를 황해우도(黃海右道)에 무사히

피난시킨 공으로 사온서직장이 되었다. 그러나 서자출신이라는 탄핵으로 파직되고 그의 서자 윤기(尹錡)와 함께 역모의 무고를 받았으나 심희수(沈喜壽)의 도움으로 죽음을 모면하고 구성(龜城)에 유배되었다. 윤장(尹璋)은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때 충장군(忠狀公) 신립(申昶)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순절하였다.

단애(檀崖) 윤세복(尹世復) 고종21년(1884)~1960 밀양출신, 대종교에 입교하였으며 밀양 신창소학교, 대구 협성중학교 교사를 지냈다. 을희 3년(1909) 안희제(安熙濟), 서상일(徐相日), 신성모(申性模) 등과 대동청년당을 조직하여 구국운동을 했다. 이후 만주로 망명하여 환인현(桓仁縣)에 동창학교, 무송현(茂松縣)에 백산학교, 밀산당벽진(密山堂壁鎭)에 대흥학교, 영안(寧安)에 대종학원 등을 설립하여 교포들의 독립사상을 고취했고 장백(長白)등지에서 포수단을 조직하고 홍범도(洪範圖), 조맹선(趙孟善)등과 연합전선을 펴 일본군에 항전했다. 1923년 제2세 교주인 김헌(金獻)의 유언으로 제3세 교주가 되었고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 훈장 단장(單章)이 수여되었다.

단애 윤세복의 독립운동

윤세주(尹世胄)는 3. 1운동때 만세시위운동(萬歲示威運動)을 주도한 뒤 만주 길림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전력하였다. 김원봉(金元鳳)등과 의열단(義烈團)을 조직하여 1920년 총독부 및 주요 관공서를 폭파하기 위해 황상규(黃尙奎)등과 국내로 폭탄을 들여오다가 체포되어 7년간 수감되었다. 그러나 출옥 후 다시 중국으로 망명하여 조선 의용대를 조직하여 화북 태백산을 중심으로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이외에도 무송윤씨를 빛낸 독립운동가로는 윤세두(尹世斗) 윤호(尹皓)등이 있다.

윤세주의 독립운동

광명시에서의 무송 윤씨

무송 윤씨가 광명시에 정착한 것은 10세손 윤백봉이 여주에서 노온사동으로 이주해 오면서부터이다. 정착연대를 확실하지 않지만 약 500여년 전이라 추정되며 이곳에 낙향한 이후 농사를

지으며 은둔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광명시에 정착한 무송 윤씨는 장령공(掌寧公)파로서 이보다 큰 파(派)인 대사성공(大司成公)파는 충청도 보령과 전라도 고창 등지에 거주하였다.

윤백봉의 가계(家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세손 주부 증형조참판 백봉지묘

- 10世 윤백봉(尹百朋) 주부(主簿) 역임. 증(贈) 형조판서
- 11世 윤화생(尹華生) 도총도사(道摠都使) 역임. 참녕국(參寧局) 원종공신(原從功臣) 부호군
- 12世 윤응제(尹應濟) 무과 부사과(武科 副司果) 역임
- 13世 윤상취(尹商就)
- 14世 윤종은(尹宗殷)
- 15世 윤도겸(尹道謙)
- 16世 윤수철(尹壽喆)
- 17世 윤득흠(尹得欽)
- 18世 윤광석(尹光錫)
- 19世 윤원진(尹元鎭)
- 20世 윤경보(尹景溥) '溥'는 무송 윤씨의 항렬자라서 음(音)을 /보/라 발음한다
- 21世 윤종모(尹宗模)
- 22世 윤응렬(尹應烈)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에서 이주한 윤백봉은 장절리에 제일 처음 정착했는데 그는 주부(主簿)의 벼슬을 역임했으며 사후에는 형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 윤백봉의 아들 윤화생은 도청도사(道摠都使)라는 무과벼슬을 지냈다. 윤백봉의 손자 윤응제는 무과 부사과(武科 副司科)에 올랐다.

처음으로 노온사리 장절리에 정착한 12대조 윤백봉에서부터 현재까지 약 500여년 동안 12대를 이어 오면서 한때는 40여호에 달하던 일가들로 인해 '윤씨촌'이라 불렸지만 현재는 8가구 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무송 윤씨는 대체로 손(孫)이 드문 편이다. 장절리에서 출생한 고(故) 윤항렬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고 제보자 윤완보씨는 현재 성군관 유도회 지회장을 맡아 전통 확립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 처음 교육계 50년근속으로 교육공로상, 국민훈장, 소파상(67년 11월9일)을 모두 수상해 화제의 대상이된 3형제 교장이 있다. 그 주인공은 윤정석(尹貞石), 윤형모(尹亨模), 윤양모(尹亮模)이다.

현재 14대를 거주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8가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매년 노온사동에서 종친회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노온사동에서
종친회를 갖고 있음

무송 윤씨의 설화 및 전설

일제시대 조선어책에도 전하는 문도공(文度公) 윤회(尹淮)에 관한 일화가 있다. 선생께서 어느 객주에 투숙했는데 선생은 우연히 주인집 아들이 구슬을 가지고 놀다가 흘린 것을 그 집에서 기르던 거위가 집어 삼키는 것을 보았다. 잠시후 주인은 구슬을 찾으러 온 집안을 뒤지게 되었고 끝내 구슬을 찾지 못하자 허름한 차림의 문도공 선생을 의심하게 되었다. 주인은 선생에게 구슬을 내놓으라고 다그쳤지만 선생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더욱 선생을 의심하게 된 주인은 선생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다음날 관가에 고발하기 위해 광에다 가두었다.

문도공 윤회의 일화

이때 선생은 주인에게 밤새 혼자 지내려면 심심하다고 하면서 거위를 하루만 선생 옆에 묶어놓아 달라고 말했다. 주인은 구슬을 찾을 요량으로 순순히 선생의 청을 들어 주었다.

다음날 거위가 먹은 구슬은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되었고 선생은 주인을 불러 그 구슬을 되찾게 해주었다. 구슬을 되찾은 주인은 죄송스러워 하며 왜 거위가 구슬을 삼킨 것을 애기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물었다.

이에 선생께서는 “내가 사실대로 말을 했더라면 당신들은 분명 거위의 배를 갈라 구슬을 찾으려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하면 구슬도 찾고, 거위도 살릴 수 있을 것을”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제보자 윤원보씨(72세)

윤영(尹暎)은 효행이 뛰어나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하루는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 뜰 가운데 커다란 연못이 생기자 윤영은 그곳에 고기를 길러 부모님을 봉양하였다고 한다. 또 부친에게 병환이 들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윤영은 산에 약초를 구하러 갔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그에게 약초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가 살던 마을을 양어촌(養魚村)이라 하고 그 산을 효심산(孝心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광주이씨

광주 이씨의 유래

광주 이씨 시조 이자성



시조 이당의 묘

광주(廣州) 이씨(李氏)의 시조(始祖)는 신라 내물왕대에 내사령(內史令)을 지낸 이자성(李自成)이다. 본래 칠원(漆原)에 거주해오던 호족의 후예로 신라에서 두루 벼슬을 세습해오던 이자성은 신라가 결국 고려에 손국(遜國)하자 이에 불복하고 절의를 지켰기 때문에 고려 태조(太祖)의 미움을 사서 회안(淮安) 호장(戶長)으로 격하되었다. 때문에 광주 이씨는 이자성으로부터 소목(昭穆)이 실전되었다가 고려말 이름을 떨친 선조들을 각각 그 시조로 하여 수보(修譜)를 하게 되었다. 그 분파(分派)는 약 10여개에 달하지만 이중 생원공(生員公) 이당(李唐)의 둘째 아들인 둔촌(遁村) 이집(李集)의 인맥이 가장 번성하였다.

또한 광주 이씨가 처음에는 본관을 회안으로 정했다가 고려 태조 23년(940) 지명이 광주로 개칭됨에 따라 광주를 관향(貫鄉)으로 삼게 되었다. 광주는 경기도 중앙에 위치한 지명으로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衛滿)을 피해 이곳으로 남하해서 한왕(韓王)이 되면서 회안국(淮安國)의 일부였다가 이후 마한(馬韓)의 영토로 귀속된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은 서기 371년 백제의 근초고왕이 남한산(현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곳을 한성이라 칭했고 백제 성왕 31년(553) 신라에 나라를 빼앗겨 신라의 한산주가 되었다가 신라 경덕왕 15년(756) 한주로 개칭되었다. 이후 고려 태조 23년(940)에 다시 지명을 광주로 고쳤는데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변천을 거듭했지만 1895년 광주군(廣州郡)이 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광주 이씨의 대표적인 인물들

이당

광주 이씨의 중시조이기도 한 이당(李唐)은 고려때 고을 아전

(衙前)으로 생원(生員)을 지냈고 인화(仁華) 이씨를 부인으로 맞아 5형제를 두었는데 이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다. 맏아들은 이봉(李逢)이고 둘째가 둔촌인 이집(李集)이며 세째는 이희령(李希齡), 네째는 이자령(李自齡), 다섯째는 이성(李省)이다.

둘째 아들인 둔촌은 문장(文章)과 도덕으로 고려말에 명성을 떨쳤으나 신돈(辛旽)이 채판서(蔡判書)란 자에게 만행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이를 비판했다가 화를 입어 공민왕(恭愍王) 17년(1368) 부친 이당을 등에 업고 개경(開京)을 빠져나와 과거시험 동기(同期)인 천곡(泉谷) 최원도(崔元道)가 살고 있던 경북 영천으로 피신하였다. 이듬해 영천에서 부친을 여윈 둔촌은 천곡의 도움으로 극진히 장례를 치루었고 그뒤 공민왕 20년(1371) 신돈이 주살된 후 자유의 몸이 되어 초명(初名)인 원령(元齡)을 집(集)으로 고쳐 살면서 슬하에 3형제를 두어 가문의 번성을 이루었다.

그 중 맏아들인 이지직(李之直)은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해서 우왕 6년(1380) 문과에 급제하여 교리(校理)와 관찰사(觀察使)를 역임했으며 조선이 개국한 후에 보문각(寶文閣) 직제학에 올라 청백리로 상징되었다. 둘째 이지강(李之剛)은 태종조에 예문관 제학, 한성부윤을 거쳐 의정부참찬 겸 대사헌을 지냈으며 세째인 이지유(李之柔)는 성주목사를 지냈다.

이지직이 또 3형제를 두었는데 맏아들은 이사인(李舍人)이고 둘째는 이인손(李仁孫)인데 세조때 우의정을 역임하였으며 세째는 이예손(李禮孫)으로 참관을 역임하였다. 이인손이 또한 5형제를 두었는데 이들 모두가 과거에 급제하였다.

맏아들 이극배(李克培)는 성종조에 좌리3등공신(左理三等功臣), 좌참찬을 지내고 영의정에 올라 광릉부원군(廣陵府院君)에 책봉되었는데 그는 평생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을 신조로 삼는 한편 일족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겸허를 주장하였다. 둘째 이극감(李克堪)은 세조조에 좌익3등공신(左翼三等功臣), 이조참의 등을 거쳐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어 신숙주(申叔舟)등과 함께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수찬했으며 <북정록>(北征錄)으로 필명을 떨치기도 했다. 세째인 이극증(李克增)은 예종조에 익대2등공신(翊戴二等功臣)으로 광천군(廣川君)에 책봉되었고, 성종조에는 이조판



둔촌 이집 신도비

이지직

이극배



충정공 이준경의 묘소



이덕형의 영정

서, 동지성군관사(同知成均館事), 한성관운 등을 역임했다. 네째인 이극돈(李克墩)은 좌찬성을 역임했고 다섯째인 이극균(李克均)은 좌의정에 올랐으나 연산군의 실정(失政)을 바로 잡으려다가 갑자사화(甲子士禍)에 연루되어 인동에서 사사(賜死)당했다.

그뒤 이준경(李浚慶)은 중종 26년(1531) 문과에 급제하여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명종 13년(1558)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한편 이윤경(李潤慶)의 아들 이중열(李中悅)은 중종조에 등과하여 이조정랑을 지냈으며 학문에 뛰어나 명성을 얻었으나 명종조 을사사화에 연루된 지우(知友) 이휘(李輝)를 변호하다가 결국 사사(賜死)되었다.

광주 이씨 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라 할 수 있는 한음(漢蔭) 이덕형(李德馨)은 어릴 때부터 글재주가 뛰어나 조정에서 배운 각종 정시(庭試)에 매년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31歲때 대제학에 초탁(招擢)되었고 광해군이 즉위하자 진주사(陳奏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영의정에 올랐으나 영창대군의 처형과 폐모론(廢母論)을 반대했다가 관작을 삭탈당하고 양근(陽根)으로 내려가 생을 마쳤다. 이항복(李恒福)과 절친한 사이로서 잘알려졌으며 또한 임진왜란에 사직을 유지한 인물로서 이덕형, 이항복, 이원익(李元翼)과 함께 '혼조삼리'(昏朝三李)로 일컬어진다.

한편 고려말 형조우참의(刑曹右參議)를 역임하며 강직한 충절로 이름이 높았던 석탄공(石歎公) 이양중(李養中)은 태조 1년(1392) 조선이 개국하자 끝까지 충절을 지켜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은거했으며 후에 남한산 밑으로 퇴거하여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이양중의 아우 암탄공(巖歎公) 이양몽(李養蒙)도 고려말에 형조판서를 지냈으나 역시 조선을 섬기기를 거부했다. 이 두 형제의 절의를 기리기 위해 서울시 고덕동(高德洞)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외에도 이필성(李必成)은 효행과 문장으로 명성을 떨쳤고 조선조 '팔문장'(八文章)으로 꼽혔던 이휴징(李休徵) 부자(父子)가 있으며 성리학에 정통해서 참판을 지냈던 이극기(李克基)의 아들 이은(李閔)은 학자로서 유명했다.

한편 율정공파(栗亭公派)의 중시조(中始祖) 이관의(李寬義)는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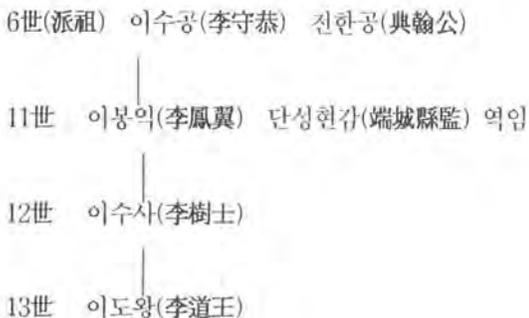
백리 이지공(李知公)의 맏아들로서 성리학 탐구에 몰두하여 학문에 정통하였고 덕행이 뛰어나 정여창(鄭汝昌), 손순효(孫舜孝), 남효온(南孝溫)등과 같은 훌륭한 제자를 양성하였다. 이후 성종조에 찬성(贊成) 손순효의 천거로 경연(經筵)에 나아가 강론하자 성종이 감탄하여 친서(親書)로 '율정(栗亭)'이란 호(號)와 함께 관직을 제수했으나 그는 노구를 핑계로 이를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이에 성종이 가상히 여겨 지방 수령들에게 명하여 여생을 보살피도록 하고 쌀과 비단을 하사하였다.

이렇게 광주 김씨 문중에서는 조선시대에만 정승 5, 공신 11, 대제학 2, 청백리 5, 대장 2, 판서, 대사성 및 기타관직자가 66명에 이르는 인물들을 배출하여 명문 광주 이씨의 전통이 이어졌다.

광명에서의 광주 이씨

광주 이씨는 이당(李唐)을 시조(始祖)로 모시고 있는데 그 사당은 경북 영천에 있고 그의 부인인 인화부인(仁華夫人)의 묘소는 경기도 광주에 있다. 광명시에 처음 정착한 광주 이씨는 이수공(李守恭)을 파조(派祖)로 하는 전한공파(典翰公派)로 16대 할아버지이신 이종근(李宗謹)의 묘소를 김천에서 광명으로 이장하면서부터라고 전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이어진 가계(家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광명의 광주 이씨는 전한공파이다.





인천에서 시흥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광명시에 정착하게 되었다.

고려말과 조선초 가문의 번성을 누렸던 광주 이씨는 서울 강동지역에 집성촌을 이루었는데 그곳은 현재 서울의 둔촌동 일대로 '둔촌동'이란 지명은 둔촌(遁村) 이집(李集)의 호를 동명(洞名)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후 광주 이씨 일가는 각지로 퍼져 나갔고 인천 금화동에 정착한 한 일파가 시흥시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광명시에 정착하게 되었다.

단성현감을 역임한 이봉익 역시 인천 금화동에서 처음으로 현재의 도고내(道高川)에 정착하였고 이후 광주 이씨들이 이곳에서 집성촌을 이루었다. 도고내는 마을 동쪽 광산촌이었던 솔안과 소화동 서러리를 왕래하던 도구내 고개와 고개마루에서 소화동과 가학동으로 흘러내리는 작은 내(川)가 있었던 것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마을의 북쪽지역인 웃말에는 이봉익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다.

광주 이씨는 현재 15대째 살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30여가구에 이르는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노온사리 산 221-1번지 일대에 선산(先山)을 가지고 있는 광주 이씨는 각지에 흩어진 것을 모두 이곳으로 이장하였고 매년 음력 10월 10일에서 18일까지 종친회 모임을 갖고 있다.

매년 10월에
종친회 모임을 가짐

광주 이씨의 설화 및 전설

둔촌은 신돈을 비판했다가 화가 미쳐 부친을 업고 새재(鳥嶺)를 넘어 영천에 사는 동방급제(同榜及第) 친우(親友)인 최원도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둔천과 그 부친을 맞이한 천곡(泉谷) 최원도는 이들을 다락방에 숨기고 4년동안 돌봐주었는데 이런 사실을 가족들에게까지 비밀로 하였다. 그래서 최원도는 갑자기 식욕이 왕성해졌다고 하며 큰 그릇에 밥과 반찬을 가득 담아오게 하여 세사람이 나누어 먹었다.

둔촌 선생의 설화

이런 최원도의 이상한 행동을 수상쩍게 여긴 주인마님이 최원도의 시종을 들고 있던 19세의 여종 제비(燕娥)로 하여금 엿탐을 시켰다. 제비는 최원도의 주변을 은밀히 살피다가 결국 최원도가 벽장 속에 두사람을 숨겨두고 이들과 함께 밥을 나누어 먹는 것을 발견하였다.

제비는 놀라는 한편 최원도가 포살령(捕殺令)이 내려진 둔촌을 숨겨주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두 집안이 모두 멸문(滅門)의 화를 당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고민하던 제비는 주인마님의 걱정을 덜어주는 한편 상전(上典) 최원도의 친구에 대한 신의를 지켜주기 위해 스스로 약을 먹고 자결해 버렸다. 이로서 둔촌은 무사히 그의 집에 은거할 수 있었다고 한다.

강직하고 의지가 굳었던 인물이 많았던 광주 이씨의 집안에서

이극균

는 정의롭게 죽음을 맞이한 인물들에 관한 일화가 다수 전한다. 먼저 이극균(李克均)은 좌의정에 올랐으나 연산군의 횡포를 바로 잡으려다가 모함에 빠져 유배되어 사약을 받았다. 사약을 받고 조용한 유실(幽室)에 들어갔던 이극균은 억울함을 참지 못해 형관 앞에 나와 말하기를 “내 나이 장차 칠십이고 몸은 이미 많은 병이 들어있으니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많은 공적을 쌓았고 지금 아무런 죄가 없음을 내가 돌아가 임금께 아뢰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죽은 넋이 너를 따라다니며 평생 괴롭힐 것이다!”라고 하며 사약을 들이켰다. 형관이 돌아가 연산군에게 그 말을 전하니 왕은 더욱 노하여 이극균의 뼈를 부수도록 명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극균의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연산군은 결국 비운의 종말을 맞게 되었다.

이중열

이윤경(李潤慶)의 아들 이중열(李中悅)은 이조정랑을 역임했으며 학문이 뛰어나 장래를 촉망받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명종조에 을사사화에 연루된 친구 이휘(李輝)를 변호하다 유배되어 사약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 이휘와 친분이 있었던 이중열은 어느 날 시국(時局)에 관련되는 중대한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이중열은 이휘의 일당으로 몰려 죽음을 당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이휘를 고발하여 위험을 모면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이에 부친인 이윤경에게 찾아가 상의했더니 이윤경은 “자신이 죽는 것도 애석한 일이지만 친구를 어떻게 배반한단 말이냐!”라고 말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이중열은 숙부인 영의정 이준경(李浚慶)을 찾아갔다. 이준경은 “우리 선대에서 갑자사화를 당해 언제나 원통하고 억울한데 오늘날 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으니 선조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하면서 가문을 보존할 생각으로 글월을 올려 스스로 변명하라고 하였다.

이윤경

그러자 부친 이윤경이 승정원에서 전갈을 보내 “내가 항상 이휘는 일을 저지를 사람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주의시켰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아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지금 화(禍)가 눈앞에 닥쳤다고 해서 어찌 친구를 팔아 살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라며 이중열을 책망하였다. 결국 이중열은

갑산(甲山)으로 유배되었다. 명종 2년(1547) 3월 11일 밤 부영이가 동북쪽 모퉁이에 모여들어 울어대니 이증열은 이것은 옛부터 불길한 징조라고 하며 죽음을 예감하고 있다가 부영이가 운저 9일만에 사약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정의로운 죽음 뿐만 아니라 문명(文名)으로도 이름을 떨쳤던 광주 이씨는 그 영특함과 명민함에 대한 일화도 또한 다수 전한다. 이수정(李守貞)은 연산군대에 부친인 이세좌(李世佐)와 함께 사화(士禍)에 연루되어 죽음을 맞았고 당시 7세인 맏아들 이윤경과 6세인 둘째 아들 이준경 형제도 귀양을 갔다.

어린 나이로 가난한 귀양살이에 옷이 남루해지고 서케(이의 알)가 많아서 아우인 준경이 굶으며 울자 윤경은 웃으며 “새옷이 입고 싶지?”라고 말했다. “어디서 새옷을 얻을 수 있는데?”라고 준경이 묻자 윤경은 불을 피워 형제가 입고 있던 옷을 태워 버리고 알몸으로 앉아 있었다. 때마침 초하루 날이라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그들을 살피러 왔던 사람이 이를 보고 관에 보고하자 관장은 놀라서 새 무명옷을 지어 입혔다고 한다.

오성과 한음으로 잘 알려진 이덕형(李德馨)은 문장이 뛰어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나라에서 베풀어진 시험에서 매번 장원을 차지했음으로 다른 선비들이 병을 핑계로 하는등 시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겨날 정도였다. 그래서 조정에서 학자 관직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인 대제학에 임명할 인물들을 천거할 때 노사(老師)들은 모두 이덕형을 지목하였다. 이때 한 사람만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 사람은 김귀영(金貴榮)이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자 김귀영은 웃으며 “이덕형이 젊은 나이에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너무 이르니 좀 재주가 무르익고 성숙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이덕형은 김귀영 앞에 큰 절을 하여 노대신(老大臣)의 충고에 감사를 드렸다고 한다.

제보자 이종관씨(원세)

여 백

전주이씨

전주 이씨의 유래

전주(全州) 이씨(李氏)의 시조(始祖)는 신라시대 사공(司空)을 역임한 이한(李翰)이다. 이한은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의 10세손 군윤(軍尹) 김은의(金殷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 우리나라 최대 대성(大姓)의 가문(家門)의 연원을 이루었다.

전주는 전라북도 중앙에 위치한 곳으로 고대 마한(馬韓)의 원산성(園山城)의 터였으며 백제시대에는 완산 또는 비사벌(比斯伐), 비자화(比自火) 등으로 불리었고 신라 진흥왕 16년(555) 완산주(完山州)가 되었다. 그후 경덕왕이 전주로 개칭하였고,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도읍으로 정하여 40여년 동안 통치하기도 했으나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멸망시킨 후 안남도호부라 칭하기도 했지만 공민왕조에 다시 완산부로 변경되었다.

조선 태조조에는 선조의 향(鄉)이라 하여 완산유수부라 하였다가 태종 3년(1403) 다시 전주부가 되었으며 이후 여러 변천을 거쳐 1949년 지방자치법실시에 따라 전주시(市)로 재편되었다.

우리나라 최대의 별족으로 발전해 온 전주 이씨는 대소 120여 분파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분파는 시대에 따라 크게 세 갈래로 구분된다. 첫째는 이태조(李太祖)의 고조부인 목조(穆祖) 이안사(李安社)의 상대(上代)에서 갈려진 시중공파(侍中公派)로 시조 이한의 15세손 이단신(李端信)을 파조(派祖)로 모시고 있다. 또 15세손 이용부(李勇夫)의 둘째 아들 이거를 파조(派祖)로 하는 평장사공파(平章事公派), 18세손 이영습(李英襲)을 파조(派祖)로 하는 주부공파(主簿公派)가 있다.

둘째로 이안사 이후, 이태조 이전에 갈려진 분파로는 이안사의 5형제, 이안천(李安川), 이안원(李安原), 이안풍(李安豐), 이안창(李安昌), 안흥대군의 파와 익조(翼祖) 이행리(李行里)의 아들 이함녕(李咸寧), 이함창(李咸昌), 이함원(李咸原), 이함천(李咸川), 이함릉(李咸陵), 이함양(李咸陽), 함성대군등 12파와 함께 탁조(度祖) 이춘(李椿)의 아들 이완창(李完昌), 이완원(李完原), 이완천(李完川), 완성대군 등의 4파, 환조(桓祖) 이자춘(李子春)의 아들 완풍

대군과 의안대군 등을 포함하여 총 18개 분파가 있다.

세째로 태조의 후대에 갈려진 분파로는 진안대군 이방우(李芳雨)와 함께 대군(大君) 25명, 군(君) 74명을 포함하여 99분파가 있으나 결혼전에 죽은 미취졸(未娶卒)이거나 후사(後嗣)가 없는 20여명 정도의 대군(大君)이 있으므로 실제로 그 분파의 수는 줄어든다.

이처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번창한 가문인 전주 이씨는 현재 까지 그 문벌을 과시하며 여러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주 이씨의 대표적인 인물들

신라시대에 전주 이씨는 시조 이한의 아들 이자연(李自延)이 시중(侍中)을 역임했고 손자 이천상(李天祥)은 복사(僕射)에 올랐으며 증손(曾孫) 이광희(李光禧)는 아간(阿干)을, 현손(玄孫) 이입전(李立全)은 사도(司徒)를 지내는 등 세대를 이어오면서 두루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고려시대에는 15세손 이용부(李勇夫)가 흥무위대장군(興武衛大將軍)을 지냈고 그의 아들 이린(李麟)이 내시집주(內侍執奏)를 역임하면서 문극겸(文克謙)의 딸과 혼인하여 17세에 좌우위 중랑장을 지낸 아들 이양무(李陽茂)를 낳았고 이양무는 18세에 이안사(李安社)를 낳으니 이안사는 이태조의 고조부인 목조이다.

호방한 성품으로 사람들의 신망을 받았던 목조는 전주에 정착하였다가 산성별감(山城別監)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강릉도 삼척현으로 이주했으나 산성별감이 또 강릉도의 안렴사(安廉使)로 부임해와 다시 함길도 덕원으로 옮겨 정착하였다가 원나라로 귀화했다. 귀화하여 목조는 경흥부에서 동쪽으로 30리쯤 떨어진 알동(幹東)에 정착하면서 원주민 5천호(戶)를 다스리는 다루하치(達魯花赤)가 되었다. 고려 고종조였던 이무렵 많은 사람들이 목조를 따르니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에 이때부터 이미 조선 왕

이용부

이안사

업(王業)의 기초가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목조의 벼슬을 물려받은 익조(翼祖) 이행리(李行里)는 원나라 세조를 도와 왜인을 토벌하고 공을 세웠으나 고국에 대한 생각을 잊지 못하였다. 익조가 부인 최씨(崔氏)와 함께 낙산 관음사에서 기도를 올려 낳은 탁조의 맏아들 완창대군 이자흥(李子興)은 병조판서에 증직(贈職)되었고 둘째 아들 환조(桓祖) 이자춘(李子春)은 공민왕의 정책에 부응하여 쌍성(雙城)을 함락시켜 함주(咸州)이북의 땅을 회복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 이후 침입한 왜구를 토벌하여 삭방도만호겸병마사(朔方道萬戶兼兵馬使)에 임명되어 함경도 지방을 다스렸다. 세째인 완원대군 이자선(李子宣)은 완산백(完山伯)에 책봉되었다.

이화

환조의 맏아들 이원계(李元桂)는 홍건적(紅巾賊)의 침입때 개경을 탈환하는 등 공을 세워 2등공신(二等功臣)에 책록되고 왜구를 토벌했으며 요동정벌때는 이성계의 휘하에서 공을 세웠다. 둘째 아들 이화(李和)는 조선개국 후 1등공신으로 의안백(義安伯)에 책봉되었고 두차례 왕자의 난을 평정하여 영의정에 오르면서 대군(大君)에 봉해졌다.

태조 원년(1392) 7월 16일 송경(松京, 開城) 수창궁에서 즉위한 태조로부터 마지막 임금인 순종(純宗)에 이르기까지 조선왕조는 519년 동안 27명의 임금이 계승했던 시대였다. 왕조를 창조한 이성계는 환조 이자춘의 세째 아들이며 시조 이한의 22세손이었고 조선왕조는 모두 전주 이씨 문벌의 시대였다.

이방우

성군들 이외에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보면 진안대군 이방우(李芳雨)는 이태조로부터 '전주 이씨 가문의 백이숙제'(伯夷叔齊)라 불리었고 고려말 공양왕을 옹립했을 때 밀직부사(密直副使)로서 명나라에 가서 정변을 설명하였으나 조선개국 후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해주에 은거하였다. 이부(李籟)는 20세에 요절했으나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종실(宗室)의 현자(賢者)라 불리었고 문과중시(文科重試)에 급제하여 계감(戒鑑)을 편수했으며 학문에도 뛰어났다. 이의건(李義健)은 명종조에 당시의 명사들과 교유하며 시명(詩名)을 떨쳐 유사들의 존경을 받았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었던 이후원(李厚源)은 정의로운

생활로 인간저울이란 뜻인 '의형'(義衡)이라 불리었으며 만년에는 광주(廣州) 선형결에 오재(五齋)라는 집을 짓고 은둔하였다.

정종의 인택에는 선성군(宣城君) 이무생(李茂生)의 증손 이학정(李鶴丁)이 있는데 그는 명종조에 알성문과에 급제하고 명나라에 다녀와서 광국3등공신(光國三等功臣)으로 봉해졌고 영의정에 올랐으나 성품이 충후(忠厚)하고 박학하여 당쟁에도 휘말리지 않았다.

임진왜란 때 유도대장(留都大將) 이양원은 한강을 지키다가 해유치에서 왜군을 격파한 후 영의정에 올랐으나 선조임금이 요동으로 건너가 내부(內府)했다는 잘못된 전갈을 듣고 단식한지 8일 만에 순절하였다. 그의 아들 이시경(李蕃慶)은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부친의 원수를 갚을 것을 맹세하고 의병을 일으켜 진주성 전투에 참가했다가 장렬히 전사했다.

글씨에 뛰어났던 이홍주(李弘胄)는 40년간 관직을 역임하고 영의정까지 지냈으나 그의 집은 초가 두어칸 뿐이었고 조그마한 정원에는 대(竹)와 화초가 조촐하게 피어 있었다고 한다. 효령대군의 6대손 이직언(李直彦)은 선조조에 식년문과에 급제했으며 우찬성에 이르러 청백리에 봉해졌고 이명(李溟)은 인조조에 병자호란후 피폐된 나라의 재정을 맡아 국고의 충실을 기하는 한편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한국 재정(財政)사상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이수광 또한 <지봉유설>(芝峰類說)과 <찬록군서>(纂錄群書) 등 많은 저작을 남기고 있으며 그의 아들 이성구(李聖求)는 인조조에 기생 제도를 폐지하고 모두 고향에 돌려보냈으며 또한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구해주어 저승에서도 계속 영의정을 지내고 있을 것이라는 칭송을 들었다.

익녕군(益寧君) 이치의 후손인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은 서민적 인품으로 영의정에까지 올랐으나 백성들을 생각하고 청빈한 생활로 오리정승이란 칭송을 받았다. 이원익의 종사관으로 활약한 이수록(李綬祿)은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양근으로 은둔하였으며 그의 아들 이경여(李敬與)는 영의정에 올랐다.

숙종조의 상신(上臣) 이명(李命)은 당대에 이름난 석학(碩學)으로 성리학에 정통했으며 특히 청나라의 실학사조에 많은 관심

이양원

이수광

오리 이원익

귀성군 이준

을 보였고 서학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였다. 노론 4대신 중의 한사람으로 영조의 대리청정을 실현시켰으나 소론의 반발에 부딪쳐 남해로 유배되어 무고로 사사(賜死)되었다.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은 문무겸비 명신(名臣)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여 적계1등공신(敵愾一等功臣)에 책록되고 병조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이충작(李忠緯)은 중 보우(普雨)를 비판하다가 유배를 당하기도 했으나 효행이 뛰어나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이외에도 이몽설(李夢說)은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평정하고 보령에 은거하여 학문을 일으켰고 그의 아들 이성(李城)과 이원도 학명(學名)을 떨쳤다. 이상질(李尙質) 역시 학문이 뛰어나 '삼유신'(三儒臣)의 한 사람으로 꼽혔으며 그의 아들 이훤은 절의가 두터웠으며 손자 이조(李肇)는 대제학으로 청백리에 봉해졌다.

홍선 대원군 이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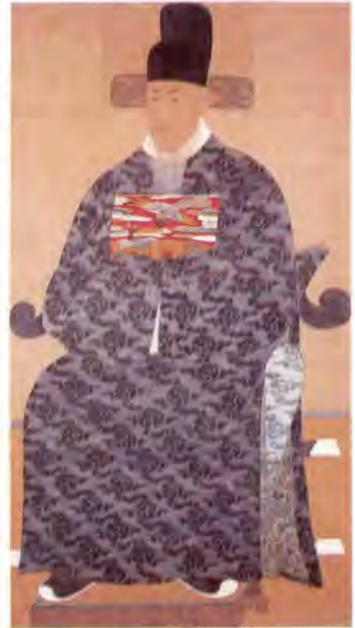
박제가(朴齊家), 이덕무(李德懋), 류득공(柳得恭)등과 함께 한시(漢詩)의 4대가(大家)로 꼽혔던 이서구(李書九)는 순조조에 우의정을 역임했으며 명문장가로 시명이 높았다. 이상황(李相穰)은 순조조에 영의정을 지냈으며 이지연(李止淵)은 헌종조에 우의정으로 <순조실록>(純祖實錄)을 편찬했다. 또 이헌구(李憲球)는 철종조에 좌의정을 지내고 궤장(機杖)을 하사받았으며 홍선대원군 이하응(李昆應)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등이 가문의 명예를 현재에까지 이어왔다.

이승만

광명시에서의 전주 이씨

전주 이씨가 광명시에 정착한 것은 조선전기로 알려지고 있다. 즉 조선 태종의 손자인 수천군의 묘를 소하동에 마련하면서부터 전주 이씨 익녕군파의 후손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가계(家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世 이원익(李元翼)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 승문원 부정자(承文院 副正字), 전적(典籍), 정언(正言), 우부승지(右副承旨), 안주목사(安州牧使), 대사헌(大司憲), 평안도 도순찰사(平安道 都巡察使), 우의정(右議政), 제도도체찰사(諸道都體察使) 겸 영원수부사(領元帥府事), 영의정(領議政), 훈련도감도제주(訓練都監都提調) 역임. 호성공신2등(扈聖功臣二等),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 책봉



이원익의 영정

6世 이의전(李義傳) 고창(高敞), 양성(陽城), 인천(仁川), 과천(果川) 현령(縣令). 풍덕(豐德), 양근(楊根), 안산(安山), 가평(加平) 군수(郡守). 철원(鐵原), 이천(利川) 부사(府使). 가자헌(加資憲) 역임. 증(贈) 좌찬성(左贊成), 완성군(完善君)

7世 이수약(李守約) 연풍현감(延豐縣監), 감찰(監察), 형조좌랑(刑曹佐郎) 역임. 증(贈) 이조참판(吏曹參判), 완릉군(完陵君)

8世 이증현(李曾賢) 직장(直長), 주부(主簿), 교하(交河), 고산(高山), 영유(永柔), 양덕 현령(縣令). 영천(永川) 군수(郡守). 공주(公州) 목사(牧使) 역임, 증(贈) 이조판서, 완창군(完昌君)



이준도의 영정

9世 이존도(李存道) 주부(主簿), 형조좌랑(刑曹佐郎), 정랑(正郎),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현령(縣令), 군수(郡守) 역임. 원종공신(原從功臣). 완성군(完成君) 증(贈) 좌찬성(左贊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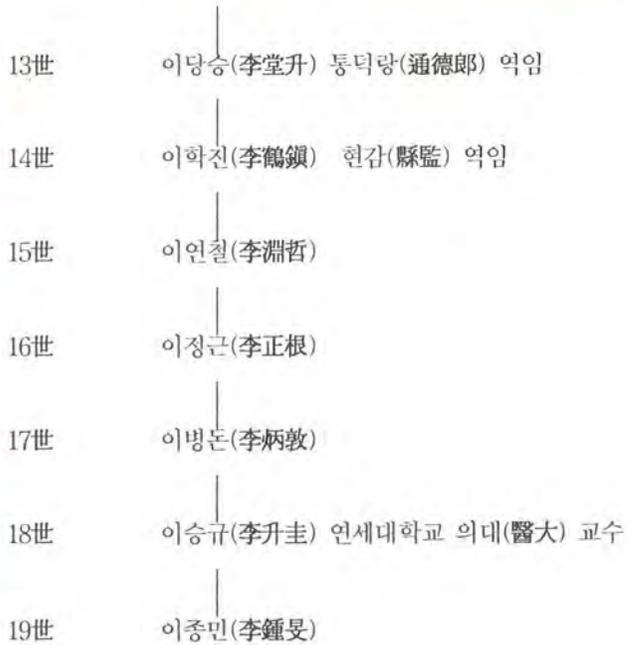
10世 이인복(李仁復) 수찬(修撰), 응교(應教), 도승지(都承旨), 참판(參判) 역임, 완양군(完陽君)

11世 이언수(李彦秀) 청양(靑陽), 적성(積城) 현령(縣令). 온양(溫陽) 군수(郡守) 역임, 증(贈) 이조참판, 완흥군(完興君)

12世 이겸환(李謙煥) 승지(承旨), 대사간(大司諫), 순천(順天), 홍주(洪州), 수안(遂安) 수령(守領) 역임



이인복의 영정



이겸환의 교지

전주 이씨가 정착한 소하동은 조선 전기에는 금천현 서면 지역으로 정조 19년(1795)에는 시흥현 서면 소하리, 가리대리라고 했다가 고종 32년(1895) 시흥군 서면 소하리, 가리대리로 변경되었다. 이어 1914년 시흥군, 안산군, 과천군이 시흥군에 통합되자 시흥군 서면 소하리가 되었다. 이후 변화를 거듭하다가 1981년 광명시 소하동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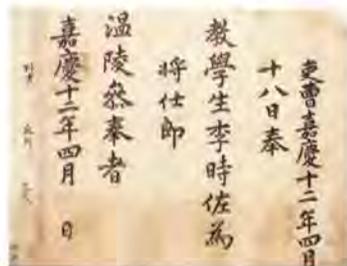
소하동은 실질적으로 행정 중심지로서 가장 번창했던 지역으로 근대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다. 광명시에서 근대적인 첫 교육기관인 서면국민학교가 건립된 이후 교육의 요람지가 되었으며 또한 1931년 동아일보 주최 브나로드운동이 벌어져 한글 강습을 통한 문맹퇴치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1919년 3월 광명시에서 일어난 독립만세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다른 어느 마을보다도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하동에는 '오리동'이란 지명이 생겨날 정도로 전주 이씨 익녕군파의 후손인 오리 이원익의 체취가 물씬 못어나고 있다. 이곳에는 전주 이씨 익녕군파수천군 및 그후손묘들이 있

으며 수천군의 증손인 오리 이원익의 묘소 및 이외에도 그가 40여년간 정승을 지내고 낙향하여 지내던 유적들이 보존되어 있다. 문충공 오리 이원익의 자(字)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로 태종의 막내 아들인 익녕군(益寧君) 이치의 고손자이다. 선조 2년(1569)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에 올랐으며 선조 6년(1573) 뛰어난 중국어 실력과 함께 전직으로 성절사(聖節使)의 질정관(質正官)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선조 8년(1575) 이율곡(李栗谷)의 천거로 정언에 올랐으나 선조 16년(1583) 선비들이 상소하여 박순(朴淳)과 이이(李珥)를 변호하는 것을 정원(政院)에서 가로막았다 하여 선조의 어명에 따라 우부승지에서 파직되었으나 선조 20년(1587) 안주목사로 등용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선조 24년(1591)에는 대사헌이 되어 정여립(鄭汝立)의 옥사(獄事)를 잘못 처리한 정철(鄭澈)을 치죄(治罪)하였고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평안도도순찰사가 되어 선조의 피난길을 수행하였으며 평양의 탈환에 공을 세웠다. 이후 우의정으로 작전을 총괄하고 명나라에 다녀오는 한편 일본과의 화의를 주장했다가 탄핵받은 영의정 류성룡(柳成龍)을 변호한 후 사직했다. 그러나 곧 재임되어 선조 37년(1604) 호성공신2등에 오르고 완평부원군에 책봉되었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이원익은 영의정이 되어 대동법을 실시케 했으며 광해군 7년(1615)에는 폐모론을 반대하다가 홍천에 유배되어 광해군 12년(1619)에 풀려났다. 인조반정과 함께 다시 영의정에 올라 광해군의 처형을 반대하여 유배에 그치게 했으며 인조 5년(1627) 정묘호란 때에는 도체찰사가 되어 세자를 호위했고 훈련도감 도제주를 역임한 후 관직에서 물러나 광명시로 낙향했는데 이후에도 청백리에 올랐다. 사후에는 인조묘정에 배향되었다. 또한 여주 기천서원, 광명시의 충현서원, 안주의 청천사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오리집>(梧里集), <속오리집>(續梧里集), <오리일기>(梧里日記) 등이 있으며 작품으로는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가 있다.

이외에도 전주 이씨의 후손들은 많은 문명(文名)을 떨쳤는데 태종의 손자로 익녕군 이치의 아들인 이정은(李貞恩)은 수천부정



이시좌의 교지

이원익의 업적

(秀泉副正)을 거쳐 증친부도정(宗親府都正)을 역임했다. 이후 수천도정(秀泉都正)에 책봉되고 수천군(秀泉君)에 봉해졌으며 음률(音律)과 시(詩)에도 뛰어났다. 이효성(李孝誠)은 부정(副正)을 거쳐 병조판서에 이르고 중종 원년(1506) 정국공신2등(靖國功臣二等)에 올라 운수군(雲水君)에 봉해졌다. 그는 광진정(廣津亭)을 건립했는데 이후 영조가 춘초정(春草亭)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오리 이원익의 부친인 이억재(李億載)는 종직(宗職)으로 함천부수(咸川副守)를 지내고 중종 30년(1535) 함천도정(咸川都正)에 올라 선조 15년(1582) 함천군(咸川君)에 봉해졌으며 보조공신(補祚功臣)에 추증되었다. 오리 이원익의 형인 이원보(李元輔)는 생원시(生員試)에 급제하여 통진군수(通津郡守), 흠곡현령(翁谷縣令)등을 역임했고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이경전

선조조의 문신으로 현령을 지낸 이경전(李經傳)의 아들 이수성(李守誠)은 예조좌랑(禮曹佐郎) 이성전(李性傳)에게 입양되어 생원시에 합격한 후 용담현령, 양근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조선중기 선조조의 무신으로 전주 이씨 양녕대군의 후손인 이순신은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의 휘하에서 중위장이 되어 당항포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큰 공을 세운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적을 크게 무찔렀다. 그리고 노량해전에 참가하였다가 이순신이 전사하자 충무공의 지휘봉을 대신잡아 전군을 지휘하여 승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쟁의 와중에서 모함을 받아 관직에서 파직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선조 37년(1604) 임진왜란때의 공이 인정되어 선무3등공신(宣武三等功臣)에 올랐다. 광평대군 이여(李輿)의 7대손, 남항거사(南港居士) 이후원(李厚源)은 김장생(金長生)의 문인(門人)으로 인조반정 이후 정사공신3등(靖社功臣三等)에 올랐으며 완남군(完南君)에 봉해져 태인현감을 역임했다. 인조 13년(1635) 지평(持平)이 되었고 이듬해 병자호란 때에는 척화를 주장했으며 인조 15년(1637) 동부승지를 거쳐 대사간, 함경도관찰사, 대사헌, 호조참판 등을 역임했다. 효종 6년(1655)에는 예조판서로 추쇄도감제주가 되어 전국의 노비에게 강화를 방지하게 하고 <악학궤범>(樂學軌範)을 개간하여 사고(史庫)에 보관케 했다. 효종 8년(1657) 우의정에 올라 북벌계획을 추진케 하는 동시

에 송시열(宋時烈)등 인재를 등용하는데 힘썼다. 사후 숙종 11년(1685) 광주 수곡서원에 제향되었다.

또한 이정열(李廷烈)은 영조 26년(1750) 식년시에 급제하였고 이후 도정(都正)을 역임했다. 익녕군 이치의 후손인 이언백(李彦白)의 아들 이문환(李文煥)은 학문이 깊으면서도 벼슬에는 연연하지 않아 몸을 바르게 처신하는데 힘쓰고 스스로 문명(文名)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선조(先祖)의 사당을 관리하는데 힘쓰며 일생을 보냈다.

이종원(李宗遠), 이정석(李貞石) 부자(父子)는 독립운동가로서 가문의 절의를 크게 별쳤다. 1919년 3월 27일 밤 아들 이정석이 독립만세 시위를 하다가 체포되어 노은사리 경찰 주재소에 강제 연행되자 이종원은 이 사실을 최호천(崔浩天), 윤의병(尹宜炳)등에게 알리고 다음날 이정석 탈환사건과 연계된 3월 28일 야간 만세시위 운동의 촉발제가 되었는데, 아들 이정석을 구출할 것을 사람들과 의논하고 다음날 최호천, 윤의병 등과 주민 200여명이 함께 주재소로 몰려가 주재소 구내와 보통학교 뒤편에서 만세운동을 벌였다. 200여명의 군중들은 이정석의 석방을 외치며 게시판과 기물을 파괴하였고 이로인해 몇몇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종원과 최호천, 윤의병도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으나 1992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었다. 또한 이영래(李永來)는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보고 돌아와 3월 27일 만세운동을 모의한 후 그날 저녁 마을 서쪽 언덕위에서 주민 5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크게 외쳐 이 지역의 만세운동을 고양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후 이원익 직계 14세손 이승규(李升圭)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학박사로서 동(同)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에 있다.

이렇게 전주 이씨는 광명시에 정착하여 빛나는 업적을 남겼으며 이로인해 광명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데도 일조를 했다. 이에 광명시에서도 이원익 선생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5월에 오리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장,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들이 오리영정을 참배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이종원, 이정석,
최호천, 윤의병

전주 이씨의 설화 및 전설

선조때 영의정에 올랐던 이양원(李陽元)은 성격이 충후하고 박학하여 당쟁이나 논쟁에 편벽되지 않았다. 어느 늦은 밤 대궐에 입시하였을 때 임금은 술을 권하고 <아로가>(鴉鷺歌)를 지었다.

선조의 <아로가>

“까마귀야, 겁지 말라, 백로야, 회지 말라.
 흑백이 어지럽다. 수리야, 너는 어찌 겁지도 회지도 않느냐”
 (鴉兮莫黑 鷺兮莫白
 黑白之紛如兮 獨
 胡爲乎 不黔不白)

이양원의 <회답가>

이양원이 이에 화답하기를
 “주(朱)라 해도 내 아니요, 녹(綠)이라 하여도 내 아니라
 주록이 현람함도 내 고음이 아니이늘
 님은 어찌하여 날 몰라 보시고 물들었다 하시오”
 (謂朱非我兮 謂綠非我
 朱綠之眩晃兮 又非我之娜也
 君胡爲乎不我知 謂我兮染夏)

하니 임금이 그의 편중됨이 없음을 알고 더욱 어질게 여겼다.

덕천군(德泉君) 이후생(李厚生)의 아들 이효백(李孝伯)은 당대에 활 잘쏘는 '칠사종'(七射宗)으로 불리었으며 뛰어난 지감(知鑑)으로도 유명했다. <원교집>(圓峯集)에 의하면 그의 무덤이 광주(廣州) 도논리(道論里)에 있는데 그 터는 평소 그가 활을 쏘고 사냥하던 곳이었다. 그는 항상 언덕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반드시 이곳에 묻히기를 원했다.

어느날 활줄이 갓끈에 튕겨져서 갓끈에 달렸던 큰 구슬을 잃었는데 장사할 때 파놓은 구덩이에서 그 구슬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태종의 맏아들인 양녕대군 이제는 왕세자로 봉해졌으나 세종

의 현명함을 위해서 창광자자(猖狂自恣)라 하며 왕위를 물려주고 여생을 두루 방랑했다. 둘째 아들 효녕대군 이보(李補)는 불교를 깊이 믿었다. 맏형인 양녕대군이 사냥개를 끌고 어깨에는 사냥매를 엮고서 그가 있는 절에 와서 절 마당에 사냥한 짐승을 내려놓고 자주 놀다가 갔다.

그런데 하루는 이를 불쾌하게 생각한 효녕대군이 “형님은 지옥이 두렵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양녕대군은 빙긋 웃으며 “이승에서는 임금의 형이요, 저승에서는 보살의 형이니 어찌 지옥에 갈 리가 있는가?”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광명시 소하동에는 이원익의 채취가 한껏 묻어있다. 조선 중엽 영의정을 4회나 역임했던 이원익에게는 귀여운 손녀가 있었는데 장차 성장함에 따라 이원익은 그 손녀 사위를 구하기 위하여 젊은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 보았으나 도무지 마음에 드는 인물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우연히 길에서 한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수려한 그 청년의 외모에 이원익은 마음이 끌렸다. 이에 대감은 하인을 시켜서 그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오라해서 청년의 집이며 문벌이며 이것 저것을 세세히 물었다. 그리고 나서 이원익은 느즈시 청년에게 물었다.

“자네를 내 손녀 사위로 정할 터인데 생각은 어떤가?”

이에 청년은 감사의 말과 함께 큰 절을 올리고 답례했다.

청년이 돌아간 후 이원익은 그의 부인에게 신랑을 정했다고 자랑했다. 이에 부인은 놀라며 “별안간 대감은 무슨 말씀이오이까, 신랑을 길에서 얻으신 것도 아니실 터인데 웬 일이십니까?”라고 묻자 이원익은 그 간의 일을 부인에게 설명했다.

부인은 오히려 크게 걱정했지만 이원익은 “염려마시오, 부인. 그 청년은 장차 크게 될 인물이오”라고 호뭇해 했다.

혼일날이 되어 신랑, 허목(許穆)을 본 부인은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더욱 실망하게 되었다. 더우기 혼례식이 끝나고 신방에 들어가서는 신방으로 들이는 음식상을 허목이 황송한 듯이



이원익의 손녀 사위 허목의 영정

직접 일어나 손수 받는 것이었다. 이를 본 하인이 기가 막혀 오
히려 "신랑양반, 어찌 상을 몸소 받으십니까, 그 까닭을 모르겠
군요"라고 물었다.

그러나 허목은 서슴치 않고 "여보게, 생각해 보게. 음식은 사
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어찌 앉아서 받겠는가"라고 대답했
다. 이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과연, 그렇기는 하다"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오리정승의 손녀 사위가 된 허목은 거의 말이 없었다.
다른 사람이 물어야 겨우 대답할 정도여서 다른 사람들은 답답
하게 여기고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나 오리정승만이 항상 그를 감싸 주었는데 어느날 허목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생각컨대, 자네가 어딘가 먼 곳을 다녀보
고 싶은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떤가?"라고 하자 허목이 대답하기
를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어디든 가보고 싶습니다"라 했다.

이 말을 들은 오리대감은 쾌히 승낙을 하고 이튿날 준비를 갖
추게 하여 길을 떠나게했다. 이렇게 길을 떠난 허목은 석달 후
매우 검게 그을린 모습으로 표연히 돌아왔다. 그리곤 오리대감
께 예(禮)를 올린후 마주앉았다.

"잘 다녀왔느냐, 그래 어느 누구를 만났느냐?"

"예, 장여헌(張旅軒)을 비롯한 몇몇 학식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이에 오리대감은 반색을 하며 "과연 좋은 일을 했다. 사람들
을 만나서 얻은 것도 많았겠구나?"

"들은 이야기도 많았지만 몇 권 책도 얻어 왔습니다. 뿐만 아
니라 아주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오리대감은 매우 만족해 하며 부인에게 넌즈시 "우리 손주사
위는 영특하니 경솔히 여기지 마시오. 후에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요"라고말했다. 그러나 부인은 "말도 할 줄 모르는 병어
리고 보니 그다지 중히 될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여전히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허목은 오리대감의 안목대로 그 후에 영의정까지 역임
하며 크게 이름을 날렸다.

덕수장씨

덕수 장씨의 유래

덕수(德水) 장씨(張氏)의 시조(始祖)는 장순룡(張舜龍)으로 원래는 이슬람계 사람(回回人)이었으나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귀화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장순룡의 부친 장백창(張伯昌)은 몽고의 후신인 원나라 제 5대 세조때에 비테시라는 벼슬을 지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전한다.

장순룡은 고려 충렬왕이 즉위하던 해, 고려 원종 15년(1274) 원나라 세조의 딸인 충렬왕비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本名은 忽都魯揭里迷失)를 배행하여 고려에 와서 처음에는 낭장(郎將) 벼슬을 지내다가 충렬왕 3년(1277)에 장군으로 승진되자 왕으로부터 성명을 하사받고 귀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삼가(三哥)'라고만 불려지던 초휘(初諱) 대신에 비로소 '장순룡'이라는 성과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덕수 장씨의 시조는 장순룡

그 후 충렬왕 7년(1281) 원나라로부터 선무장군(宣武將軍) 진변관총관(鎭邊管總管)에 임명되었고 이후 정동행중서성(征東行中書省) 도진무(都鎭撫)의 벼슬을 역임하였으며 충렬왕 18년(1292) 부지밀직사사(副知密直司事),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등을 거쳐 첨의참리(僉議參理)에까지 이르렀으나 충렬왕 23년(1297) 12월 15일에 44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사후 나라에서는 '공숙(恭肅)'이라는 시호를 내려 죽음을 애도하기도 했다.

묘소는 개풍군 청교면 혹은 영남면 그리고 덕수현의 폐읍(廢邑, 興旺里)에서 25리쯤 떨어진 여미산 기슭에 모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공숙공의 저택은 지금의 개성 철도공원이 위치한 곳에 있었으며 매우 넓고 아름다웠는데 밖으로 쌓여진 화초담은 당시에 장가장(張家牆)으로 유명하여 시조생존 당시 충렬왕이 평소에도 자주 이곳에 다녀가기도 했다. 또한 공숙공 사후 2개월만인 충렬왕 24년(1298)에 아들 충선왕에게 왕위를 빼앗긴 충렬왕은 이 저택으로 이사하고 이를 덕자궁(德慈宮)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리고 '덕수'(德水)를 본관으로 삼게된 것은 공숙공이 중국

소주로부터 제국공주를 따라 부친을 모시고 고려 정주(貞州, 豊德의 옛 지명)땅에 잠시 머물다가 귀화후 첨의참리에 이르면서 덕수현(德水縣)을 식읍(食邑, 領地)로 하사받으면서부터였다. 덕수현은 본래 고구려의 덕물현(德勿縣, 또는 仁勿縣)으로, 신라 경덕왕때부터 덕수현으로 불려지다가 그후 개성군의 영현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정주(貞州), 덕수현, 해풍군(海豊郡)등으로 바뀌었다가 조선시대에는 다시 덕수현, 풍덕군, 개성부등으로 개칭되었고, 일제시대에는 개성군에서 개풍군으로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덕수는 지금의 개성

덕수 장씨의 대표적인 인물들

시조 장순룡의 맏아들 판사공(判事公) 장양(張良)은 판사(判事)를 지냈고 둘째 아들 정주공(貞州公) 장운(張芸)은 신호위대장군(神虎衛大將君)을 지냈으며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위사공신(衛社功臣) 봉(封) 정주백(貞州伯)등의 증직(贈職)을 받았다. 세째 아들인 평리공(評理公) 장선(張瑄)은 충선왕 2년(1310) 검교평리(檢校評理)로서 광주목사(廣州牧使)로 부임하였는데 제상으로서 목사의 외직(外職)에 임명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며 이후 평양부윤(平壤府尹)과 검교평리를 역임하였다.

덕수 장씨 문중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삼대(三大) 중시조 중 한 사람인 전서공(典書公) 장우빈의 맏아들 장우(張羽)의 아호(雅號)는 두촌(杜村)이다. 장우는 고려때 예부의랑(禮部議郎)의 관직을 역임했으나 그후 두문동(杜門洞)에 은거하여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조선의 건국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친 이태조의 소명으로 부득이 아우 장핵, 황희(黃喜)와 함께 조정으로 나아가 법률을 정하고 예악(禮樂)을 일으켰다. 태조 5년(1396) 문과에 급제한 후 이조판서 겸 영경연사(領經筵事),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춘추관사(春秋館事), 오위도총부도총관등을 역임했다.

장우

장정

주부공(主簿公) 장균(張均)은 성종 17년(1486) 사마시에 급제하였고 종부시(宗簿侍) 주부(主簿)를 역임하였다. 장정필(張貞弼)은 태종 13년(1413)에 태어나 가선대부(嘉善大夫) 황해도 관찰사 겸 순찰사(巡察使) 병마수군 절도사와 상호군(上護軍)등을 역임하였다.

하원군(河源君) 장정(張珽)의 자(字)는 정패(珽佩)이다. 장정은 사마시에 합격하고 무과(武科)에 등과(登科)했다. 성종 21년(1490) 선전관에 발탁되고 의주판관(義州判官)을 거쳐 한성부판관을 지냈다. 한때는 대마도 치위관(對馬島 致慰官)을 역임하기도 했고 창성부사(昌城府使) 재임중에 화재로 인하여 창고가 소실됨으로써 파직의 위기에 몰렸으나 의정부에서 장정의 뛰어난 무예를 예석히 여긴 나머지 왕에게 상소하여 곤경을 벗어났다.

그러나 수원부사 재직시 연산군의 귀비인 장녹수(張綠水)가 부당하게 차지한 토지를 부임하던 날로 즉시 농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동시에 모든 폐단(弊端)을 척결하여 명관으로 명성이 높았으나 이일로 말미암아 파직당했다. 연산군의 실정이 날로 더해지자 장정은 연산군의 아우 진성대군(晉城大君)을 옹립하기 위한 중종반정에 가담하였다. 중종 즉위후 병충분의(秉忠奮義) 결책의 운정국공신(決策翊運靖國功臣) 1等に 책록되고 하음군(河陰君)으로 봉군되었으며 다시 자헌대부(資憲大夫) 하원군(河源君)으로 승직되어 하원군파의 중시조(中始祖)가 되었다.

중종 3년(1508) 3월 22일 42세로 임종을 맞으니 나라에서 충렬공(忠烈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며 임금은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여 특별히 1등급의 부의(贈儀)를 내리도록 하명했다. 묘소는 고양군 벽제읍 내유리에 있다.

장옥

장옥(張玉)의 자는 자강(子剛), 호는 유정(柳亭)이다. 중종 10년(1515) 알성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이듬해 정언으로 특진하고 부수찬, 천문예습관을 거쳐 응교가 되었다. 이후 문과중시에 을과로 급제한 뒤 병조정랑, 군자감 부정등을 역임했다. 명종 2년(1547) 봉상시정을 거쳐 예빈시정으로 춘추관 편수관이 되어 <중종실록>(中宗實錄)을 편수하고 판교에 올랐다. 저서에는 <유정유고>(柳亭遺稿)가 있다.

덕수 장씨가 배출한 인물들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인

물로는 문충공(文忠公) 장유(張維)를 꼽을 수 있다. 장유의 자(字)는 지국(持國)이고 호는 계곡(谿谷) 또는 묵소(默所)이다. 김장생의 문인으로 약관의 20세의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23세인 광해군 1년(1609)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로 장원급제하여 이듬해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겸 설서(說書)를 지냈으며 광해군 3년(1611)에는 승정원주서(承政院注書)와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을 역임했다.

장유

인조반정(仁祖反正)에 가담하여 호당(湖堂)에 발탁되고 정사공신(靖社功臣)에 올랐다. 인조 2년(1624)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공주(公州)로 왕을 호위하여 신흥군(新豐君)에 책봉되었으며 이후 대사헌, 성균관대사성 등을 거쳐 이조참판, 부제학 등을 지냈다.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강화(江華)로 왕을 호종(扈從)하여 환도(還都)후에 이조판서로 승직되었고 이후 대제학, 동지춘추관사, 지경연사 등을 겸임하였다.

병자호란때는 공조판서로 최명길(崔鳴吉)과 함께 화의를 주장했으며 이후 우의정에 올라 신흥부원군(新豐府院君)에 봉임되었다. 학문으로도 이름이 높아 많은 저술을 남겼으나 정묘호란때에 대부분 분실되어 현재에도 <계곡집>(谿谷集), <계곡만필>(谿谷漫筆), <음부경주해>(陰符經註解) 등이 남아있다. 또한 이정구(李廷龜), 신희(申欽), 이식(李植)과 함께 조선 한문학의 4大家로 일컬어졌고 고려, 조선대를 통틀어 김부식(金富軾), 김창협(金昌協), 홍석주(洪奭周), 김택영(金澤榮), 이제현(李齊賢), 이식(李植), 박지원(朴趾源), 김매순(金邁淳)등과 함께 9대 한학자로 꼽힌다.

그의 딸이 봉림대군(효종)에 출가했으나 효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죽고 말았다. 장유의 부친 정민공(貞敏公) 장운익(張雲翼)은 선조조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양양부사(襄陽府使)로 재직시 정철(鄭澈)의 일당으로 몰려 유배되었다가 임진왜란 중에 풀려났다. 정유재란 때는 이조판서로서 명나라 제독(提督) 마귀(麻貴)를 영접하여 그와 함께 울산싸움에 참전하기도 했다.

장운익

장유의 아들 정장공(正莊公) 장선징은 인조조에 등용되어 현종

장선징

조에 풍양군(豐陽君)에 습봉되고 예조판서에 올랐다. 숙종 원년에는 남인에게 몰려 귀양가게 된 송시열(宋時烈)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장유의 아우 장신(張紳)은 평안도 관찰사를 지냈고 장신의 아들 장선충(張善沖)은 백부(伯父)의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학문에만 전념했는데 숙종조에 박세채(朴世采), 민정중(閔鼎重)등의 천거로 호조참의에 올랐으나 곧 사직했다.

이상과 같이 덕수 장씨는 비록 역사는 짧지만 이후 조선시대에 왕비 1명, 상신 1명, 호당 2명, 공신 3명, 문과급제자 8명을 배출하면서 가문을 번창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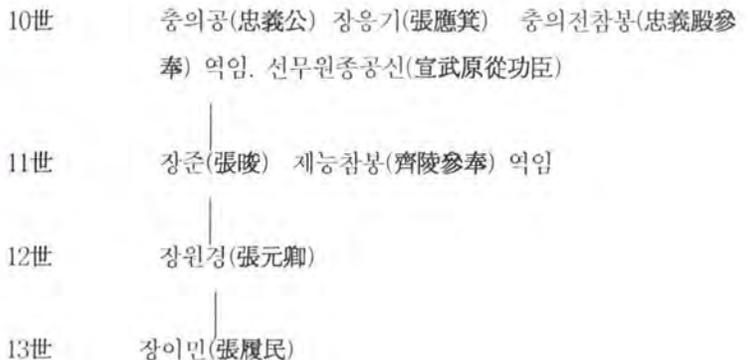
충의사 전경

광명시에서의 덕수 장씨

덕수 장씨가 광명시에 정착하게 된 것은 선조 26년 행주대첩시 권율 장군의 휘하에서 용전분투(勇戰奮鬪)하다 장렬하게 전사한 충의공(忠義公) 장응기(張應箕)의 영정을 그의 아들 장준(張峻)이 고향 행주에서 철산으로 옮겨 오면서부터이다. 충의공 장응기가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책봉되면서 현재 철산동 12단지 뒤 충의사에 배향되면서 덕수 장씨가 광명시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후 덕수 장씨의 가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충의사 묘정비





처음 철산 3동 지역인 우두리(牛頭里. 마을의 형세가 소머리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에 정착하였고 이후 150여가구에 달하는 집성촌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70세대 정도만 거주하고 있다.

광명시에 정착한 이후로 주로 농사를 지으며 평범하게 살아오면서도 언제나 지역사회에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먼저 독립유공자인 장원겸(張元謙)은 1907년 음력 8월 14일 밤 당시 42세로 박홍석(朴弘錫), 연창수(延昌洙) 등 수십명의 주민들과 함께 총기를 휴대하고 직산군 읍내에 잠입하여 주재경찰의 총기를 빼앗아 달아났으나 얼마뒤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경성재

관소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으나 그 형량이 경감되었다고 한다. 이후로도 덕수 장씨는 광명시와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서 광명시 향토인의 모임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증진시키며 지역개발 및 발전을 위한 제안, 협조를 가능케 하면서 경제, 기술, 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금오회'(衿梧會)에 참가하였다. 제보자는 장순한(48)이다.

덕수 장씨의 설화 및 전설

공숙공 장순룡의 일화

고려 충렬왕때에 장군, 대장군의 벼슬을 역임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원나라에 사행(使行)을 다녀온 시조 공숙공(恭肅公) 장순룡(張舜龍)은 성격이 지극히 엄격하여 왕에게 직언을 서슴치 않았다. 하루는 충렬왕이 마제산에서 사냥을 하기 위하여 활터를 수강궁(壽康宮)에 차리고 수많은 승려들을 모아 놓았다. 이를 본 공숙공 장순룡은 “왕께서 부처를 위하고 이같이 승려를 모아 공양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냥을 좋아하시니 무슨 공덕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직언하였다. 이에 충렬왕이 깨닫는 바가 있어 더욱 공숙공을 아끼고 다시없는 충신으로 여겼다고 한다.

조선 4대문장가 문충공의 딸은 인조왕의 왕자인 봉림대군과 가례(嘉禮)를 행하여 세자빈으로 책봉되었고 이후 인선왕후가 되었다. 이렇게 세자빈으로 간택하게 된 데에 한 일화가 전한다.

어느날 아침 인조대왕께서 세수를 하기위하여 대야앞에 섰는데 갑자기 무지개가 찬란히 뻗쳐서 한 끝은 세수대야에 닿았고 또 한 끝은 멀리 뻗쳐 있었다. 왕은 이를 이상히 여겨서 신하를 불러 무지개의 끝 닿은 곳을 찾아가 그곳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도록 명했다.

즉시 관원들은 무지개를 좇아 그 끝 간곳을 찾아가니 그곳은 안산 해변의 개펄이었는데 때마침 문충공의 딸이 그곳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다. 이곳에 당도한 관원들은 문충공의 딸에게 육지로 나오기를 재촉했으나 공의 딸은 “그대들이 누구인데 나를 그곳에 나오라 하는가?”하고 버텼다.



문충공 장유의 영정

이에 관원들이 상감의 분부로 교자를 가져왔으니 이 교자에 오르기를 다시 한번 청하자 이에 대하여 “상감의 분부가 계셔서 교자를 가져왔으면 이 개펄로 델 것이지 어찌 나더러 그곳으로 나오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관원들은 하는 수없이 개펄까지 들어가서 공의 따님을 모시고 갔다고 한다.

제보자 장순한씨(48세)



문충공의 딸 인선왕후의 능

여 백

영 일 정 씨

영일 정씨의 유래

영일 정씨의 시조 정습명

영일(迎日) 정씨(鄭氏)의 시조(始祖)는 정습명(鄭襲明)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영일 정씨'라는 가문이 생긴 것은 유리왕 9년(32) 봄 진한(辰韓)의 6부(部)의 촌장들에게 왕이 각각 이씨(李氏), 최씨(崔氏), 손씨(孫氏), 정씨(鄭氏), 배씨(裴氏), 설씨(薛氏)의 성(姓)을 하사하였는데 이때 진한의 제4 자산 진지부(珍支部)의 부족장이었던 지백호(智伯虎)는 그 부(部)의 명칭이 본피부(本彼部)로 개칭되면서 정(鄭)씨의 성(姓)을 받은 것이 시초가 되었다. 지백호는 화산이라는 곳에 정착했던 사람인데 이곳이 곧 진지부의 본고장이다.

6부촌의 내력

여기서 6부촌이란 진한때 하늘로부터 여섯사람의 큰 인물이 내려와 수장이 되어 각각 하나씩 다스리던 마을을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 그 하나는 알천(闕川) 양산부란 마을이고 그 수장은 알평(諱平)이며 그는 처음에 표암봉(瓢岩峯)에 내려왔다. 두번째는 돌산(突山) 고허부(高墟部)로 그 수장은 소벌(蘇伐)이며 처음에 형산(兄山)에 내려왔다. 세번째는 무산(茂山) 대수부(大樹部)란 마을로 그 수장은 구예마(具禮馬)이며 처음에 니산(尼山)에 내려왔다. 네번째는 자산 진지부로 수장은 지백호이며 처음에 화산에 내려왔다. 다섯번째는 금산(金山) 가리부(加利部)란 마을로 수장은 지타이며 명활산(明活山)에 처음 내려왔다. 여섯번째는 명활산 고방부(高耶部)로 그 수장은 호진(虎珍)이며 금강산에 처음 내려왔다.

이들은 신라 시조 박혁거세를 왕으로 옹립하여 왕위에 오르게 했으며 이로인해 6부장은 모두 개국공신이 되었다. 이후 유리왕이 즉위하여 부촌의 이름을 바꾸게 하고 성을 하사했는데 지백호 역시 정씨성을 받았으며 낙랑후(樂浪侯)라는 벼슬에 봉해졌다. 그리고 그의 원손(遠孫) 종은(宗殷)이 신라조에 간관(諫官)으로서 왕에게 직언을 하다가 인동(仁同) 약목현(若木縣)에 유배된 후 후손 의경(宜卿)이 연일로 이주하여 호장(戶長)을 역임하고 영일현 백(迎日縣伯)에 봉해졌으므로 본관(本貫)을 연일로 삼게 되었으며

연일의 지명이 영일(迎日)로 바뀌었기 때문에 영일 정씨라고도 하고 또 연일의 옛이름이 오천(烏川)이었으므로 오천 정씨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때문에 종은을 영일 정씨 가문의 시조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후 혈족의 계대(系代)가 실전되고 소목(昭穆)을 고증할 문헌이 전하지 않아 고려 예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인종조에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로 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를 지낸 정습명을 시조로 받드는 지주사공파(知奏事公派)와 감무(監務)를 역임한 정극유(鄭克儒)를 시조로 하는 감무공파(監務公派)로 나뉘어져 세계(世系)를 잇고 있다.

영일 정씨의 본관인 영일은 경상북도 동해안에 위치한 지명으로 본래 근오지현(斤烏支縣) 또는 오양우현(烏良友縣) 지역으로 신라 경덕왕이 임정(臨汀)으로 고쳐서 의창군(義昌郡, 흥해)에 속하는 한 현(縣)으로 삼았다가 고려시대에 접어들어 연일(延日)로 고쳐서 현종조에 경주에 부속시켰다. '오천군'의 명칭은 오천(烏川)이라는 하천에서 유래한 것이었으며 그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으나 1913년 지방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이웃 흥해군, 청하군, 장기군을 병합하여 영일군으로 개칭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주사공파와 감무공파

영일 정씨의 대표적인 인물들

영일 정씨의 대표적 인물은 지주사공파의 11대손 정몽주(鄭夢周)를 꼽을 수 있다. 동방이학의 시조(始祖)이자 대가이며 우리나라 한국사를 대표하는 충신으로 일컬어지는 포은(圃隱) 정몽주는 충숙왕 6년(1337) 경북 영천에서 일성부원군(日城府院君) 정운관(鄭云瓚)의 아들 4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 남달리 충과 효, 의가 뛰어났던 정몽주는 19세가 되던 해에 부친을 여의자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당시 부모 상제때 상복을 100일만 입던 풍습을 따르지 않고 3년간 묘소 옆에 여막(廬



포은 정몽주

幕)을 지어 살면서 효를 다해 사람들로부터 하늘이 내린 효자라는 칭송을 들었다.

공민왕 9년(1360) 연이어 초(初), 중(中), 종(終) 3장(三場)에 장원으로 급제하면서 예문관 검열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올라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한 후 순충론도동덕좌명공신(純忠論道同德佐命功臣)으로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에 올라 익양군(益陽君) 충의백(忠義伯)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찌기 신진사류의 한 사람으로 고려의 국운을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으며 원나라에 기대어 국정을 유린하던 세력들을 배척하고 원나라를 반대하고 명나라와 관계를 맺으려는 배원친명(排元親明)의 노선을 따름으로써 이성계(李成桂) 등과 연합하여 당시 국제정세에 적응하면서 고려 중흥의 길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열어 왕이 되고자하는 뜻을 품게 되자 정몽주는 단호히 그와 결별하고 최후까지 고려를 위한 절의를 굽히지 않았다. 통일신라를 이어 475년간 34代 왕이 통치했던 고려왕조는 결국 정몽주의 죽음과 함께 마침내 무너졌고 새로운 조선이 개국되면서 고려의 역사와 인물들이 많은 배척을 당했지만 조선 태종은 권근(權近)의 상소를 받아들여 정몽주의 묘를 고향인 영천으로 이장할 것을 허락하였으며 정몽주의 관작을 복구시켜 영의정에 추증하고 그 자손들에게도 토지와 벼슬을 내려주었다.

정몽주의 아들 정종성

정몽주의 아들 정종성(鄭宗誠)은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를 증직했으며 손자 정보(鄭保)는 학문에서 뛰어나 세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세조 즉위후 사육신 사건에 연루된 '8현'(八賢)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정종소

세종 29년(1447) 문과에 급제했던 정종소(鄭宗韶)는 성균관 사성(司成)에 올랐으나 병자사화 이후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였으며 그의 증손(曾孫) 정세아(鄭世雅)는 임진왜란때 아들 정의번(鄭宜藩)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영천에서 적을 격퇴시킨 후 황산도찰방(察訪)을 사직하고 장현광(張顯光), 조호익(曹好益) 등과 더불어 학문을 논하며 후진양성에 전력했다. 그의 아들 정의번은 경주에서 적과 대전하다가 적에게 포위당해 위협에 빠진 부친을

구하기 위해 혈전을 벌이던 중 장렬하게 전사하여 영조조에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다. 또한 정대임(鄭大任) 역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당지산(唐旨山)에서 병력을 매복시켰다가 적을 크게 쳐부수고 돌격대장이 되어 울산 태화진(太和津)에서 역전의 무공을 세웠으나 끝내 전장에서 장렬히 죽음을 맞았다.

정몽주의 10세손 정유성(鄭維城)은 인조 5년(1627)에 문과에 급제하여 현종 원년 우의정에 올랐으며 평소 청빈하기로 명망이 높았다. 정제두(鄭齊斗)는 현종 9년(1668)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였으나 당시 혼란했던 정국을 비판하면서 벼슬을 버리고 학문연구에 몰두하여 이론에만 치우친 주자학적 세계관에 반기를 들고 우리나라 최초로 지행합일, 즉 지식과 행동의 일치를 주장한 양명학(陽明學)의 사상적 체계를 완성했다.

한편 고려시대에 감무를 역임한 정극유를 시조로 하는 감무공파에서 배출한 인물을 살펴보면 정극유의 6세손 정사도(鄭思道)는 충숙왕 복위 5년(1336) 문과에 급제하여 직제학(直提學)에 올랐고 우왕조에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와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역임하고 오천군(烏川君)에 봉해졌다. 그의 손자 정진(鄭鎭)은 조선 선시대에 공조판서를 역임한 후 오천부원군(烏川府院君)에 올라 세종조의 명신 정연(鄭淵)과 함께 가문의 기틀을 다졌다.

또한 정효전(鄭孝全)은 조선 태종의 딸 숙정옹주(淑貞翁主)를 아내로 맞아 일성군(日城君)에 봉해졌으며 단종조에 수양대군이 정난(靖難)을 일으켜 중신들을 살해하자 의분을 참지 못하고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한다.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와 더불어 가사문학(歌辭文學)의 대가로서 한국시가의 쌍벽이라 일컬어졌던 송강(松江) 정철(鄭澈)은 중종 31년(1536) 정유침(鄭惟沈)의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정철은 어린 시절 그의 만누이가 인종의 숙의(淑儀)로 있었기 때문에 동궁에 자주 드나들면서 나이가 비슷한 명종과 교분을 나누었고, 그의 둘째 누이는 계림군(桂林君) 유(瑠)의 부인이 되었으나 을사사화에 계림군이 연루되어 화를 당했고 정철의 부친 정

정제두와 양명학

송강 정철(1536~1593)

유침도 관북(關北) 정평(定平)으로 유배되었다가 명종 6년(1551) 풀려났다. 부친이 유배에서 풀린 후 을사사화의 화를 피해 정철은 모친을 모시고 순천으로 내려가던 중 부호인 사촌 김윤제(金允梯)의 눈에 띄이게 되어 그의 도움으로 지곡(芝谷, 지실), 성산(星山, 별피)에 정주하면서 김윤제의 사위인 류강항(柳强項)의 딸과 혼인하고 김윤제의 조카인 서하당(棲霞堂) 김성원(金成遠)과 동문수학하게 하였다. 성산에서 10년간 학문에 전념하였고 여기서 성산앞을 남북으로 흐르는 시내 죽계천(竹溪川)의 별명인 송강에서 그의 호를 따오게 되었다.

명종 16년(1561) 26세때 진사시에 장원을 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서도 장원을 차지한 정철에게 명종은 어린 시절의 우정을 생각하여 크게 기뻐하며 축하연을 베풀어 주었으나 일찍부터 청백하고 곧은 성품이었던 정철이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에 올랐을 때 명종의 사촌형인 경양군이 자신의 처가의 재물을 약탈하고자 그의 처조카를 죽인 죄로 옥에 갇혔을 때 명종은 관대하게 처리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정철은 법을 고집하여 경양군 부자를 처형하고 말았다. 이에 분노한 명종에 의해 오랫동안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던 정철은 31세때에 비로소 정랑(正郎)에 올랐고 이후 직강(直講)을 거쳐 부승지에 올랐으나 당시에 격렬했던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인(西人)의 영수(領袖)로서 동인(東人)을 견제하며 예조, 형조 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오르는 파란만장한 관직생활을 했다.

그러나 선조 26년(1593)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동인의 모함으로 관직을 사직한 후 강화의 송정촌(松亭村)에 은거하면서 빈곤과 울분으로 병을 얻어 신음하다가 둘째 아들 정종명(鄭宗溟)의 단지(斷指)효성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고 말았다. 그의 유해는 이듬해 2월 고양 신원(新院)에 장사지냈다가 현종조에 진천(鎭川) 지장산으로 안치되었다.

생전에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동인, 서인들간의 반복된 혼란 속에 서 선조 27년(1594) 권유(權楡), 김우옹등의 상소로 삭탈관직되었다가 인조반정 직후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에 의하여 관직이 복구되는 등 그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내려졌으며 숙종

조에 '문청'(文淸)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그러나 정철은 선조 13년(1580) 강원도 관찰사로 나가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순례하면서 지은 <관동별곡>(關東別曲)과 이후 저술인 <훈민가>(訓民歌), 선조 18년(1585) 치열한 당쟁으로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다가 다시 창평(昌平)으로 내려가 4년간 풍류를 즐기면서 지은 <전후미인곡>(前後美人曲)과 <성산별곡>(星山別曲)등을 비롯한 많은 가사와 시조작품들은 국문학사에 있어서 뛰어난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철의 아들 4형제 중 둘째아들 정종명(鄭宗溟)은 인조조에 강릉부사를 지냈으며 막내아들 정홍명(鄭弘溟)은 부제학과 수원부사를 거쳐 대제학에 이르렀고 정종명의 아들 정양(鄭養)은 <어록해>(語錄解)를 간행했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수제자였던 정호(鄭澥)는 영조조에 영의정을 지내며 시문(詩文)과 글씨로 이름을 떨쳤으며 노론의 선봉이 되어 격심한 당쟁속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평소 청빈한 생활로 낙향한 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정우량(鄭羽良)과 정휘량은 형제정승으로 유명했으며 정하연(鄭夏彦)은 <속대전>(續大典) 편찬에 참여하였고 좌부승지, 병조참의를 거쳐 대사간에 이르렀는데 문장과 글씨에 뛰어나 어제(御製)의 편제(篇題)와 홍화문(弘化門)의 편액을 썼다.

이외에도 정후겸(鄭厚謙)은 영조조에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개성부(開城府) 유수(留守)를 거쳐 공조참판에 이르렀으며 정기원(鄭岐源)은 철종조에 어영대장과 훈련대장을 거쳐 지삼군부사(知三軍府事)에 올랐으며 순조조에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를 역임한 정유, 고종조에 법무협판(法務協辦)과 평양부 관찰사를 지낸 정경원(鄭敬源)등과 함께 충절과 학문의 전통가문으로서 영일 정씨를 더욱 빛냈다.

<관동별곡>, <훈민가>



정호의 영정 (1648-1736)

광명시에서의 영일 정씨



족보

영일 정씨가 광명시에 정착한 시기는 영조조로 약 1700년대 초, 중엽으로 추정된다. 광명시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조선의 역사와 많은 관련이 있다.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개국, 그리고 세조의 즉위때에 영일 정씨는 두차례의 큰 화를 당했다. 먼저 고려의 멸망과 함께 했던 정몽주의 죽음에서 드러나듯 조선개국에 반대하고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켜 조선사회 내에서 후손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영일 정씨는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해 단종의 복위운동을 도모하여 또한번 가문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모두가 충과 의를 숭상하는 가문의 전통에서 비롯된 가화(家禍)였으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영조조에 영일 정씨 25세손 정익채(鄭益采)가 처음으로 '갯이불'(현 광명시 하안동 지역)에 정착했다. 광명시에 정착한 가계(家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세	정익채(鄭益采)
26세	정환봉(鄭煥鳳)
27세	정석기(鄭碩基)
28세	정우용(鄭禹鎔)
29세	정수영(鄭壽永)
30세	정필화(鄭弼和)
31세	정언기(鄭然驥)
32세	정덕교(鄭億敎)

33세 정의재(鄭義宰)

34세 정광수(鄭光洙)

조선시대에는 시흥군 서면 율일리로 불렸던 갯이불은 일제시대에는 마을 주위가 삼림으로 우거져 흡사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가림동'으로 불리었으며 해방후 1964년 시흥군 서면 하안 4리로 되었다가 1981년 광명시 하안동으로, 1987년에는 도시계획에 따라 폐동(廢洞)이 되어 하안동으로 흡수되었다.

경기도 광주에서 이주해 온 정의재는 가문이 처한 상황때문에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고 비록 매년 흉수로 인한 수재를 겪었지만 착실히 농업에 종사하며 일생을 보냈고 이후 후손들 역시 이와 유사한 삶을 살았다. 정연홍(광명민족통일협의회회장)등이 광명시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현재 광명시에서 영일 정씨는 26世 정환봉(鄭煥鳳)부터 묘소를 모시고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첫 일요일 제사를 올리고 있다.

매년 10월 첫 일요일에
제사를 올림

영일 정씨의 설화 및 전설

영일 정씨의 관향(貫鄉)인 영일에 있는 일월지(日月池)라는 연못에 관련된 전설이 <여지승람>에 전한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신라 아달왕(阿達王)때 동해가에 연오랑(延烏郎)이라는 남자와 세오녀(細烏女)라는 여자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고 있었다. 하루는 연오랑이 바다가에서 미역을 따다가 홀연 물살에 밀려 표류하다가 일본의 어느 작은 섬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왕이 되었지만 그의 아내 세오녀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에타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연오랑을 찾아 나섰다. 세오녀는 여러 곳을 방황하던 중 연오랑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에 당도하여 꿈에 그리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여지승람>
영일의 일월지 전설

그런데 이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을 잃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당황한 왕이 그 까닭을 알아보라 이르니 일관(日官)이 임금께 아뢰기를 연오랑과 세오녀는 해와 달의 정령인데 지금 일본에 갔기 때문에 해와 달이 빛을 잃는 것이라 하였다. 이 말에 놀란 임금은 서둘러 두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두 사람을 찾아온 신하에게 그 말을 전해들은 연오랑은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늘의 뜻이다”라고 말하며 세오녀가 짠 명주옷감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면 해와 달이 다시 빛을 찾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신하가 돌아와 임금께 이를 아뢰고 명주옷감을 내놓자 임금이 말을 따라 동해안 마을의 연못에서 제사를 지냈더니 과연 해와 달이 다시 빛을 되찾았다. 그리하여 임금은 그 옷감을 창고에 넣어 잘 간수하라 이르고 이 일로 인하여 그 못의 이름을 일월지(日月池)라 하였으며 마을 이름도 연일현(延日縣)이라 하였다.

정몽주

고려시대의 충신 정몽주는 그의 어머니 이씨(李氏)가 아름다운 난초화분을 안고 화단으로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화분을 깨뜨리는 꿈을 꾸고 사흘 후에 낳았다고 하여 처음에는 이름을 '몽란'(夢蘭)이라 했다. 그 후 몽란의 나이가 아홉 살 되던 해 그의 어머니가 대낮에 물레질을 하다가 고단하여 깜빡 잠이 들어 꿈을 꾸는데 금빛나는 한 마리 용(龍)이 뜰에 있는 배나무 위에서 배를 따먹으며 빙그레 웃고 있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 나무를 쳐다보니 몽란이 배나무 위에서 용처럼 웃고 있었다. 이런 일이 있던 뒤 그의 어머니는 '몽'(夢)자에다 '용'(龍)자를 붙여 '몽룡'(夢龍)이라고 고쳐 불렀다.

몽룡이 18歲 되던 어느날 새벽 그의 아버지 정운관(鄭云鑑)의 꿈에 중국의 옛 현인 주공(周公)이 나타나 말하기를 “몽룡은 후세에까지 가문과 명성을 길이 빛나게 할 것이니 소중히 키워라” 하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관례를 치르면서 주공의 '주'(周)자를 따서 이름을 '몽주'(夢周)라 고치게 되었다.

벼슬에 나아간 정몽주는 고려에 절의를 지키며 이성계와 결별

하였다. 그러나 이성계의 야심은 꺾일 줄 몰랐는데 정도전(鄭道傳), 남은(南閻), 조준(趙浚) 등을 중심으로 한 이성계(李成桂) 일파의 혁명모의(革命謀議)가 한창 무르익던 어느날 밤 정몽주는 이성계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문병을 구실로 그를 방문하였다. 이때 이성계의 아들로 후에 태종에 즉위한 이방원(李芳遠)이 술자리를 마련하고 정몽주의 심중을 떠보기 위하여 <하여가>(何如歌)를 지어 불렀다.

이방원의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서낭당 뒷담이 무너진들 또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칫이 얽히진들 또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이 안 죽으면 또 어떠리
 (如此赤何如 如彼赤何如
 城隍堂後垣 頽土+己 赤何如
 我輩苦此爲 不死赤何如)

이방원의 의도를 눈치 챈 정몽주는 술잔을 보내며 <단심가>(丹心歌)를 지어 이에 화답하였다.

정몽주의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이 일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닢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此身死了死了 一百番更死了
 白骨爲塵土 魂魄有也無
 向主一片丹心 寧有改理也歟)

이를 들은 이방원은 정몽주의 절의를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불가피하게 그를 제거해야 함을 인지했다. 그래서 결국 심복부하인 조영규(趙英珪)를 시켜 선지교(選地橋) 밑에 숨어 있다가 정몽주가 지날 때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정몽주는 이 사실을 변중량(卞中良)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으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조용히 기다렸다.

죽음이 기다리던 날 아침, 조상들의 신위에 절을 올리고 부인과 두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가문은 충효를 숭상하는 가문이니 조금도 낙심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한사코 말려도 뒤를 따르는 녹사(錄事, 의정부 중추부사의 한 벼슬) 김경조(金慶祚)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길을 나서서 친구 성여완(成汝完)의 집에 들러 술을 마신 후 다시 말을 타면서 수행하는 김경조에게 말하기를 “너는 뒤에 좀 떨어지거라”라고 하자 김경조는 “소인은 대감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정몽주는 말을 거꾸로 타고 김경조에게 말을 끌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이라 맑은 정신으로 죽을 수 없어 술을 마셨고, 흥한이 앞에서 흥기로 때리는 것이 끔찍하여 말을 돌려 탄 것이다”라고 말하며 선지교로 향하였다. 정몽주와 김경조가 다리를 건너려는 순간 조영규를 비롯한 4-5명의 괴한이 나타나 쇠몽치를 휘두르며 달려 들었다. 이에 앞서가던 김경조가 먼저 쓰러지고 이어 정몽주가 피를 흘리며 말에서 떨어져 숨을 거두었다.



선죽교

이때 정몽주의 나이 56歲였으며 그가 선혈을 흘린 선지교에는 이듬해부터 돌 틈에서 대나무가 자라나 정몽주의 충절을 나타냈다고 하여 이후 선지교를 선죽교(選竹橋)라 부르게 되었다. 이후 정몽주를 역적으로 몰았기 때문에 그의 시신을 내버려 두었으나 송악산(松樂山)의 승려들이 이를 수습하여 풍덕(豐德) 땅에 묻었다. 정몽주는 비운의 최후를 맞았지만 그러한 절박한 상황속에서 자신을 불태워 절의를 지켰던 그의 충정과 의지는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정몽주의 손자 정보

정몽주의 절의를 이어받은 손자 정보(鄭保)는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자 그들의 무죄를 주장한 말이 한명회(韓明澮)를 통해 세조에게 알려져 문초를 당했다. 이때 정보는 “나는 항상 성삼문(成三問)과 박팽년을 성인군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좌우에 있던 대신들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했으니 처형하기를 청합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세조는 수레로 찢어 죽이라고 명령하고 나서 “그 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물었는데 신하들은 그가 정몽주의 손자라는 것을 아뢰었다. 그러자 세조는 급히 명하여 형벌을 그치게 하고는 “충신의 후손이니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귀양에 처하도록 하라”고 고쳐 명령하였다고 한다.

영일 정씨가 광명시에 처음 정착한 마을인 ‘갯이불’(현 하안동 지역)은 그 이름에 유래가 있다.

그 마을사람 중에 심씨의 성(姓)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심씨가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취기가 올라 양지널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때 심씨가 미쳐 끄지 않았던 담배불이 마른 나무가지에 옮겨 붙으면서 산불이 났다. 이에 심씨의 뒤를 따라오던 그의 개가 주인이 위험에 처하자 주변의 냇가에서 털을 적서 불길이 번져오지 못하게 했다.

심씨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개는 이미 큰 화상을 입어 털이 거의 빠진 상태였다. 심씨는 개의 정성에 감복하여 개에게 이불을 해주었고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마을 이름을 갯이불이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보자 정연찬씨

여 백

초계정씨

초계 정씨의 유래

정씨의 성관은 210여 본



시조 홍문공 정배걸의 묘역과 광덕동

정씨의 관향 초계는 합천군

정씨의 성관(姓貫)은 초계, 경주, 동래, 영일, 진주, 하동, 해주, 온양, 청주, 광주 등 210여 본(本)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초계(草溪) 정씨(鄭氏)는 고려 초 석학으로 유명했던 정배걸(鄭倍傑)을 그 시조(始祖)로 받들고 있다. 정배걸은 초계 성산(城山) 출신으로 고려 현종 8년(1017)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문종조에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역임했는데 이와 아울러 많은 제자들을 두고 그 학문을 가르쳐서 십이공도(十二公徒)의 하나인 '홍문공도'(弘文公徒)를 이루어 "유가(儒家)의 대가요 백세의 존사(尊師)"라고 칭송받았다. 이후 정배걸은 홍문광학추성찬화공신(弘文廣學推誠贊化功臣)으로 개부의동삼사수태위문하시중상주국광유후(開府儀同三司守太尉門下侍中上柱國光儒侯)에 이르고 초계군에 봉해졌으며 이후 후손들은 초계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초계 정씨의 관향(貫鄉)인 초계는 경상남도 합천군에 속해있는 지명으로 본래 신라의 초팔혜현(草八兮縣)이 위치했던 곳이었는데 신라 경덕왕조에 팔계(八溪)로 고쳐서 강양군(江陽郡) 합천의 옛이름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가 고려시대에 접어들어 초계로 개칭하였고 현종 9년(1018)에는 합주(陝州)에 부속시켰다. 명종조에는 감무(監務)를 두었고 충숙왕 3년(1316)에는 지군사(知郡事)로 승격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초계군으로 군수를 두었다. 이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 합천군에 병합되어 초계, 적중, 청덕, 덕곡, 쌍책, 율곡, 대양 등 6개 면으로 구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계 정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잘못된 설(說)이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는 지백호(智白虎)의 후손으로 경주 정씨의 36세손에서 파출(派出)되었다는 설과 당오이지란(唐五李之亂)에 정(鄭), 주(周), 변(卞) 3학사가 피난하여 와서 초계 정씨, 주씨, 변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설 등이다. 이러한 오설(誤說)이 나오는 것은 정배걸 이전의 선계(先系)가 실전되어 역사적 고증이 불가능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계 정씨의 대표적인 인물들

<내급사공파>(內給事公派)

초계 정씨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먼저 시조 정배걸의 아들 정문(鄭文)을 꼽을 수 있다. 유복자로 태어난 정문은 고려 문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비서랑(秘書郎)을 거쳐 선종 원년 직한림(直翰林) 겸 사문조교(四門助教)를 역임하였고 이어 지개성부사(知開城府使), 형부원외랑 등을 지냈다. 숙종 9년(1104) 비서감으로 사은사가 되어 송나라에 다녀와서 형부상서, 정당문학 겸 태자빈객(太子賓客)이 되고 같은해 예종이 즉위하자 검교사공(檢校司空), 예부상서가 더해졌다. 또한 정문은 학문이 뛰어나 문명(文名)이 높았으며 좌복야(左僕射),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추증(追贈)되었다. 6세손 선희공(宣僖公) 정필(鄭弼)은 고려조에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 문하시중, 참지정사 겸 판호부사를 역임했고 7세손 소희공(昭懷公) 정부(鄭孚) 역시 문하시중으로 태자사부를 겸하면서 초계 정씨의 기반을 다졌다.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정창(鄭昌)은 세종 14년(1432) 생원을 지냈고 세종 20년(1438) 문과에 급제한 후 시강원 문학, 집현전 수찬등을 역임하였으나 단종조에 정국이 어지러워지자 노모에 대한 봉양을 핑계로 진천(鎭川)현감을 지내다가 세조가 즉위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와 은둔하였는데 그는 또한 어려서부터 문장으로 명성을 날렸다. 정국빈(鄭國彬)은 선전관(宣傳官)을 거쳐 비인(庇仁), 무산(茂山)현감을 지낸 뒤 훈련원 도정(都正)을 지냈으며 네 명의 형과 함께 효성이 지극하여 5효(孝)라고 일컬어졌다.

정여직(鄭汝稷)은 영조 11년(1735) 무과에 급제하고 영조 18년(1742) 부령(富寧)부사로 제임시 선정을 베풀어 표리(表裏)를 하사받았다. 이듬해 공홍도(公洪道) 수군절제사를 거쳐 함경남도 병마절도사, 경기도 수군절도사, 함경북도 병마절도사 등을 지내고 영조 34년(1758) 어영대장(御營大將)이 된 후 우포도대장, 충음사

정문



守夢公 신도비

정여직

(摠戎使), 훈련대장 등을 역임하였다.

효성이 지극했던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은 정용준(鄭用俊)은 부친 정효헌(鄭孝憲)이 이강년(李康年)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에 맞서 싸우다가 1907년 검거되어 총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총살이 집행되기 직전 자신이 부친대신 죽겠노라고 간청하였다. 그러자 일본군도 그의 효성에 감탄하여 감히 그의 부친을 해치지 못했다.

<천호장공파>(千戶長公派)

정요

고려 말 문과에 급제한 정요(鄭耀)는 밀직부사, 화령(和寧)부사등을 역임하고 왜구를 토벌하는데 공이 커서 조선개국 후 자헌대부, 상의문하부사(商議門下府事), 동지절제사(同知節制使) 등을 거쳐 개국공신에 책록되었으며 승정대부(崇政大夫), 판한성부사에 이르렀다.

문숙공 정엽

문숙공(文肅公) 정엽(鄭曄)은 이이(李珥), 성혼(成渾), 송익필(宋翼弼)의 문인으로 선조 16년(1583)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고 감찰, 형조좌랑을 지냈다. 선조 27년(1593) 황주판관으로 재직시 왜군을 격퇴하여 중화(中和)부사가 되었다. 이후 수찬, 장령(掌令), 서천군수를 역임하였고 선조 31년(1597) 정유재란(丁酉再亂)때 급고사(急告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후 사성(司成)이 되고 수원부사를 거쳐 이듬해 응교(應教)로 필선(弼善)을 겸직하였다. 이어 승지, 형조참의, 나주목사를 거쳐 대사간에 이르렀으나 선조 35년(1602) 성혼의 문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종성(鍾城)부사로 좌천되었다. 선조 39년(1606) 성주, 홍주목사를 역임하고 광해군 즉위초 예조참의, 대사성, 승지, 판결사, 대사간, 충청도 관찰사 등을 지냈다. 광해군 4년(1612) 도승지로 왕을 경연(經筵)에 자주 나가도록 했고 2년뒤 공조참판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광해군 9년(1617) 폐모론이 일어나자 자원하여 양양(襄陽)부사로 나갔다가 이듬해 사퇴하고 인조반정 후 대사성 겸 동지경연(同知經筵), 원자사부(元子師傅)가 되어 학제(學制)를 상정했고 두루 관직을 역임했으며 언제나 대사성을 겸함으로써 이때부터 대

사성을 겸직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그후 대사성을 거쳐 좌참찬, 좌부빈객 등을 역임했다.

정문익(鄭文翼)은 선조 39년(1606) 진사가 되고 광해군 3년(1611)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두루 여러 관직을 거쳐 홍문관 교리, 이조참의를 지냈다. 그러나 박승종(朴承宗), 유희분(柳希奮)의 심복이라 하여 권신 이이첨(李爾瞻)의 미움을 받던 중 광해군 8년(1616) 한찬남(韓纘南)의 상변사건(上變事件·해주옥사)에 그의 이름이 들어있어 절도(絶島)에 안치되었다. 인조반정으로 풀려나와 인조 9년(1631) 사신으로 심양에 다녀온 후 충청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정창주(鄭昌胄)는 인조 15년(1637) 진사로서 정시문과에 급제하고 부정자(副正字)를 거쳐 지평이 되어 지제조(知製敎)를 겸직하였다. 인조 24년(1646) 문과중시(文科重試)에 급제하고 효종 4년(1653) 승지에 이르렀다. 또한 그는 문장이 뛰어나 당대의 제1인자로 꼽혔으며 저작으로 <만사집>(晩沙集)을 남기고 있다.

<대제학공파>(大提學公派)

시조 정배걸의 7세손인 정선은 고려 원종 14년(1273)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전주사록(全州司錄)을 거쳐 충렬왕조에 이부, 병부총랑(摠郎), 우상시를 지냈다. 충선왕조에는 첨의평리, 집현전 대제학을 역임했는데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양헌공(良獻公) 정연은 충혜왕 5년(1344) 대호군으로 서연 시독관(書筵 侍讀官)이 되고 이후 정치도감(整治都監)의 정치관이 되었다. 공민왕 5년(1356) 수사공, 우복야, 강릉교주도 도지휘사(江陵交州道 都指揮使)를 지내고 판개성부사를 거쳐 밀직제학에 이르러 팔천군(八川君)에 책봉되었다. 또한 그는 음률에 정통하고 예(禮)에 밝아 예관 및 후진들을 많이 양성했다.

장양공(莊襄公) 정윤겸(鄭允謙)은 성종 23년(1492)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에 보직되고 중종 원년(1506) 정국공신(靖國功臣) 3등에 군기시 첨정(僉正)으로 특진되었다. 이후 회령부사를 지내고 청계군(淸溪君)에 봉해졌으며 전라도 수군절도사로 부임하여

정문익



동계공의 유품

정선

장양공 정윤겸

정종영

병신을 수리하고 해적을 소탕하여 왕으로부터 은(銀)을 하사받았다. 중종 21년(1526) 훈련원 도정으로 성절사(聖節使)가 되었으며 이후 평안도 절도사, 상호군, 첨지중추부사 겸 도총부 부총관을 역임했고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정종영(鄭宗榮)은 김안국(金安國)의 문인으로 중종 25년(1530) 사마시를 거쳐 식면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하여 이듬해 검열 되고 명종 2년(1547) 호조정랑, 헌납(獻納) 등을 거쳐 부수찬(副修撰), 지평, 교리 등을 역임했다. 명종 8년(1552) 청백리에 녹선되고 공조참판, 강원도, 경상도 관찰사를 지냈으며 팔계군을 습봉했다. 명종 18년(1562)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윤원형(尹元衡)에 이부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수령을 응징하고 요승(妖僧)을 제거했으며 이듬해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에는 평양에 서원을 세우고 학문발전에 힘썼다. 이후 6조 판서를 두루 역임하고 우찬성에 이르러 관직을 버리고 사직했다. 그는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원주의 칠봉서원(七峯書院)에 제향되었다.

정현덕

정현덕(鄭顯德)은 철종 원년(1850) 문과에 급제하였고 철종 13년(1862)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대원군이 집권하자 그의 심복으로서 동래부사, 이조참의를 지내면서 배일운 8동(排日運動)에 앞장섰다. 그러나 대원군이 실각하자 그도 관직을 버리고 물러났다가 고종 19년(1882)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대원군이 다시 집권하자 형조참판에 올랐다가 대원군이 다시 물러나자 정현덕은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되었지만 곧 신원(伸冤)되었다.

<박사공파>(博士公派)

정공신

강헌공(康憲公) 정공신(鄭公愼)은 고려말 문과에 급제한 후 비서랑, 한림지제고(翰林知制誥),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를 지내고 집현전 직제학, 사문조교(四門助教), 우문관 제학, 수문관 학사, 금자광록대부, 문하시중, 밀직사사에 이르렀다. 조선개국 후에도 호조판서를 지냈으며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장양공(莊襄公) 정준(鄭俊)은 세조 13년(1467) 이시애(李施愛)

의 난 당시 사도병마도총사(四道兵馬都摠使) 귀성군(龜城君) 정준(鄭浚)의 비장(裨將)으로 출전하여 총통군(銃筒軍)을 거느리고 반란을 진압하여 적개공신(敵愾功臣) 3등에 책록되고 초계군에 봉해졌다. 같은 해 대호군으로서 군무(軍務)로 요동에 가다가 가산군(嘉山郡)에 이르러 병사했다.

문간공(文簡公) 정은(鄭蘊)은 정인홍(鄭仁弘), 정구(鄭逵)의 문인으로 광해군 2년(1610) 진사로서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설서(說書), 사서, 정언 등을 역임했다. 광해군 6년(1614) 부사직으로 영창대군의 처형이 인륜에 어긋났음을 상소하고 그 가해자인 강화부사 정항(鄭沆)을 참수하라고 주장했다가 10년간 제주도 대정(大靜)에서 귀양살이를 했다. 유배생활 중에 <덕변록>(德辨錄), <망북두시>(望北斗詩), <망백운가>(望白雲歌)를 지어 그의 우국충정을 토로했다. 인조반정 후 석방되고 헌납(獻納)에 임용되었다가 이후 사간, 이조참의, 대사간, 경상도 관찰사, 부제학 등을 역임했다. 인조 14년(1636) 병조호란때 이조참판으로서 김상헌(金尙憲)과 함께 척화를 주장하였으나 이듬해 화의가 이루어지자 관직을 버리고 덕유산에 은거하였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대사성공파>(大司成公派)

파조(派祖) 정태화(鄭太華)는 고려시대에 대사성을 역임하였고 정옥량(鄭玉良)은 박팽년(朴彭年), 류성원(柳誠源), 이석정(李石亭) 등과 친분을 나누었고 효행이 뛰어나 벼슬이 나간 후 하양(河陽)현감에 이르렀으며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그의 효행으로 정려(旌閭)가 세워졌으며 승지에 추증되었다. 정건(鄭健)은 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고 정구룡(鄭九龍)은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광명에서의 초계 정씨

초계 정씨가 광명시에 정착한 경위는 12세손 정수호(감찰공)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초계정씨 대동보를 보면 약 450여년전 증종조에 18세손 정호(鄭瑚)가 광명시 일직동 자경마을에 정착하면서 부터이다. 그 이후 기문의 번성을 이루어 후손들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가계(家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世	정호(鄭瑚)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 역임
19世	정성남(鄭誠男) 현감(縣監) 역임
20世	정탁(鄭鐸) 영릉참봉(英陵參奉) 역임
21世	정원봉(鄭元鳳) 통덕랑(通德郎) 역임
22世	정순
23世	정두장(鄭斗章)
24世	정오(鄭澳)
25世	정현주(鄭絢周)
26世	정진관(鄭鎭觀)
27世	정시승(鄭始承)
28世	정계선(鄭啓善)
29世	정태수(鄭台水)



사헌부 감찰을 역임한 정호는 일직동으로 낙향하여 정착하였고 이후 후손들은 농사를 주업으로 세거(世居)하면서 일직동에 집성촌을 형성하면서 가문의 터를 닦았다. 지금까지 15대를 이어 오면서 선조들의 묘소를 잘 모시고 있으며 현재는 일직동에 6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매년 음력 10월 보름 시제를 지내고 있다.

초계 정씨의 설화 및 전설

초계 정씨에서는 각 선조들의 업적을 7언 절구의 한시(漢詩)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수가>(花樹歌)

山明水麗草溪上 산이 수려하고 물이 맑은 초계땅에
 一樹花開達五枝 한 그루의 꽃이 피어 다섯가지로 뻗었고
 五枝之上連千枝 다섯가지는 천가지로 뻗어 퍼지고
 千枝之上復萬枝 천가지는 다시 만 가지로 뻗었도다

<화수가>

<가일지이축음음혜>(歌一枝而祝遺陰兮)

竹老清陰鳳時下 노대한 대나무 푸른 그늘에는 봉작이 때때로 내리고
 將壇威風虎長嘯 선대(先代) 장사(將師)들 위세는 범의 큰 울음소리와

갈더라

常慕閣裡重重碑 상모각(常慕閣) 속에 세워진 여러 비문은
五孝門中又三孝 5효문중(五孝門中)에 또 3효(三孝)가 계시더라

<가이지이죽유음혜>(歌二枝而祝遺陰兮)

文簡古宅詩禮重 문간공 고백에는 시와 예를 존중하고
守夢先生道學明 수몽선생 택에는 도학이 밝더라
松竹堂前風長在 송죽당(松竹堂) 문전에는 송죽의 고절풍(古節風)이 남아있고
晚洲淵源月益淸 만주공택 인원(淵源)에는 달이 더욱 밝더라

<가삼지이죽유음혜>(歌三枝而祝遺陰兮)

良獻雅樂神人和 양헌공(良獻公)의 이악은 신과 인간이 화하고
淸溪勲業麟閣明 청계군(淸溪君)의 위대한 공훈은 기린각(麒麟閣)에 빛나더라
恒翁德業四朝耀 항제공(恒齋公)의 덕업은 4대 조창(朝廷)에 빛나고
雨田文章一世傾 우전공(雨田公)의 문장은 1세를 기울였도다

<가사지이죽유음혜>(歌四枝而祝遺陰兮)

常侍正工斥佛教 상시공(常侍公)의 정당한 공부(工夫)는 불교를 배척하였고
莊襄殊勳掃兇徒 장양공(莊襄公)의 숭고한 공훈은 나쁜 무리를 소탕하였도다
某里淸風長不絕 모리(某里)의 청풍은 길이길이 끊기지 않고
桐翁忠義日月高 동계공(桐溪公)의 충의는 일월과 같이 드높도다

<가오지이죽유음혜>(歌五枝而祝遺陰兮)

西亭道學千秋大 서정공(西亭公)의 도학(道學)은 천추(千秋)에 크고
白棗孝誠萬世鳴 백조당공(白棗堂公)의 효성은 만세에 울렸도다
艾農兩賢能繩武 에산(艾山), 농산(農山) 두 현자는 능히 일제(日帝)에 항거하였고
遙遙不替故家聲 요요히 고기(故家)의 소리를 바꾸지 아니하였도다

경주 최씨

경주 최씨의 유래

최치원을 시조로 함

경주(慶州) 최씨(崔氏)는 우리나라 모든 최씨의 대종(大宗)으로 신라 개국전 돌산(突山) 고허촌장(高墟村長) 소벌도리(蘇伐都利)를 득성(得姓) 원조로 하고 그의 24세손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을 시조(始祖)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소벌도리는 신라의 전신 사로(斯盧) 6촌(村) 중 현재 경주의 중심부인 돌산 고허촌의 촌장으로서 다른 5촌의 촌장과 함께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하여 유리왕 9년(32) 최씨로 사성(賜姓)을 받았고 이후 신라의 석학(碩學) 최치원을 중시조(中始祖)로 하고 있다.

문창후 최치원은 신라 현안왕 1년(857) 신라의 사랑부(沙梁部)에서 출생했는데 자(字)는 고운(孤雲) 또는 해운(海雲)이다. 어려서 총명, 민첩하고 학문을 좋아해서 경문왕 9년(869) 12세의 나이로 혼자 당나라로 건너가 18세에 빈공과(賓貢科)에 장원급제하여 선주율수현위의 벼슬을 받아 치적을 쌓은 후 승무랑 시어사 내공봉(承務郎 侍御史內供奉)에 올라 금으로 장식되어 허리에 차고 천자의 대궐을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는 신표인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았다.

현강왕 5년(879) 당나라에서 황소(黃巢)가 반란을 일으키자 제도행영(諸道行營) 병마도통(兵馬都統) 고병(高駢)이 이를 토벌할 때 관군의 종사관으로 참전했던 최치원은 반도들의 우두머리 황소에게 격문을 지어 보냈는데 황소가 이 격문을 받아보고 너무나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한다.

“...다만 천하의 사람이 다 죽이기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한 땅속의 귀신들도 이미 죽이기를 의논했노라...”(…不唯天下之人皆思顯戮 抑赤地中之鬼 已議陰誅…)라는 글귀로 유명한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은 가슴을 꿰뚫는 세찬 힘을 지닌 글로서 천하를 감탄케한 명문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지만 기울어가는 고국을 걱정하고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 달랬는데 이는 <중산복궤집>에 실려 있다. 또한 관직에 나가서도 학문에 힘을 기울여 <육조사적>(六朝事蹟)에

오른 <쌍녀분기담>(雙女墳奇談), <계원필경>(桂苑筆耕)등의 명저를 저술하였는데, 당시 신라인들을 동이(東夷)라고 멸시해오던 당나라 명사들과 학문적으로 겨루어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현강왕 10세(884) 28세가 되어 당나라 회종의 조서를 받들고 귀국하여 시독(侍讀) 겸 한림학사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조정의 기강이 문란하고 어지러움을 개탄하여 외직(外職)을 자청하여 태산(太山, 태인), 함양(咸陽), 부성(富城, 서산)등지의 태수로 나갔다.

신라의 혼란된 국정을 개탄했던 최치원은 고려가 신흥국가로 융성하리라는 것을 예시하는 한편 진성여왕 8년(894) <시무십여조>를 올려 국정의 어지러움과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려 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세상에 뜻을 버리고 관직을 물러나와 산천을 유람하며 울적한 마음을 달랬다. 경주 남산과 강주(剛州, 義城)의 빙산(氷山), 합천의 청량사, 지리산의 쌍계사, 합포(合浦, 馬山)의 월영대(月影臺)가 다 그의 유완처였다. 그러나 결국 진성왕 10년(896) 가족을 모두 데리고 가야산으로 들어가 고려 광종 2년(961) 95세로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고려 현종은 최치원을 내사령(內史令)에 증직하고 문창후(文昌侯)로 증시(贈諡)하였으며 조선조에도 인조, 명종, 선조 임금이 “문장후 최치원은 우리 동방의 이학시조(理學始祖)이니 그의 자손은 귀천이나 적서를 막론하고 비록 먼 시골에 사는 사람까지라도 군역에 동원하지 말라”고 하는 전교를 내렸다.

경주 최씨는 문창후 최치원 이후로 크게 26파로 분파되는데 그중에서도 관가정 청파(觀稼亭 淸派), 사성공 예파(司成公 潑派), 화숙공 현우파(和淑公 玄祐派), 광정공 단파(匡靖公 鄆派), 정랑공 호파(正郎公 灑派), 충렬공 광위파(忠烈公 光位派) 등 6개파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관가정 공파와 사성공파의 후손이 가장 많다.

경주 최씨의 관향(貫鄉)인 경주는 경상북도 동남부에 위치하며 신라의 발상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영일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형산강 상류에 펼쳐진 평야를 중심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성곽을 이룬 지형이다. 또한 진한(辰韓)의 사로국(斯盧國)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다. 사로는, 즉 ‘서라벌’로서 혁거세간(赫



최치원 영정

居世干)이 개국한 곳이며 후에 '신라'로 개칭되었고 탈해왕 9년(65)에 시림(始林)에 계이(鷄異, 金關智 誕生 傳說)가 있어 이를 '계림'(鷄林)이라 개칭하고 국호도 '계림'이라 하였다. 그후 기림왕조(基臨王朝)에 다시 '신라'로 고쳐 부르다가 고려 태조가 신라를 병합한 후 옛 신라 왕도를 '경주'라 함으로써 이 지명의 시초가 되었다.

고려 태조 23년(940)에 안동 대도독부를 두고 읍을 다스리는 관청으로 경주사를 두었다. 성종 6년(987)에는 '동경'이라하여 유수를 두었고 목종조에는 '낙랑군'(樂浪郡)으로 강등되었으며 현종조에 다시 '경주'라 하고 방어사를 두었다. 이에 안동 대도호부 '경주목'으로 개칭되었고 그 후 유수(留守) 또는 지관(知官)을 두는 등 변천을 거듭하다가 충렬왕조에 '계림부'(鷄林府)라 하였다. 조선 태종 15년(1415) 다시 '경주부'로 하고 세조조에 진(鎭)을 두었으며 고종 32년(1895)에 군(郡)으로 승격되었다. 1955년에 '경주시'로 승격되었으며 경주군의 다른 지역은 월성군으로 편입되었다.

경주 최씨의 대표적인 인물들

최승우

최치원 이외 경주 최씨에서 배출한 유명한 인물로는 최승우(崔承祐)를 꼽을 수 있다. 신라 진성여왕 4년(890) 당나라에 건너가 3년만에 과거에 급제하여 문장으로 그 명성을 날렸고 최언위는 헌강왕 11년(885) 18세로 당나라에 유학하여 문과에 급제하고 집사성(執事省) 시랑(侍郎)에 올랐으며 고려가 개국되자 태자사부(太子師傅)가 되어 문한(文翰)을 거쳐 평장사(平章事)를 역임하며 문장에 능했다. 그래서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를 일컬어 당대의 3최(三崔)라 하였다.

최승로

신라 원보(元甫) 최은함(崔殷舍)의 아들인 최승로(崔承老)는 고려의 명신이며 뛰어난 학자로 그 명성을 날렸다. 12세에 최승로

는 60세를 막 넘어선 고려 태조 앞에 나아가 <논어>를 암송하였는데 이를 기특하게 여긴 태조가 그에게 소금을 하사했으며 학자들이 모이는 원봉성(元鳳省)의 학사로 보냈다. 이와같이 태조의 지극한 총애를 받았던 최승로는 혜종을 비롯하여 정종, 광종, 경종을 거쳐 6대 성종에 이르기까지 다섯 임금을 모시면서 고려 창업 이후의 국가 기틀을 확고히 다졌다. 특히 최승로는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을 정리한 <시무 28조>(時務 28條)를 상소하여 시행케 함으로써 고려 왕조의 기초를 확립했다.

최자운(崔子雲)의 아들 최청(崔淸)은 고려말 검교정승(檢校正承)을 지냈으며 고려가 망하자 양주에 은거하였다. 후손 최몽량(崔夢亮)은 광해군 9년(1617) 알성문과(諳聖文科)에 급제하여 의주판관(義州判官)에 올라 인조 5년(1627) 정묘호란때 접전중 적군의 포로가 되었으나 끝내 굴하지 않다가 장렬한 죽음을 맞았다.

최청

사성공파의 최진립(崔震立)은 선조 27년(1594) 무과에 급제하고 3년후 정유재란때 결사대 수백명을 인솔하여 서생포(西生浦)의 적을 섬멸하고 권을(權僎)과 함께 도산(島山)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선무공신(宣武功臣)에 책봉되었다. 그러나 인조 14년(1636) 공주영장(公州營將)에 재직하고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용인의 험천(險川)에서 적의 대군을 맞아 격전을 벌이다가 전사하여 뒤에 병조판서에 추증되고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최진립

한편 사성공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는 동학(東學)의 창시자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16세에 부친 근암(近庵) 최옥을 여의고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행상으로 전국을 유랑하다가 양산군 천성산 내원암(內院庵)에서 수도를 하여 마침내 보국안민(輔國安民)의 대도(大道)를 깨치고 인내천(人乃天)을 교리(教理)로 하는 동학을 창시하였다. 차츰 교세가 확장되자 이에 불안을 느낀 조정에서 고종 원년(1864) 사교(邪敎)로 규정하여 흑세무민의 죄목으로 대구에서 최제우를 처형하였다.

최제우

동학의 제2대 교주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은 일찌기 고아가 되어 조지소(造紙所)에서 일하다가 철종 12년(1861) 동학교에 들어가 2년후 최제우의 후임으로 교주가 되었다. 고종 8년(1871)

최시형

교조신원운동(敎祖伸冤運動)을 전개하다가 정부의 탄압이 가중되자 소백산 암굴에 은신했다가 영월을 거쳐 인제에 가서 <동경대전>(東經大全)을 간행하고 이어 단양에서 <용담유사>(龍潭遺事)를 발간하는 등 경전(經典)하였고 고종 21년(1884) 갑신정변으로 정국이 소란하여 동학에 대한 탄압이 완화되자 조직강화에 힘써 전국에 육임소(六任所)를 설치하여 종교로서 면목을 일신하였다. 그러나 1894년 발발한 동학혁명에 가담했다가 1898년 원주에서 송경인(宋敬仁)에게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된 후 사형을 당했다. 1907년 고종의 특지로 신원(伸冤)되었다.

최현우

화숙공과의 최현우(崔玄祐)는 고려조에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역임했으며 최한홍(崔漢洪)은 무과에 급제하여 중종반정에 참가, 정국공신2등(靖國功臣二等)에 책록되고 6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했으며 계림군(鷄林君)에 책봉되었다.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은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가장 뛰어난 제자로서 철종 6년(1855) 문과에 급제하여 장령(掌令)으로 경복궁 중수의 중지, 당백전(當百錢)의 폐지등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린 것을 비롯하여 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하다가 제주도로 귀양을 갔다. 특사로 풀려나서도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의 일환으로 실시된 단발령을 거부하여 다시 투옥되기도 했다.

그후 조정에서 회유책으로 의정부 찬정(議政府 贊政), 경기도 관찰사 등을 제수하였으나 거부하고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제자 임병찬(林秉瓚), 유준근(柳潘根) 등과 전라도 순창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우다 체포되어 대마도(對馬島)로 유배되었으나 끝까지 항거하다 순절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무궁훈장 중장(重章)이 수여 되었다.

최단

광정공과의 최단(崔暹)은 무과에 급제하여 우왕 14년(1388) 요동정벌때 안동원수(安東元帥)로서 이성계(李成桂) 휘하의 무장이 되어 위화도 회군(威化島 回軍)에서 공을 세워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에 책록되고 한양윤(漢陽尹), 판자혜부사(判慈惠府事)를 역임하였다. 선조조 의병장 최동보(崔東輔)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영천, 경산 등지에서 전공을 세웠으며 당시의 상황을 일기로 적은 <신헌기>를 남겼다.

고려 정종조의 학자, 정랑공과의 최호(崔灝)는 정종 8년(1042) 동경부유수(東京副留守)에 제직시 왕명으로 <전, 후한서>(前, 後漢書)와 <당서>를 새로 발간했는데 이것은 불교서적 이외의 전적(典籍)으로 처음 간행된 것이었다. 이후 정종 11년(1045) <예기정의>(禮記正義) 80권과 <모시정의>(毛詩正義) 40권을 간행하였다.

최호(崔灝)의 손자 최경지(崔敬止)는 세조 6년(1460)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경연관(經筵官)이 되었으며 예종 1년(1469) 춘추관 편수관(編修官)으로 <세조실록>(世祖實錄)과 성종 1년(1470) <예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이후 부제학에 이르렀으며 시문(詩文)으로 명성이 높았다.

충렬공과의 최광위(崔光位)는 고려조에 상장군(上將軍)을 역임했으며 아들 최종포(崔宗浦)는 월성군(月城君)에 책봉되었다. 최일(崔逸)은 정승(政丞)을 지냈으며 최재연(崔再延)은 평리(平理)를 역임했고 최안립(崔安立)은 낭장(郎將)에 이르렀다.

이외에도 고려 성종조에 문하시랑(門下侍郎)을 역임하고 태자태사(太子太師)에 추증된 최양(崔亮)이 있으며 그의 아들 최원신(崔元信)은 성종 13년(944) 문과에 급제하고 현종 13년(1012) 호부시랑(戶部侍郎)으로 사신이 되어 거란에 다녀왔다. 최중복(崔仲福)은 선조조의 무관으로 훈련첨정(訓練僉正)을 역임했으며 임진왜란때 많은 공을 세우고 한산대첩에서 장렬하게 전사했다. 또한 항일투사 최봉환(崔鳳煥)과 독립운동가 최창식(崔昌植)등도 경주 최씨로서 가문을 한껏 빛나게 했다.

최경지

최광위

최원신

최중복

최봉환, 최창식

광명시에서의 경주 최씨

경주 최씨가 광명시에 정착하게 된 것은 21세손 최기경 할아버지께서 의금부 도사를 역임하시던 중 영조때 역적으로 몰려 원래 고향인 장단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정착하게 되었다. 이때 아

우 최임경은 시흥으로 가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많은 자손이 널리 퍼져 나갔다. 그 가계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기경의 묘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는 경주 최씨는 대부분 화숙공파이며 17대를 살고 있다.

처음에는 대말에 정착했으나 병자호란으로 마을이 불타버리자 이전에 노온사가 있던 현재의 위치로 옮겨와 거주했으며 이외에도 원광명리, 일직동, 원철산에 집성촌락을 이루었다.

노온사는 원래 마을과 떨어져 있었으나 마을이 전소되기전 이미 폐사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다음과 같은 이야기에서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 원노온사리 지역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여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평소 장사라



노온사 터
노온사동 230-1에 위치

일컬어지던 대조 최윤정은 야음을 틈타 마을로 내려온 호랑이를 발견하고 맨손으로 때려잡았다고 한다. 호랑이는 곧은 목이라 머리를 뒤로 돌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최윤정은 호랑이 등을 타고 끝까지 목을 부여잡아 질식사시켜 잡았다고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최윤정은 농민들이 시흥원을 공격했을 때 이에 참가하여 수장역활을 했고 이로 인해 체포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한편 30대조 최충환은 향교회에 다니며 열심히 한학공부를 하여 당시 그 학덕이 사람들의 숭앙을 받을 정도였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저작이 소실되어 전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노온사리에는 15가구가 거주하면서 대부분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은행, 관공서에서 근무하면서 광명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경주 최씨는 노온사리 산20번지, 71번지 등지에 17, 000여평의 선산을 마련 24대조부터 모시고 있는데 매년 10월 보름에 제사를 올리고 있다.



선영의 전경

가문에 전하는 설화 및 전설

경주 최씨에는 큰 인물이 많아 그들과 관련된 일화들이 다수 전한다. 공민왕때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관직을 역임하면서 우왕(禑王)때 사복시정(司僕寺正)이 되어 명나라에 가서 황제로부터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기도 했던 관가정(觀稼亭) 최청(崔淸)은 평소 청렴결백하고 강직하여 직언을 서슴치 않았고 그로인해 많은 곤경에 처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라를 위한 충절을 지켰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하자 그는 모든 관직을 초개(草芥) 같이 버리고 양주(楊州) 풍양(豊壤)의 송산(松山)에 들어가 은거했다. 이에 이태조가 좌찬성을 제수하고 수차례 불렀으나 최청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키며 끝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자 이태조는 그의 절의를 높이 기려 송산을 어래산(御來山)

으로 봉하고 최청이 살던 초가집에는 관가정(觀稼亭)이란 제호(題號)를 내렸다.

은둔생활을 하면서도 최청은 목은 이색, 행촌 이암, 양호당 우현보, 야은 길재 등과 교우하며 <채미가>(採薇歌)로 울분을 달래면서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켰다. 그러나 태종 14년(1414) 9월 28일 향년 71세의 나이로 임종을 맞아 자손들에게 “내 비석에는 반드시 고려의 관직을 써라”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개갈(改喙)시에 잘못하여 조선 태조가 내린 관직인 ‘좌찬성’을 적어넣었더니 갑자기 천둥이 일고 벼락이 떨어져 비석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한다.

최진립

선조 27년(1594) 문과에 급제했던 최진립(崔震立)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우 최계종(崔繼宗)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켰고 정유재란때는 결사대를 인솔하여 서생포(西生浦)에서 적을 크게 쳐부셨으나 병자호란때 너무 노쇠했다는 이유로 근왕(勤王)하는 장수를 바꾸려 하자 비분강개하여 눈물을 흘리며 호위하는 후미부대를 지휘했다.

그러나 남한산성(南韓山城)이 적군에게 포위당해 곤경에 처하자 최진립은 용인 험천(險川)에서 순절했다. 그는 깨끗하게 서서 움직이지 않고 활을 쏘았기 때문에 빛나가는 것이 없었다고 하며 화살이 떨어지자 부하들을 돌아보며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한발자욱도 떠나지 않고 죽을 것이니 너희들은 이 자리를 표시해 두어라”라고 말하고는 끝까지 홀로 적군에 대항했다.

난이 평정된 후에 그의 여러 아들이 그곳에서 최진립의 시체를 찾았는데 화살을 온몸에 맞아 고슴도치 같았으나 얼굴은 살아있는 것 같이 태연했다고 한다.

최익현

갑오경장 이후 실시된 단발령(斷髮令)에 반대해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어도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라고 하며 끝까지 항거했던 최익현(崔益鉉)은 광무 9년(1905) 치욕적인 을사보호조약(乙士保護條約)이 체결되자 이것의 무효를 주장하며 의병을 일으

켜 일본군에 대항하였으나 결국 체포되어 대마도(對馬島)에서 유형(流刑)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최익현의 절의는 꺾이지 않았다.

유배지에서 지급되는 음식물은 적이 주는 것이라 하여 거절했는데 이를 지켜보던 제자(弟子) 임병찬(林秉瓚)이 안타깝게 여겨서 설득하려 했으나 그는 “내 늙은 몸으로 어찌 원수의 밥을 먹고 살겠느냐, 너희들이나 살아서 돌아가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하며 끝까지 단식을 강행하다가 결국 그곳에서 굶어 죽었다. 최익현의 시체가 반환되어 부산 포구에 닿자 미리 나와있던 수많은 동포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통곡했다고 한다.

제보자 최연수씨(80세)

여 백

전주 최 씨

전주 최씨의 유래

전주 최씨의 시조

전주(全州) 최씨(崔氏)는 우리나라 성씨 가운데 역사상 가장 많은 인재를 배출한 성씨이지만 모두 동본(同本)이면서도 계보(系譜)를 달리하여 4파로 분리되어 비교적 복잡하다. 그래서 전주 최씨의 시조(始祖) 역시 최순작(崔純爵), 최군옥(崔群玉), 최균(崔均), 최아(崔阿) 등 4인을 꼽는다.

먼저 최씨의 득성(得姓) 연원은 큰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가 왕위에 즉위하여 기존의 6촌(村)을 6부(部)로 개칭하고 그 촌장들을 대인(大人)으로 봉하면서 이(李), 최(崔), 손(孫), 정(鄭), 설(薛), 배(裴) 등의 6성(姓)을 내렸는데 여기서 최씨가 제일 처음 나타난다. 이후 최씨가 처음 완산에 살게 된 것은 고려초 한림원 평장사 완산백을 역임했던 최언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 최언위는 신라 사람으로 중국에 유학하여 18歲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42歲에 신라로 돌아와 서서원학사(瑞書院學士)에 올랐다. 그리고 고려가 개국하자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에 올랐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이에 따라 최언위는 경주에서 전주로 이주하였고 이후 크게 가세를 일으켜 현재와 같은 문벌을 이루는데 그 근본이 되었다.

그리고 전주 최씨의 시조에 대해서도 최언위의 후손으로 고려 정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숙종조에 병부상서와 신호위상장군(神虎衛上將軍)에 이르고 완산부개국백(完山府開國伯)에 봉해진 문열공(文烈公) 최순작을 시조로 하는 계통과 동주 최씨의 시조 최준용(崔浚鬯)의 후예로 고려조에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지내고 완산부원군에 봉해진 문충공(文忠公) 최군옥을 시조로 하는 계통,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의 후예로서 고려 명종조에 일어났던 조위총(趙位寵)의 난에 순절하고 완산군에 추봉된 최균을 시조로 하는 계통, 그리고 일찍이 당나라로부터 우리나라로 건너와 완산에 정착했다고 하나 문헌이 실전되어 그 상계(上系)를 알아볼 수 없고 다만 고려말 평장사로서 명나라에 사신으로 들어가 당시 복잡한 국내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여 완산군에 봉해진 문성공(文成公) 최아를 시조로 하는 계통 등 4개의 분파가 있다.

그러나 <전주최씨인물사>(全州崔氏人物史)를 보면 최아는 원종조에 보문각 대학사(寶文閣 大學士)를 역임한 최순작의 현손인 최정신(崔正臣)의 세째 아들 최입평(崔立秤)의 맏아들로 기록되어 있고 최순작 계와 합보(合譜)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하고 있다.

전주 최씨의 본관인 '전주'는 전라북도 중양에 위치한 지명으로 고대 마한(馬韓)의 원산성(圓山城)에서 유래하였다.백제시대에는 완산 또는 비사벌(比斯伐), 비자화(比自火) 등으로 불리다가 신라 진흥왕 16년(555) 완산주로 변경되었다. 그후 경덕왕조에 '완'(完)을 의역하여 전주로 고쳤으며 후백제의 견훤(甄萱)은 이곳을 도읍으로 삼아 40여 년간 통치하였다. 그러나 고려 태조는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이곳을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라 칭했으며 이후 공민왕은 다시 이를 고쳐 완산부라 하였다.조선시대에는 태조가 선조(先祖)의 고향이라 하여 완산유수부라 하였다가 태종 3년(1403) 다시 전주부가 되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변천을 거쳐 1949년 지방자치법 실시에 따라 전주시로 개편되었다.

참고문헌
<전주최씨인물사>

전주 최씨의 대표적인 인물들

역사상 가문을 빛낸 인물들을 계통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열공 최순작계>

최순작의 아들 최송(崔崇)은 예종조에 이부상서(吏部尙書)를 거쳐 인종조에 호부, 예부상서, 예문관 제학을 역임했고 손자 최남부(崔南敷)는 문종조에 공부상서를 거쳐 수문전 태학(修文殿太學) 겸 대장군을 역임하고 전부백에 봉해졌으며 그의 아들 최

최송

최정신

전(崔銓)은 희종조에 비서소윤(秘書少尹)을 역임하던 중 당시의 정세가 어지러워지자 벼슬을 버리고 은둔하였다.

최정신(崔正臣)은 강직한 성품으로 권력을 남용하던 무리들을 탄핵하다가 결국 10여년이나 귀양살이를 했으며 그의 아들 최득평(崔得秤)은 충렬왕 4년(1278) 18歳の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여 형부상서에 이르렀으나 역시 평소 성품이 청렴,결백하여 당시 권신들의 미움을 받게되었고 급기야 외직인 김해부사로 좌천되었다가 벼슬을 사임하고 청주 대울리로 낙향하여 일생을 마쳤다. 최득평의 아들 최재(崔宰)는 충숙왕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중서령(中書令),지평(持平)을 거쳐 충목왕 3년(1347) 정치도감(整治都監)이 설치되자 관관에 임명되었으나 이를 거부하고 부임치 않았다. 이후 충정왕조에 지양주사(知襄州事)를 거쳐 공민왕 11년(1362)상주목사로 나간 최재는 홍건적의 침입을 맞아 남으로 피난하는 왕을 호종하는 관리들을 푸대접했다고 하여 파직당하기도 했으나 다시 감찰대부(監察大夫)에 등용되었고 성산군(星山君)에 봉해진 뒤 전리판서(典理判書)를 지내고 우왕조에는 다시 완산군에 책봉되었다.

최유경

최재의 아들 최유경(崔有慶)은 경주 최씨의 문벌을 다시한번 일으켰는데 그가 사헌부 장령(掌令)에 있을 때 교만,방자했던 환자(宦者) 윤충좌(尹忠佐)를 탄핵했고 우왕 원년(1375) 전법총랑(典法摠郎)을 거쳐 양광도 안렴사(楊廣道 按廉使)를 역임했으며 요동정벌 때에는 서북면 전운사(西北面 轉運使) 겸 찰방(察訪)에 올라 최영(崔瑩)이 실각한 후 밀직부사에 올랐다. 이후 이성계를 도와 개국원종공신이 되었으며 언제나 청빈하고 정직한 생활을 영위하여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되었으며 또한 효행이 뛰어났다.

최유경의 여섯 아들들 또한 모두 현달하여 가문의 명성을 널리 떨쳤는데 맏아들 최사위(崔士威)는 한성부 판윤을 지냈고 둘째 아들 최사의(崔士儀)는 태종조에 판돈녕부사를 지내고 세종조에 상호군을 거쳐 청백리에 뽑혔다. 셋째 아들 최사규(崔士規)는 중백부(仲伯父) 최덕성(崔德成)에게 글을 배워 학행으로 도관관에 천거되었고 이후 도관좌랑(都官佐郎),영평군수를 거쳐 태종 5년(1405) 24歲에 사헌부 지평을 역임했다. 넷째 아들 최사강(崔

士康)은 음보(蔭補)로 관직에 올라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며 명성을 떨쳤으며 다섯째 아들 최사용(崔士庸)은 세종 원년(1419)에 상의원 직장(尙衣院 直長)을 역임하고 실록청 당랑(堂郎)에 선임되어 서강원(書講院)에 들어갔다가 세종 5년(1423) 사헌부 감찰을 거쳐 상호군에 이르렀다. 여섯째 아들 최사흥(崔士興)은 유복자로 태어났지만 학문을 좋아하고 시문(詩文)에 능했으며 특히 효성이 지극해서 모친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하늘에 기도를 올린 후 다리의 살을 베어 탕약으로 대신하고 정성을 다해 간병하여 치유케 함으로써 성종이 정려(旌閭)를 하사하고 충북 진천군 문맥면에 정려각을 세우게 했다.

최기남(崔起南)은 선조 38년(1605)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하고 전적(典籍)과 병조좌랑, 수찬(修撰), 북평사(北評事), 영흥부사 등을 지내고 황해도 암행어사로 나갔다가 의정부 검상과 홍문관 부응교(副應敎)를 역임했다. 최기남의 아들 최래길(崔來吉), 최명길(崔鳴吉), 최혜길(崔惠吉) 3형제는 인조반정에 큰 공을 세워 공신에 올랐는데 최기남의 둘째 아들 최래길은 정사(靖社) 3등공신(三等功臣)으로 장악원정(掌樂院正)을 거쳐 예조참의에 올랐고 이괄(李适)의 난에 임금을 호종하여 완주군에 봉해졌으며 장흥부사로 나갔을 때는 선정을 베풀어 송덕비가 세워졌다. 병자호란 때 명성을 날린 최명길은 가문의 명성을 크게 떨쳤는데 그는 선조 38년(1605) 사마시를 거쳐 문과에 급제하고 전적, 공조, 병조좌랑을 지냈다. 광해군 6년(1614) 폐모론(廢母論)의 기밀을 누설했다고 하여 파직되자 가평으로 내려가 여러 문인들과 교유하며 당시 이단시되던 양명학(陽明學)을 연구했다. 이후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으로 완성군(完城君)에 책봉되고 이조참판에 올랐으며 인조 3년(1625) 부제학이 되어 대동법 시행의 선행조건으로 호패법(號牌法) 실시를 주장하고 호패청 당상(堂上)에 부임하였다. 병자호란 때에는 홍익한(洪翼漢) 등의 척화론에 대해 현실적 정세에 적응기 위해 강화를 주장했고 수차에 걸쳐 청진(淸陣)을 왕래하며 강화를 주선했고 항복이 결정되자 항서(降書)를 초안했다. 병자호란 이후에도 좌의정이 되어 사은사(謝恩使)로서 심양을 왕래하며 포로의 석방과 볼모로 잡혀간 척화신(斥和臣)의 귀환을

최기남

교섭했으나 조선이 명나라와 내통한 사실이 밝혀지자 그 관련자로 지목되어 심양에 억류되기도 했다. 최혜길은 광해군 5년(1613) 사마시에 합격하고 인조 3년(1625)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이후 이조좌랑, 대사간, 대사성, 대사헌 등 여러 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인조반정에도 가담하여 공신에 책록하려 했으나 3형제가 공신으로 기록되면 반정(反正)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명분이 서지 않는다고 하여 스스로 이를 사양했다.

최석정

최명길의 손자 최석정(崔錫鼎)은 박세채(朴世采)와 남구만(南九萬)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고 현종조에 문과에 급제했으며 검열, 교리를 거쳐 숙종조에 부제학에 이르렀으나 당시 영의정이던 김수항(金壽恒)을 논척하다가 파직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격렬한 당쟁의 와중에서 8회나 영의정을 역임했으며 당시 크고 작은 정치적인 문제에 그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정치적 수완을 발휘했다. 또한 조부(祖父) 최명길의 학통을 이어 정제두(鄭齊斗)와 함께 양명학의 발전을 주도했으며 문장과 글씨에도 뛰어나 <경세정운도설>(經世正韻圖說), <명곡집>(明谷集), <예기류편>(禮記類篇) 등 많은 저작을 남겼다.

<문충공 최군옥계>

최송년

최군옥의 맏아들 최송년(崔松年)은 고려 의종조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중의대부(中議大夫)로 밀직사사를 역임했고 둘째 아들 최구년(崔龜年)은 사헌부 대사헌을 거쳐 문하찬성(門下贊成)을 역임한 후 완성부원군에 책봉되어 가문의 명성을 떨쳤다. 최선능(崔善能)은 추충보절공신(推忠補節功臣)으로 삼중대광 문하찬성사에 올라 상산부원군(商山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최선능의 둘째 아들 최칠석(崔七夕)은 밀직부사로 정남대장군(征南大將軍) 겸 원수(元帥)가 되어 칠월 칠석날에 있었던 대마도 정벌에 공을 세워 이름을 하사받았고 조선개국 후에도 경기우도 수군절도사를 역임했다.

최양

고려말 충신 정몽주(鄭夢周)의 생질인 최양(崔養)은 우왕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이부상서, 대제학을 역임했으나 조선이 개국하자 전주 대승동 봉강리에 은거하여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켰고 조선 태종이 친구의 예(禮)로써 전답을 주었으나 끝내 청렴, 강직한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 최응일(崔應一), 최응수(崔應水) 형제는 인조조 이괄의 난을 평정해서 한풍부원군(漢豐府院君), 결성군(結城君)에 책봉되었다.

<사도공 최군계>

최군의 아들 최보순(崔甫淳)은 일찍 부친을 여의었지만 동생 최보연(崔甫延)과 함께 수학하여 문과에 급제한 후 관직에 나아가 참지정사(參知政事), 형부상서 등을 지내고 고종 13년(1226) 감수국사(監修國史)로서 수찬관이 되어 <명종실록>(明宗實錄)을 찬수했으며 아우 최보연은 형부상서에 이르렀다. 최보순의 맏아들 최윤이는 상약국 봉어(尙藥局 奉御)가 되어 왕의 건강을 돌보았고 둘째 아들 최윤개(崔允愷)는 좌부승선(左副承宣), 이부, 병부상서를 역임했다.

최보순

최성지(崔誠之)는 충선왕을 호종하여 원나라에 다녀와 동지밀직사, 대사헌을 지내고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로 광양군에 봉해졌는데 그는 충선왕을 잘 보필하여 조정의 기강확립과 조세의 균등화, 인재등용과 농잠업의 장려, 동성결혼 금지 및 귀족횡포 엄단, 토지개혁등 혁신정책을 주도했다. 또한 글씨와 시에 뛰어났으며 원나라에서 배워온 역수학(易數學)으로 당시 학계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컸다.

최문도(崔文度)는 전법관서와 첨의참리를 지냈으며 인품과 덕망이 탁월하여 많은 칭송을 들었고 그의 아들 최사검(崔思儉)과 5명의 손자들은 대를 이어 효행으로 명성을 날렸다. 조선 개국후 최부(崔府)는 예문관과 춘추관의 수찬관을 역임했고 광주목사(光州牧使)와 경기도 관찰사를 지냈으며 천추사(千秋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대사헌, 공조, 이조관서를 역임했다.

<문성공 최아계>

최담은 공민왕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참의와 제학을 역임했으나 정국이 어지러워지자 관직을 버리고 전주로 낙향하여 옥류동 냇가에 한벽당(寒壁堂)을 짓고 양촌(陽村) 권근(權近), 만육당(晩六堂) 최양(崔養) 등을 비롯한 여러 명사들과 교류하며 학문을 연구했다. 그의 아들 4형제도 모두 현달하여 맏아들 최광지(崔匡之)는 우왕조때 문과에 급제하였고 조선 태종조에 집현전 제학(提學)을 역임했으며 아우 최직지(崔直之)는 나주판관과 순창도사(淳昌都事)를 역임했다. 세째 아들 최득지(崔得之)는 사헌부 감찰을 역임하였고 막내 최덕지(崔德之)는 태종 5년(1405) 문과에 급제하여 사관, 교서관 정자(敎書館 政字), 김제군사, 남원부사 등을 역임했으나 이후 영암 영보촌으로 낙향하여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최명손

이외에도 최명손은 <동국통감>(東國通鑑) 편찬에 참여했으며 효자로 이름이 높았던 최한경(崔漢卿)은 세조조에 호조참판,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고 최응룡(崔應龍)은 충청감사와 형조참판을 역임했다. 또한 최필성(崔弼成)은 효행으로 정려(旌閭)를 하사받았고 최여림(崔汝霖)은 무신(武臣)으로 청백리에 뽑혔으며 최균(崔均), 최강(崔綱) 형제는 임진왜란때 의병을 일으켜 스스로 '풍운장'(風雲將)이라 하며 고성과 사천 등지에서 전공을 세웠다.

최기필

반면 최기필(崔琦弼)은 임진왜란때 의병을 모아 군량보급을 지원하다가 진주성이 함락되자 남강에 몸을 던져 순절하였고 명나라 내란을 평정하는 원군으로 나갔다가 심양에서 순절하여 명나라 황제로부터 '만고충신'이라는 글씨를 받은 최처중(崔處中) 등이 명성을 떨쳤다.

이와같이 전주 최씨는 4개의 분파를 망라해서 조선시대에 상신 3, 대제학 2, 청백리 5, 공신 2, 문과급제자 109 등을 배출하여 여타의 최씨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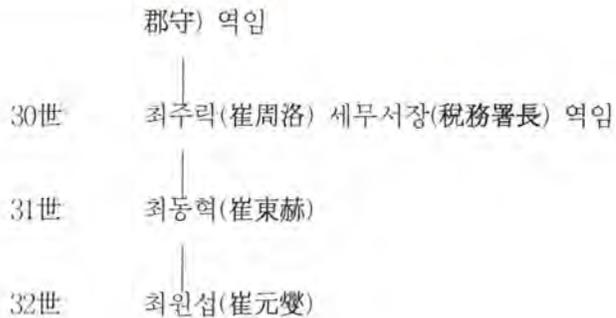
광명에서의 전주 최씨

전주 최씨가 광명시에 정착하게 된 시기나 경위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전주 최씨 대동보를 살펴보면 18세 최항(崔恒)이 처음으로 현재의 노은사동 장질리에 정착하였고 25세 최영환(崔永煥)이 다시 서리리로 이주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가계(家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8世 최항(崔恒) 부사과(副司果) 역임
- 19世 최세준(崔世俊) 부사정(副司正) 역임
- 20世 최태관(崔泰寬)
- 21世 최치명(崔致明)
- 22世 최성운(崔聖雲)
- 23世 최석순(崔錫淳)
- 24世 최병도(崔秉道)
- 25世 최영환(崔永煥)
- 26世 최중필(崔中弼) 사마(司馬) 역임
- 27世 최석용(崔奭鏞) 성균관 박사(成均館 博士) 역임
- 28世 최호선(崔浩善) 통훈대부(通訓大夫) 역임
- 29世 최중원(崔鍾元) 통정대부(通政大夫), 의령군수(宜寧



최중원



최항

최항은 문열공(文烈公) 최순작(崔純爵)의 8세손인 최사의(崔士儀)를 파조(派祖)로 하는 양도공파(襄度公波)의 후손인데 양도공 최사의는 최유경의 아들로 조선 태종조에 판돈녕부사를 지내고 청백리에 녹선되었던 명신(名臣)이다. 광명시에 정착한 최항의 후손은 비교적 손(孫)이 귀한 편으로 장손 계대(系代)가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광명 정착 이후 주로 농사에 종사하면서도 6학문에 정진하여 많은 관직자를 배출하였는데 22세 최성대(崔聖大)는 효성이 극진하여 감찰(監察)에 추증되었고 23세 최명순(崔命淳) 역시 효행이 뛰어나 통정대부(通政大夫)를 지내고 가선대부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추증되었다. 26세 최중철(崔中喆)은 통정대부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을, 최중겸(崔中謙)은 농상공부(農商工部)학교 교관(敎官)을 지냈으며 28세 최호석(崔浩奭)은 육군 참위(參尉)를 역임했다.

현재 서러리에 거주하고 있는 전주 최씨는 노온사동 장절리에 선영을 모시고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14일경 시제를 올리고 있다.

전주 최씨의 설화 및 전설

병자호란때 유명한 재상인 최명길은 가문을 명문의 반석위에 올려놓은 큰 인물이었다. 몸집은 작고 가냘퍼 보였지만 단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은 크고 무거워서 감히 우러러 보지 못했다고

<지천유사>(漣川遺事)에 기록되어 있다. 특히 그는 속된 세상일에는 거의 무관심하여 잘 살피지 않았는데 한번은 그의 조카가 당나귀를 타고 그의 집에 왔다. 이를 본 최명길은 “네 말의 귀가 어찌 그리 긴가?”하고 묻자 조카는 웃으면서 “이것은 나귀이지 말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지천유사>

호조판서에 제직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관청에서 와서 기와 500장을 달라고 청하자 최명길은 이를 듣고 말하기를 “500장은 너무 많으니 한 우리를 주라”하였다. 이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한꺼번에 큰 웃음을 터뜨렸는데 왜냐하면 기와 한 우리는 1000장을 이르는 것이었는데 최명길은 100장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최명길이었지만 병자호란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조판서로서 척화(斥和)와 화의(和議)의 갈림길에서 현실적 정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강화(講和)를 맺어야 한다는 주화론(主和論)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때 척화론을 주장하던 김상헌(金尙憲)이 통곡을 하며 갈기갈기 찢어놓은 화의 문서를 최명길이 주워 이으며 “이를 찢어 버리는 사람이 없어서도 안되고 또 이를 주워 붙이는 사람이 없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결국 최명길은 찢어 버리고 싶은 것을 통곡하는 마음으로 주워 모았던 것이다.

효종조에 영상에 올랐던 조암(鈞巖) 이시백(李時白)은 최명길의 위대한 공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적고 있다.

첫째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반정이념을 구현했고, 둘째 잦은 예론(禮論)에 있어 명륜(明倫)을 밝게 드러내놓은 것, 셋째 이괄의 난 중에 홀로 적중에 뛰어들어 적의 선봉을 홀어놓은 용공(勇功), 네째 병자국란에 모진 비방과 곤욕을 대의(大義)로 헤치고 주화(主和)를 실행하여 종사(宗社)를 보존할 수 있었던 소신, 다섯째 심양으로 들어가 청나라가 요구하는 조선의 정병을 거절한 공로, 여섯째 나라의 위협 아래서도 신명(身命)을 바쳐 사명(事明)의 도리를 다했던 것 등이다.

참고 문헌

1. [대한민국 姓氏 변천사] 대한민국성씨변천사연구소, 역사편찬회출판부 1992
2. [자랑스런 나의 족보] 뿌리찾기운동본부, 뿌리 1989
3. [한국인의 姓譜] 한국성보 편찬위원회(편) 삼안출판사 1986
4. [한국인의 족보] 한국인의 족보 편찬위원회(편) 중앙교육자료개발원 1992
5. [한국족보대전] 한국민족사연구회 청화출판사 1989
6. [한국 姓氏보람] 한국민족문화 진흥회 1992
7. [始興市誌]
8. [光明市誌]
9. [姓氏의 고향] 중앙일보사 1983
10. [한국성씨대관] 최덕규, 이승우 편저 창조사 1971
11. [한국인의 성씨와 그뿌리] 새역사편찬회 무궁화출판사 1992
12. [브리태니카 대사전]
13.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이수건, 일조각 1984
14. [한국인의 姓氏] 이승우, 창조사 1977
15. 각 姓氏별 族譜

*성씨 자료를 제공해주신 각 종친회와
제보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자